대전투데이

젊은생각 · 바른신문 전화 042-538-3030 구독배달 042-538-1602 www.daejeontoday.com 제 3130호 2019년 9월 9일 월요일

대전체고 · 충남대, '육상훈련장' 유치 둘러싼 갈등 확산

▲ 대전시가 육상 대체훈련장의 한 곳으로 거론되고 있는 대전체육고등학교 운동장.

그동안 육상종목 훈련장으로 사용된 한밭종합운동장이 철거될 예정인 가운데, 대체훈련장 지정을 앞두고 후보지로 거론되는 대전체육중 · 고 총동문회(회장 성현기)와 충남대학교 체육진흥원(원장 이주욱)이 육상훈련장 유치를 두고 갈등을 빚으면서 체육계가 시끄럽다.

특히 최근엔 성 회장과 이 원장이 육상훈련장 유치를 두고 날선 설전으로 감정싸움으로까지 번질 태세이어서 사태가 악화되는 양상이다. 이에 앞서 대전시는 한밭종합운동장을 서남부 종합스포츠타운 예정지인 유성구 학하동 205-1 일원에 2026년까지 건립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대전시는 새야구장 건립계획 발표 당시 내놓은 충남대와 대전체고, 관저체육공원 3곳을 육상훈련장 활용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었다.

그런데 최근 충남대가 지역 육상계의 여론을 무시한채 육상훈련장 유치에 나서자 대전체육 중 · 고등학교 총동문회가 발끈하고 나선 것이다.

이에 대전체육중 · 고등학교 총동문회는 지난 8월 7일 저녁 긴급 이사회를 열고 이주욱 충남대 체육육진흥원장의 최근 행보에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이 원장은 최근 지역의 한 일간지와 인터뷰에서 "육상 종목 대체훈련장 유치 결정은 육상경기연맹 등 육상인과 협의나 육상계의 입장을 고려할 상황이 아니고 시장과 협의해야 할 사안"이라며 육상계와 각을 세운 발언을 했었다.

성 회장은 최근 성명서에서 "충남대가 육상계와 소통할 능력도 의지도 없는 편협한 이주욱 체육진흥원장을 내세워 대전육상종목 대체훈련장을 거론한다는 것 또한 앞뒤가 안맞는 논리적 모순으로 충남대의 관련조직원들은 육상종목대체훈련장을 유치에 나서기 전에 먼저 육상인들을 존중하고 육상계와 소통할 마음의 준비가 되어있는지를 스스로를 돌아보고 성찰하는 기회를 갖길 바란다"면서 "우리 동문회는 육상연맹과 육상인들의 판단을 존중하고 지지하며, 모교가 육상종목 대체훈련장으로 선정되면 모든 선수들이 훈련을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또 성 회장은 최근 본지 인터뷰에서 육상 종목 대체훈련장이 대전체고로 들어와야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모교만이 대체 훈련장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적도 없고 평소 대체 훈련장은 어느 곳이든 육상인 들이 원하는 장소가 최적의 대체 훈련장이 될 것이란 지론을 체육인의 한사람으로서 갖고 있었다"면서 "다만 뒤늦게 이주욱 충남대 체육진흥원장이 언론을 통해 육상인 들의 의견을 고려할 생각이 없고 대전시장과 대체 훈련장을 협의하겠다고 주장한 언론 보도를 접하고 기가 막혀서 성명서를 발표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성 회장은 양교 총동문회가 대립해서 문제가 확산될 것이란 우려에 대해서는 "충남대학교 총동문회도 육상인 들과 소통조차 거부하며 대체 훈련장을 유치하겠다는 이주욱 교수의 논리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들 계실 것"이라며 "그간 충남대학교가 모교와 함께 대전 육상계에서 상호 중심적인 역할을 해왔기에 대체 훈련장 유치에 나설 충분한 자격이 된다는 것을 인정하더라도 이주욱 교수의 발언은 어느 누구도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다. 모든 것은 상식선에서 생각하면 된다고 본다. 그 상식을 벗어난 사람의 얘기에 동조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성 회장은 육상 종목 대체 훈련장이 대전체고로 선정되면 대전체고가 얻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는 질문엔 "일부 시설지원이 되겠지만 모교의 육상훈련시설이 높은 수준이라서 크게 기대하지 않는다. 또한 그런 지원 때문에 대체 훈련장을 주장한 적도 없다. 얻을 수 있다고 기대하는 것은 육상선수들이 종목별로 실업과 대학 등에서 뛰는 우수한 선배선수들과 훈련을 같이 할 수 있어서 기량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된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육상 대체훈련장으로 인프라가 잘 갖춰진 대전체고가 적합하다는 의견과 지역 거점대학으로서 그동안 대전체육 발전에 큰 기여를 해온 충남대가 적합하다는 의견이 팽팽해 대전시가 과연 어떠한 선택을 내릴지에 지역 체육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정복 기자

태풍 '링링' 충청지역 강타 …피해 속출

농작물 피해 · 정전 피해 등 전날 확인된 것보다 더 늘어나

지난 6~7일 한반도에 영향을 미친 13호 태풍 '링링(Lingling)'으로 인해 대전 · 세종 · 충남서 1명이 숨지고 3명(소방 집계 1명 사망 · 6명 부상)이 다친 것으로 8일 잠정 집계됐다.

과수 낙과 등 농작물 피해와 정전 피해 등은 전날 확인된 것보다 더 늘어났다.

8일 대전 · 세종 · 충남도에 따르면, 지난 6일 자신의 트랙터 보관 창고 지붕을 점검하던 A(74 · 여 · 보령시)씨는 강풍에 휩쓸려 화단 벽에 몸이 부딪히면서 사망했다.

비슷한 시각 보령시 성주면에서 철골 구조물이 무너지는 바람에 김모(67)씨 부부가 다쳤고, 오후 4시 9분께 대전 유성구 한 상가에서 간판이 떨어져 A(59)씨가 다쳤다.

충남에서는 어선 2척이 침몰되고 6척이 파손되는 등 수산업 관련 피해액만 12억여 원에 달했다.

또 태안군 남면 1천550가구 등 4천160가구가 정전 피해를 입었다가 완전히 복구됐다.

8일 오전 11시 현재 충남도내 농작물 피해는 △벼 등 도복 1138.3ha △낙과 1564.2ha △시설물 파손 106.3ha △기타 9.1ha 등으로 집계됐다.

대전서도 과수원 0.72ha에서 낙과 피해가 있었다.

또한, 대전서는 강풍에 가로수 56그루가 넘어졌고, 간판 6개와 주택외장재 4곳, 신호등 3곳 등 총 94개의 시설물 피해가 있었다.

세종시는 연서면 용암리 고복자연공원(저수지) 산책로에 있는 소나무의 가지 2개가 부러지고 신도시 현수막 여러 개가 훼손되는 등 모두 61건의 피해가 발생했다.

피해가 심각한 충남도는 합동조사반을 편성해 정확한 피해 규모를 확인하고 있다.

양승조 충남도지사는 8일 피해 상황 점검과 지원 방안 모색 등을 위해 과수농가를 찾았다.

양 지사는 이날 오전 예산군 오가면 사과 농가와 오후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배 농가 2곳을 잇따라 방문했다.

예산 사과 농가의 경우 10% 정도 낙과 피해가 발생하고, 배 농가들은 30% 이상 낙과 피해가 발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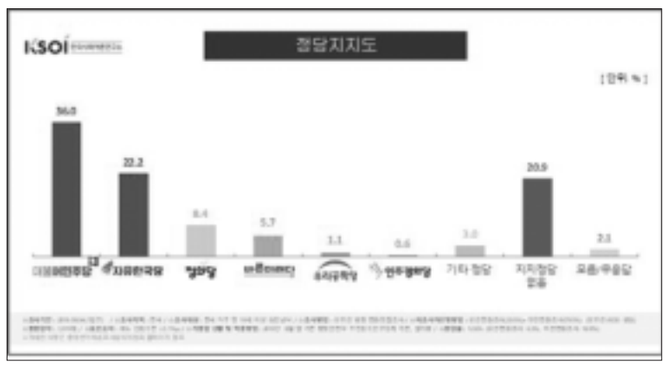
각 농가에서 양 지사는 예산군과 천안시 과수 낙과 피해 현황을 각 시 · 군 관계자들로부터 듣고, 피해 농업인들에게 위로의 뜻을 전했다.

양 지사는 "태풍으로 도내 곳곳에서 낙과와 도복 등의 피해가 발생했다"며 "우선 철저하고 신속하게 조사를 진행 한 뒤, 각 시 · 군과 함께 피해 복구 및 지원 방안을 모색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정환 기자

민주당 36.0% 한국당 22.2% 정의당 8.4% 미래당 5.7%

(KSOI) 정당지지도 조사결과… 더불어민주당 지난 7월 비해 0.9%p 하락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지난 4일 전국 유권자 1,01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당지지도 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7월에 비해 0.9%p 하락한 36.0%의 지지도를 기록하며 1위를 유지했다.

자유한국당은 0.4%p 상승한 22.2%로 2위, 정의당은 8.4%를 기록하며 3위로 조사됐다.

같은 조사에서 조 국 법무무장관 후보자의 논란이 대통령 국정운영지지도에는 지지도 하락의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정당지지도에는 크게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은 연령별로 30대(-10.8%p), 권역별로 부산/울산/경남(-10.3%p)과 대전/세종/충청(-8.7%p), 직업별로 가정주부(-7.6%p)계층, 정치이념성향별로는 중도층(-3.4%p)에서 지지도가 다소 하락했으며, 자유한국당은 연령별로 50대(+4.7%p), 권역별로 대전/세종/충청(+2.8%p), 직업별로 가정주부(+4.5%p)계층에서 지지도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36.0%)은 연령별로 20대(46.0%)와 40대(46.0%), 권역별로 광주/전라(63.3%), 직업별로 학생(50.1%)과 화이트칼라(45.8%), 정치이념성향별로 진보층(64.7%)에서 지지도가 다소 높게 나타났으며, 자유한국당(22.2%)은 연령별로 60세 이상(37.2%)과 50대(31.1%), 권역별로 대구/경북(44.1%)과 부산/울산/경남(28.7%), 직업별로 가정주부(34.7%)와 자영업(28.0%), 정치이념성향별로 보수(46.4%)층에서 다소 높은 지지를 받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정의당(9.0%)은 연령별로 40대(17.4%), 권역별로 인천/경기(10.8%), 직업별로 화이트칼라(11.2%)와 가정주부(10.9%), 정치이념성향별로 진보층(13.1%)에서 지지도가 높게 나타났고 바른미래당(5.2%)은 연령별로 20대(7.4%)와 60세 이상(7.3%), 권역별로 대구/경북(9.7%), 직업별로 학생(7.9%)과 무직/기타(7.5%), 정치이념성향별로 보수층(8.1%)에서 지지도가 높게 나타났다.

한편, 무당층(20.9%)은 연령별로 20대(24.8%)와 30대(34.0%), 권역별로 대전/세종/충청(26.8%), 직업별로 기타/무직(25.0%), 정치이념성향별로는 중도층(28.2%)에 주로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8월 정례조사는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19명을 대상으로 9월 4일 하루동안 유무선 병행(무선79.5%, 유선20.5%) 전화면접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수준, 응답률은 12.6%(유선전화면접 6.3%, 무선전화면접 16.9%)다. 2019년 8월 말 기준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를 기준으로 성, 지역, 연령별 가중치를 적용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www.nesdc.go.kr)와 한국사회여론연구소 홈페이지(www.ksoi.org)를 참조하면 된다.

이정복기자

대덕구의회, "추석맞이 사회복지시설 위문" 격려 대전 대덕구의회(의장 서미경)는 5일 민족 고유의 명절인 추석을 맞이하여 사회복지시설 6개소를 위문했다. 이번 위문은 지역 내 법동종합사회복지관, 솔로몬지역아동센터, 대덕구장애인자립지원센터, 대전카톨릭노인복지센터, 늘픔대덕직업적응훈련센터, 대덕구지역자활센터를 방문하여 시설생활자들이 좀 더 훈훈하고 따뜻한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위로하는 차원에서 마련한 것으로, 방문시설에 위문품으로 온누리상품권을 전달하고 생활자들과 종사자들에게 따뜻한 위문과 격려를 보냈다.

세종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개최

위원장에 이태환 의원 · 부위원장에 손현옥 의원 선임

세종시의회(의장 서금택)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태환)는 5일 제1차 회의를 통해 위원장에 이태환 의원과 부위원장에 손현옥 의원을 선임하고, 2019년도 제2회 세종시 추가경정예산안 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했다.

이번 추경안의 총 규모는 1조 6,890억원으로 기정예산 1조 6,243억원에서 647억원(▲4.0%)이 증액됐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는 사업의 적정성과 효과성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중 운영지원과 소관 본관 청사관리 등 총 16개 사업에서 8억 6,320만원을 삭감하고, 아동청소년과 소관 모두의 놀이터 조성사업 실시설계비 등 총 32개 사업에서 8억 6,320만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했다. 그 외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과 특별회계 세입 · 세출 예산안,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했다.

예결위 위원들은 심사 과정에서 ▲음용수 사각지대인 상수도 미 보급지역의 수질관리 총력 ▲A형 간염 급증(20~40대)에 따른 백신 확보 및 홍보 집중 ▲대중교통 표방도시다운 운수종사자 친절도 향상방안 마련 ▲생활폐기물이 자원으로 순환될 수 있도록 시민 유도책 강구 ▲제대로 된 상점가 육성을 통한 포괄 상권 형성이 지역화폐의 성패 좌우 등을 강조하며 관련 부서의 노력을 주문했다.

이태환 위원장은 집행부에 "심사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사업 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줄 것"과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추경안을 계획대로 집행하여 우리 시가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발언을 마무리했다.

한편, 예결위에서 심사한 제2회 추경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오는 10일 제57회 임시회 2차 본회의 의결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세종=김태선기자

당진시의원, 시민 위한 조례 제정에 '힘써'

전재숙, 조상연, 김명진, 윤명수, 김명회의원 조례안 각각 발의

당진시의회 전재숙 의원은 이번 제65회 임시회서「당진시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 지원 조례안」을 단독으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적정 간병 인력 확보를 통한 환자 안전 및 간병서비스의 질을 개선하고, 보호자 또는 사적 간병인이 없어도 필요한 간병서비스를 제공받아 환자와 그 가족의 간병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발의됐다.

또한 조상연 의원은「당진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확보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으며, 김명진 의원은 지역에서 생산된 우수 농산물이 공공급식에 공급되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단체급식의 공공성을 확보와 지역주민의 보편적인 먹거리 복지를 증진시키고 지역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 위해「당진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아울러 윤명수 의원은 병역명문가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 및 우대사항을 규정해 3대에 걸쳐 대대로 병역을 명예롭게 이행한 가문이 시민으로부터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병역의무의 중요성을 고취하고자「당진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끝으로 김명회 의원은 당진시민의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각종 현안 사항에 대한 시민의견을 민주적으로 청취하기 위해 당진시의회가 개최하는 토론회 등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당진시의회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는 등 당진시의원들이 시민들의 복리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며 '일 하는 당진시의회' 구현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당진=최근수기자

국회도서관, 박관용 전 국회의장 구술집 증정식

국회도서관(관장 허용범)은 6일 낮 12시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문희상 국회의장 등 국회주요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박관용 전 국회의장 구술집 증정식을 가졌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박관용 전 국회의장에게 전달한 '국회의장단 구술총서' 다섯 번째 발간물 『대한민국 국회를 말하다: 박관용』편에는 학창시절, 정계입문 계기 및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재임기 활동 등이 수록되어 있다. 특히 국회의장 임기 말인 2004년 3월 12일 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안 의결 과정과 대통령 탄핵에 관한 박 의장의 생각이 담겨 있다.

국회=김성구기자

충남도의회 최훈 의원 "백제문화제, 세계적 축제로 육성하자"

5분발언 통해 제65회 백제문화성공개최 · 발전 방안 제언

충남도의회 최훈 의원(공주2)은 6일 제314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65회 백제문화제의 성공 개최와 발전 방안에 대해 제언했다.

최 의원은 이날 5분 발언을 통해 "지역 대표 축제인 백제문화제는 많은 재정을 투입하고 있음에도 차별화된 프로그램과 콘텐츠 부족, 관광객 유인력 미흡 등을 꾸준히 지적받고 있다"며 "지역 주민만의 행사가 아닌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축제로 발전시켜 세계인이 공주와 부여를 찾을 수 있도록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항상 새로움만 추구하는 일회성 행사로 기획되기보다는 5~10년 후를 내다볼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며 "축적된 경험과 매뉴얼을 토대로 기획과 진행을 파견 공무원 중심에서 전문인력이 주도하는 추진체계로 바꿔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역주민은 물론 관광객의 직접 참여를 유도하는 한편 박물관과 전시공연장 입장료 할인 혜택, 운영 시간 연장 등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며 "많은 예산을 들여 설치한 시설을 한 번 쓰고 철거하지 말고 유지 가능한 시설은 방문객을 위해 보존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달라"고 제안했다.

김정환기자

더불어민주당 아산을, 충남도당 정책 페스티벌에서 1위

당의 주요 정책을 결정하는 정당 최초 '정책 페스티벌'

더불어민주당 아산을 지역위원회(위원장 강훈식)가 지난 5일 열린 민주당 충남도당 정책페스티벌에서 1위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도고글로리콘도에서 열린 이번 행사는 당원의 손으로 당의 주요 정책을 결정하는 정당 최초 '정책 페스티벌'의 일환이다.

이날 아산을 지역위는 장애인이 불편없이 문화 생활을 즐길 수 있는 '복합문화센터' 설립을 제안했다. 장애인이 편하게 쿠킹 클래스, 영화관, 스포츠 센터 등을 이용할 수 있는 복합문화센터를 설립하는 게 정책의 요지다.

특히 청년 아산시의원인 김미영 의원과 중학생인 유병준 군이 함께 호흡을 맞춰 정책을 발표해 의미가 더욱 컸다. 평소에도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중시하는 김 의원은 "다름은 틀린 것이 아니다."라며 이날 장애인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유 군은 "장애인이 편한 세상은 누구에게나 편한 세상이다."라며 해당 정책 발표를 마무리했다.

아산을 지역위원장 강훈식 국회의원은 "8월 말 하계 워크숍에서 정책 토론을 통해 모인 아이디어가 오늘 빛을 발할 수 있어서 기쁘다."며 "앞으로도 당원분들의 목소리가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자주 기회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아산을 지역위는 이후 충남을 대표해 20일 국회에서 민주당 전국 지역위원회를 대상으로 다시 한번 정책 경연을 치룰 예정이다.

아산=리량주기자

남진근 의원 '역세권 발전 공로'감사패 수여

대전시의회 남진근 의원(동구1, 더불어민주)은 6일 '역세권 발전 공로'로 지역주민 대표에게 감사패를 받은 후 현안사업에 대한 설명회 및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서 대전시 3개 부서(도시재생, 공동체정책, 도시정비)로부터 동구 중동 공영주차장 부지 등에 대한 '도심형산업지원 플랫폼 건립' 중앙로 지하상가에 대한 '중앙로 프로젝트 사업' 대전역 주변 '관광자원화 사업' 및 역세권 재개발 사업 등 현안사업에 대한 추진 현황을 설명하고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김정환기자

주승용 부의장, 이낙연 총리와 여수산단 불법배출 대책 논의

이낙연 총리에게 5가지 유해물질 불법배출 개선책 제안

주승용 국회부의장은 6일 '여수산단유해물질 불법배출 범시민대책위원회' 관계자들과 함께 최근 여수산단에서 발생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측정값 조작 사건(이하 유해물질 불법배출)'과 관련해 이낙연 국무총리와 면담을 갖고 후속 대책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면담에서 주 국회부의장과 범시민대책위원회는 이 국무총리에게 ▲철저한 진상조사와 투명한 조사결과 공개 및 관련자 엄중처벌, ▲환경오염물질 배출기준 강화와 측정제도 개선, ▲광양만권 환경오염물질 배출 총량제 조기시행, ▲지역주민, 노동자 건강역학조사와 환경위해성평가 실시, ▲여수석유화학산업단지 민간환경감시센터 설치 등 5가지 개선대책을 제안했다.

주 부의장은 유해물질 불법배출 사건 발생 이후, 여수산단 뿐 아니라 석유화학업계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배출농도를 측정하는 업체 선정 및 대금지급을 기업이 아닌 '공공기관', 정부 또는 지자체가 직접 하도록 하고, 환경부에서 광역단체로 이관한 관리권을 해당 시 · 군(기초자치단체)에서 직접 관리 할 수 있도록 환경부가 제도개선에 앞장서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또한,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배출사업자의 부당한 요구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측정대행계약을 중개하는 제3의 기관을 지정하도록 하고, 측정대행업자는 공신력 있는 중개기관을 통해 계약을 체결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환경분야 시험 · 검사 등에 관한 개정안」을 대표발의해놓은 상태이다.

주 부의장은 "이번 면담을 통해 <건강 · 위해성 영향평가>를 실시해서 그 동안 여수시민들이 입은 정신적, 물질적인 피해에 대해 제대로 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고 밝혔으며, "시민대책위원회가 제안한 5가지 사항에 대해서 이낙연 총리로 부터 상세한 답변을 듣고,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서 이를 긍정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이낙연 총리의 약속을 받았다."고 전했다.

국회=김성구기자

대전 서구의회 '공정관광 워킹그룹 간단회' 개최

공정관광 육성과 지원 관한

대전 서구의회(의장 김창관)는 6일 간담회장에서 공정관광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배재대학교 박근수 교수, 월평동 공정여행 푸른달 조혜미 활동가, 해뜰어린이도서관 서현석 관장, 숲생태연구소 이성숙 대표, 디에스컨설팅 신동선 원장, 한국관광컨텐츠개발 박광석 충청지사장, 위즈온협동조합 오영진 대표, 청춘너나들이 윤정성 대표, 공감만세 고두환 대표 등 각계 전문가들이 참석하여 공정관광의 육성 필요성과 활성화 방안을 모색했다.

배재대학교 박근수 교수는 공정관광의 개념과 대전시 공정관광 사업현황, 서구의 공정관광 단계별 준비전략에 대해 발표 했으며, 조혜미 활동가의 월평동 공정여행 사례발표, 서현석 관장의 마을에너지투어 공정여행 사례발표 및 자유토론 시간을 가졌다. 숲생태놀이연구소 이성숙 대표는 조례가 제정되어 서구의 숲과 자연생태를 활용한 관광상품이 많이 개발되어 저소득 취약계층의 문화활동에 접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개발되기를 바랬으며, 디에스컨설팅 신동선 원장은 조례 제정시 서구만의 공정관광 다움을 고민하여 조례나 내용을 발굴할 것을 주문했다.

김정환기자

daejeontoday.com

"지속적인 교육혁신 · 차별화된 교육… 대전 대표대학으로 성장"

대전대학교

대전대학교(총장 이종서)는 1980년 '국가발전, 문화창조, 사회봉사'의 건학이념으로 설립된 중부권 대표의 민간사학이다. 어려운 대내 · 외 여건속에도 지난 39년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이어온 대전대는 국가와 지역사회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대전의 대표대학으로 성장해왔다.
대전대학교는 '튼튼한 기본과 특별한 경험'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교육혁신과 차별화되고 선진화된 시스템을 정착시켰으며, 학문과 실용을 연계한 산학협력 시스템으로 다가오는 4차 산업혁명에도 함께 대비하고 있다.
그 결과 정부가 지원하는 각종 재정지원 사업에도 지속적으로 선정되는 등 '미래 대학의 새로운 표준'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

■ 정부 재정지원 사업

지난 2018년은 어느 해보다 높은 성과를 거둔 해였다. 대전대는 교육부가 발표한 2주기 대학기본역량진단평가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며 최상위 등급인 '자율개선대학'에 선정됐다. 이에 정원감축에 대한 권고 없이 향후 3년간 일반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스마트 헬스케어 VR 사업단(이하 'VR 사업단')'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주관한 '2018 시스템 산업거점기관 지원사업'에도 선정되기도 했다. 이번 사업선정은 향후 스마트 헬스케어 플랫폼의 구축 및 운영 등, 글로벌 헬스케어 산업과 Bio-IT융합 보건의료분야를 선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도 볼 수 있다.

<이규원 입학처장>

이러한 성과는 비단 이번만의 일이 아니다. 대전대학교는 지난 2014년 대전 지역 사립대학 중 유일하게 LINC(산학선도대학) 육성사업과 ACE(학부교육 선도대학 육성사업), CK-1(지방대학 특성화 사업) 등 정부재정지원 사업의 3개 부분에 선정된 바 있다. 이를 통해 재학생들에게 다양한 교과과정과 현장실습 등의 많은 경험을 제공하기도 했다.

이에 대학의 제일 목표인 '잘 가르치는 대학', '잘 지도하는 대학', '취업이 잘 되는 대학'이라는 명성을 얻은 대전대는 LINC 사업의 후속 사업인 2017년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에도 최종 선정되며 향후 산학협력 부분의 강화를 통한 대학의 내실을 더욱더 깊이 있게 다질 수 있게 됐다.

■ 링크+사업단

LINC+사업단은 또 올해 실시된 중간평가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으며, 2단계 사업에 진입했다. 이를 통해 산학협력친화형 교육체제 정착은 물론, 지역사회와 기업과의 밀접한 연계 및 협력하는 3-way 리빙랩 선도대학이라는 명성도 이어갈 수 있게 됐다.

이처럼 지역사회와의 상생체계를 구축하며 지속가능한 산학협력 성과를 달성해온 LINC+사업단은 올해 체계화된 프로세스를 도입했다.

'DJU Co-op'을 비롯한 'All-Set 기업지원' 및 'Glocal 서비스 고도화' 등을 통해 산학협력의 내재화를 이루었으며, 실전창업자 양성을 위한 'DJU 스타터팩 Lite · Plus' 과정을 개설해 운영하고 있다.

또한 창업 아이디어 발굴뿐만 아니라 스피치, IR · 투자, 프레젠테이션, 특허교육 등 기존 일차원적인 창업교육에서 탈피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이밖에도 지난해 말 개관한 'The 4th Edu-Park'는 학생들의 창업 동아리 활동과 지역 및 기업지원을 위해 VR존과, 코딩 프로그램실 및 아이디어 작품실, 3D 프린터실(드림팩토리) 등을 운영하고 있다.

■ 기숙형 대학 HRC(HyeHwa Residential College)

대전대는 급변하는 미래와 4차 산업혁명에 걸맞은 새로운 교육과 가치를 창조하고자 지난 2018년 기숙형 대학인 HRC(HyeHwa Residential College)를 완공했다.

HRC는 단순한 기숙사의 기능을 넘어 생활과 교육이 동일 공간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 시스템을 구축했다. 특히 기존의 대학교육과는 차별화되고 특별한 학습경험을 제공함으로써, 미래 교육의 새로운 표준을 제시하게 될 것으로도 보고 있다.

또한 HRC에서는 학생들에게 독서와 토론, 외국어, IT 등의 학습활동뿐만 아니라 음악, 미술, 영화, 사진 등 다양한 예술분야와 각종 스포츠 및 명상에 이르기까지 대학생들에게 필요한 기본 소양 함양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를 위해 교수들로 구성된 RM(Residential Master)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수십 명의 재학생들이 장학금을 받으며 새내기들의 튜터로도 활동하는 등 서로 어울려 해결하는 공동체 공간을 형성하고 있기도 하다.

학생 중심의 생활공간을 만들기 위해 건축물에도 신경을 썼다. 캠퍼스 남동쪽에 자리 잡은 HRC는 약 2만8000㎡의 건축면적에 'Heart 홀'과 'Harmony 홀'로 나뉘어 두 개의 건물을 세웠다.

'Heart 홀'은 대학 랜드마크 건물인 '30주년 기념관을 설계한 승효상 씨가 'Harmony 홀'은 차세대 건축가인 조민석 씨가 설계하며, 대학의 정신과 교육적 가치를 대표하는 상징적 구조물로 탄생했다.

▲대전대학교 인재 선발 방향

대전대는 수시모집에서 총 모집인원의 87.4%인 2167명1,893명을 모집하며 학생부교과, 학생부종합, 실기위주의 전형을 실시한다. 학생부종합전형을 제외한 전 전형의 평가방법을 전년도와 동일하게 유지함으로써 입학전형 안정성, 전형방법 간소화 기조를 유지하였고, 학생부종합전형은 교과성적의 반영비율을 없애고, 서류평가 반영비율을 늘림으로써 교과성적에 대한 지원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해당 전형이 종합전형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변경하였다.

학생부교과 : 일반전형, 교과우수자전형, 군사학과전형, 고른기회전형1 · 2, 특성화고교졸업자전형

일반전형의 주요 특징은 면접고사 실시이다. 면접고사는 1단계에서 모집인원의 5배수를 선발하여 실시하며 다대다 면접방식이다. 일반학과의 경우, 면접문항은 문제은행 방식으로 본교 입학안내 홈페이지에 사전 공지되며 그 중 2문제를 선별하여 출제한다. 한의예과의 경우, 면접문항은 고교 교육과정 범위에서 출제하며 면접고사 준비실에서 공개하고 준비시간을 약 15분 내외로 부여한다.

교과우수자전형은 수시전형 중 가장 많은 모집인원을 선발하며 학생부 내신성적 및 출결상황만 반영하고 대학별고사를 실시하지 않기 때문에 지원자의 부담이 가장 적다.(일반전형과 교과우수자전형은 일부 모집단위에 수능최저학력기준을 적용하며 중등특수교육과, 간호학과, 물리치료학과, 임상병리학과, 응급구조학과, 한의예과가 해당) 군사학과전형은 수능최저학력기준을 적용하며 1단계에서 모집인원의 4배수를 선발하고 2차 선발에서 체력검정 및 면접고사를 실시한다. 본교 군사학과는 육군과 군사학 발전 협력 합의서를 체결하여 남학생 전원, 여학생 상위 6명(수시모집에서 전형 총점 순으로 선정)은 입학과 동시에 군장학생으로 선발되고 졸업 후 육군 소위로 임관한다. 고른기회전형1 · 2와 특성화고교졸업자전형은 수능최저학력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학생부 내신성적 및 출결상황만 반영하며 지원자는 전형별 세부 지원자격 충족여부를 확인해야한다.

학생부종합 : 혜화인재전형, 지역인재전형, 농어촌학생전형

혜화인재전형은 전 모집단위에서 수능최저학력기준을 적용하지 않으며 자기소개서를 제외한 기타 서류(교사추천서, 포트폴리오, 활동보고서 등)를 받지 않는다. 학생부 및 자기소개서를 활용하여 서류종합평가를 실시하고 1단계에서 모집인원의 4배수를 선발하여 면접고사를 실시한다. 면접고사는 다대일 면접방식이며 한의예과를 제외한 모집단위는 제출서류 확인 면접을, 한의예과는 2단계로 전공면접과 서류면접을 실시한다. 한의예과 전공면접문항은 고교 교육과정 범위 내에서 출제하며 면접고사 준비실에서 출제문제 확인 및 준비시간을 약 15분 내외로 부여함으로써 지원자의 부담감을 최소화하였다. 지역인재전형과 농어촌학생전형 역시 자기소개서를 제외한 기타 서류(교사추천서, 포트폴리오, 활동보고서 등)를 받지 않는다. 면접고사는 실시하지 않으며 학생부 및 자기소개서를 활용하여 서류종합평가를 실시한다.(농어촌학생전형에서 한의예과만 수능최저학력기준 적용)

실기위주 : 특기자전형, 실기위주전형

특기자전형은 모집단위별 인정하는 최소한의 입상실적 소지자만 지원 가능하며 지원자는 모집요강에 기재된 인정대회 및 입상범위를 확인해야 한다. 실기위주전형은 전형명에서 알 수 있듯이 실기고사가 주요 전형요소이며 반영비율이 높다. 실기고사 반영비율은 모집단위별 60% 또는 80%를 반영하기 때문에 지원자는 실기고사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장학제도

대전대는 장학제도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수요를 반영하고자 최초합격자 전원을 대상으로 입학금면제장학을 실시하며 국가장학(1유형/2유형), 우수성적장학, 특별장학(수능성적/공인영어시험) 등을 통해 다수의 신입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또한 교내 · 외 많은 장학금을 확보하여 경제사정으로 학업을 중단하는 일이 없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장학제도 세부사항은 본교 모집요강 또는 본교 홈페이지(www.dju.ac.kr)에서 확인 가능하다.

김정환 기자

●동 정●●●

신규임용(예정)자 대상 특강

설동호 대전시교육감= 9일 오전 10시 대전교육연수원에서 2019년 지방공무원 신규임용(예정)자를 대상으로 특강한다.

서구지역 시의원 초청 간담회

김종천 대전광역시의회 의장= 9일 오후 5시 서구청 대회의실에서 열리는 서구지역 시의원 초청 간담회에 참석.

사랑나눔 송편만들기

박용갑 중구청장= 9일 오후 2시 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리는 '추석맞이 사랑나눔 송편만들기' 참여.

행복동행 동네마실

장종태 서구청장= 9일 오전 10시 30분 관저1동으로 행복동행 동네마실에 나선다.

시책발굴 및 경진대회

정용래 유성구청장= 9일 오후 1시 30분 구청 대회의실에서 열리는 2019년도 시책발굴 및 경진대회에 참석한다.

대코 맥주페스티벌 시즌2

박정현 대덕구청장= 9일 저녁 7시 신탄진역 앞 새시장 상가거리에서 열리는 대코 맥주페스티벌 시즌2에 참석한다.

대전대명로타리클럽 쌀 730kg 기부

대전대명로타리클럽은 지난 7일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대전지역본부에 쌀 730kg를 전달했다.

행사에는 대전대명로타리클럽의 최건희 회장, 김영학 총무, 최용석 재무, 안정희 봉사위원장, 도성환 사찰위원장, 이승룡 회원, 남현 회원, 이용석 회원등 많은 회원들이 참석했다.

이번에 기증하는 쌀은 대전대명로타리클럽의 창립 후 초대회장으로 취임하는 최건희 회장 취임식 때 경제적으로 어려운 아이들을 위해 화환 대신 드리米 쌀 화환을 받은 것으로 대전지역 소규모 양육시설인 15개 공동생활가정과 3개 학대피해아동 쉼터의 아동들에게 전달됐다.

박미애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대전지역본부장은 "소규모시설인 아동공동생활가정은 넉넉지 않은 운영비로 시설을 운영하는게 쉽지 않은데 추석명절을 맞아 큰 선물을 주셔서 감사드리며, 대전지역의 아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쌀화환 전문기업인 드리米 대전지사와 초록우산어린이재단 대전지역본부는 업무협약을 맺어 지속적으로 나눔이 있는 경조문화 조성에 힘쓰고 있다.

송병배기자

市, 반도체 장비 글로벌기업 등과 투자유치 네트워크 구축 성과

미국 지역 투자유치와 교류 협력 확대

대전시는 지난 달 24일부터 지난 4일까지 미국(오리건주, 실리콘밸리, 메사추세츠) 8개 기업과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전개한 기업설명활동(IR:Investor Relations)에서 1,100만 달러 투자를 유치하고 6,000만 달러의 투자유치 협의 등 큰 성과를 얻었다고 9일 밝혔다.

투자유치 성과로는 재무 투자자 'M' 사의 1,000만 달러 투자신고와 인공지능 및 자율주행 모듈을 통한 운송· 물류의 혁신적인 플랫폼 모듈 기술을 보유한 'H' 사와 100만 달러의 업무협약 체결이다.

이들 M사와 H사는 조인트벤처(JV:합작투자)를 설립해 대전에 투자할 계획이다.

시는 오리건주에 위치한 친환경 삼륜전기자동차를 생산하는 'A' 사 대표자에게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의 밧데리 기술력과 정책을 소개하고, 올해 11월 1,000만 달러 업무협약 체결 등을 추진 중이다.

메사추세츠에 위치한 군사 및 산업분야의 열, 냉동 시스템을 개발, 제조 · 상용화하고 있는 'A' 사와는 약5,000만 달러를 투자해 한국에 신개발제품을 출시하기 위한 협력사를 찾기 위해 노력 중이다.

또한 대전시는 해외투자유치 활동에서 대전의 한국과학기술원 출신 스타트업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과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등 정부출연연에게 세계적 수준의 연구개발 역량이 있음을 확인하고, 실리콘밸리 기업이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내 외국인투자지역 조성에 관심을 보이고 있어 앞으로도 대전시와 전략적 협력 관계를 지속적으로 갖기로 했다.

'A' 사는 전자 제품용 반도체 칩, 컴퓨터, 스마트 폰 및 TV용 평면패널 디스플레이 장비 등을 제조 · 공급하는 회사로, 관련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대전의 벤처기업 또는 스타트업에 투자하기를 원하고 있어 정보를 교환하고 있다.

10억 달러의 자산규모를 가지고 있는 'H' 사에게 4차산업 관련 대전의 벤처기업을 소개해 투자를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다.

보안용 인공지능 및 자율주행형 로보틱스 제조하는 'N' 사는 음향, 온도 분야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벤처기업과의 협력을 원해 대전시에서는 중장기 해외투자유치 기업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이번 투자유치 성과는 실리콘밸리의 첨단기술 기업과 스타트업을 육성하는 벤처투자자들로부터 대전시의 단기적 투자신고와 중장기적 투자유치를 전략적으로 이끌어 낸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선 기자

추석명절 맞아 상권활성화 다양한 이벤트 개최

대덕구, 추석 전후 대코맥주페스티벌 · 전통시장 장보기 등

대덕구(구청장 박정현)는 침체된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추석명절을 앞두고 다양한 지역경제 살리기 이벤트 행사를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추석은 예년보다 열흘 정도 빠르고 가을장마와 태풍까지 겹치면서 명절 대목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다. 또한 경기침체로 소비심리 마저 얼어붙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상인들은 울상을 짓고 있다.

이에 구는 다양한 이벤트를 통해 추석명절 분위기를 띄워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먼저 오늘(9일)과 내일(10일), 그리고 20일~21일 4회에 걸쳐 신탄진역 앞 새시장상가거리, 비래동행정복지센터 앞 상가거리에서 지역화폐 대덕e로움과 함께하는 대코(Daeco) 맥주페스티벌을 개최한다.

대코(Daeco) 맥주페스티벌은 대덕e로움 유통활성화와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기획된 행사로, 지난 7월에는 흥행대박을 기록하며 12만 명의 관람객이 찾은 바 있다. 이번에는 각 상인회의 적극적인 행사개최 희망의사를 수용, 추석명절 경제 살리기 일환으로 연휴를 전후해 2곳에서 개최한다.

또한, 전통시장과 특화거리 활성화를 위해 1800만원의 마케팅비를 추석맞이 고객사은잔치 이벤트 개최와 홍보를 위해 3곳에 지원했다. 그리고 구청 직원들이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앞장선다. 직원 120여 명은 오늘(9일) 중리 · 법동 전통시장을 직접 찾아가 추석맞이 장보기 행사를 진행한다. 이번 장보기 행사는 지역화폐 대덕e로움만 사용해 추석 상품을 구매하게 되며, 직원들은 전통시장에서 대덕e로움 사용 홍보캠페인도 전개한다. 장보기 행사가 어려운 직원 및 민원인들을 위해 구는 11일까지 구청사 1층 현관에 추석맞이 상품 이동판매 장도 개설해 운영한다.

박정현 구청장은 "경기 불황으로 전통시장이나 골목상권이 추석 특수를 누리지 못하는 상황이다. 상권활성화를 위해 마련한 다양한 이벤트가 지역 상인들의 매출증대로 이어졌으면 좋겠다."면서, "우리 구민은 물론 대전 시민들이 대코(Daeco) 맥주페스티벌을 비롯해 전통시장 등에 추석을 전후해 많이 찾아주시길 바란다. 그리고 이번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수재민을 돕기 위해, 이벤트 개최 수익금 일부를 모아 기부하는 방안도 지역상인들과 협의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진안전 캠페인 전개 주민 안전관심도 'UP'

동구, 판암역 2번 출구서 100여 명의 주민과 함께

대전 동구(구청장 황인호)는 '2019년 지진안전주간을 맞아 6일 판암역 2번 출구에서 지역자율방재단, 안전모니터요원, 일반주민 등 총 1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지진안전 캠페인을 전개했다.

지진안전주간은 지난 2016년 9월 경주 지진을 계기로 지정돼 전국적으로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이날 캠페인은 지진관련퀴즈로 미니소화기, 보냉통, 양산과 같은 재난 대비 경품을 지급해 참여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구는 주민들이 지진재난에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국민행동요령과 지진옥외대피소 안내를 위한 리플릿을 자체 제작해 캠페인 자료로 집중 홍보하고, 캠페인 이후에도 각 동 주민센터 등에 상시 비치해 지진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안전의식을 고취시킬 수 있도록 했다.

이날 캠페인에 참가해 황인호 동구청장은 "제13호 태풍 '링링'이 한반도로 북상하는 가운데 그 어느 때보다도 안전이 중요시되고 있다"면서 "예고와 함께 오는 태풍과 달리 지진은 예고 없이 발생하므로 평소 지진에 대비한 행동요령을 숙지해달라"고 당부했다.

김태선 기자

갑천1블록 아파트 민간사업자 공모 개시

대전도시공사, 64,660㎡ 부지 · 1,118세대 · 총사업비 4,050억원

대전 갑천지구 1BL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공공분양) 민간사업자 공모가 시작됐다. 대전도시공사는 6일 공사 홈페이지에 민간사업자 공모와 관련한 공고문을 게시하고 공모절차에 돌입했다.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시행지침(국토교통부훈령 제612호)에 따라 추진하는 갑천지구 내 1BL 아파트는 64,660㎡의 부지위에 1,118세대(84㎡ 870세대, 60㎡ 248세대)의 국민주택규모 이하 아파트를 건설하고 공공분양하게 된다.

도시공사와 민간사업자가 공동으로 진행하는 첫 번째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4,050억원이다.

대전도시공사는 이번 공모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업체 의무 참여비율을 최소 49%이상으로 정했다. 또 컨소시엄 구성에 7개사까지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중소업체의 참여폭을 넓혔다.

9월 17일까지 참가의향서를 제출받고 11월 8일까지 사업신청을 접수 받으며 참가의향서를 제출한 사업자에 한해 사업신청을 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공사 홈페이지 www.dcco.kr 참조.

김태선 기자

대전 여성상수상 후보자 공모

대전시가 제17회 대전여성상 수상자 3명을 선발한다.

대전시는 양성평등, 여성권익증진, 지역사회발전 3개 부문에서 각 1명식 3명의 대전여성상 수상자를 선발한다고 8일 밝혔다.

신청접수는 이달 9일부터 20일까지 대전시 성인지정책담당관으로 하면 된다.

추천대상자는 양성평등 실현,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사회 각 분야에서 헌신적으로 봉사하는 여성으로 공고일(2019.8.27.) 현재 3년 이상 대전시 거주하고 20세 이상이어야 한다.

선발기준은 양성평등분야의 경우 사회와 가정에서 양성평등문화 실현을 위해 노력하거나 양성평등문화 확산 또는 정착에 크게 기여한 여성이어야 한다.

여성권익증진분야는 여성폭력 근절과 그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고 여성의 안전과 인권보호에 기여한 여성을 선발한다.

지역사회발전분야는 이웃과 지역사회를 위해 다방면으로 봉사해 다른 사람의 귀감이 된 여성, 또는 각 분야에서 뛰어난 공적으로 지역사회 및 공동체 발전에 기여한 여성을 선발한다.

수상자 후보 추천은 구청장, 관련기관, 단체, 대학, 교육감 등 시장이 인정하는 단체의 대표 또는, 시민 20인 이상 연서로 가능하며, 제출서류는 추천서, 이력서 등 일정한 공적증빙자료가 있어야 한다.

수상자 선정은 10월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공정하게 선발할 예정이며 시상은 11월에 열릴 예정이다.

대전시 김주이 기획조정실장은 "여성권익 신장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보이지 않은 곳에서 기여해온 숨은 일꾼을 발굴해 대전시민의 귀감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올해부터는 양성평등 시대 흐름을 반영해 훌륭한 어머니 부문을 양성평등 부문으로 변경해 수상한다.

대전여성상은 2003년 처음으로 제정돼 지난해까지 모두 40명이 이상을 수상했다.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www.daejeon.go.kr)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문의는 시 성인지정책담당관실(☎042-270-3152)로 하면 된다.

유성구, 자치분권대학 유성캠퍼스 기본과정 개강식

자치분권 필요성 인식 · 역량강화

대전 유성구(구청장 정용래)는 지난 6일 원신흥도서관에서 '자치분권대학 유성캠퍼스' 기본과정 개강식을 개최했다.

이번 자치분권대학 유성캠퍼스 기본과정은 주민 8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되고 이날 정용래 유성구청장의 특강을 시작으로 다음달 25일까지 총 7개 강의로 진행되며, 80%이상 출석한 수강생에게는 수료증이 수여된다.

또한, 기본과정은, 1강 '주민과 나누는 자치분권이야기' 2강 '왜 자치이고, 분권인가?' 3강 '도시개발과 지방정부-해외사례를 중심으로' 4강 '자치분권과 언론' 5강 '자치분권시대 지방정부의 역할' 6강 '주민참여와 마을자치' 7강 '주민자치위원회의 필요성과 활성화 방안' 등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자치분권대학은 지방자치와 분권 실현을 위해 지방정부가 주도하는 자치분권교육 통합기구로 지방자치 공통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전국 지방 정부에 자치분권대학캠퍼스를 개설하고 있으며 유성구를 포함한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27개 회원도시에 자치분권대학 캠퍼스가 개설돼 운영되고 있다.

정용래 유성구청장은 "주민 스스로 자치분권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역량을 강화하는 것은 진정한 지방자치를 이루기 위해 꼭 필요하다"며, "이번 교육 과정이 지역 주민들에게 풀뿌리 민주주의 이해와 주민자치 역량 강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봉관 기자

2019년 정부합동평가

서구 자치구 기여도 평가서 1위

대전 서구(구청장 장종태)가 '2019년 정부합동평가' 자치구 기여도 평가에서 대전광역시 5개 구 중 1위를 차지하는 영예를 안았다.

이번 정부합동평가는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라,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관계 중앙부처가 전국 17개 시 · 도를 대상으로 매년 실시하고 있다.

특히, 2019년 정부합동평가는 5대 국정 목표, 156개 지표에 대해 정량지표와 정성지표로 구분하여 평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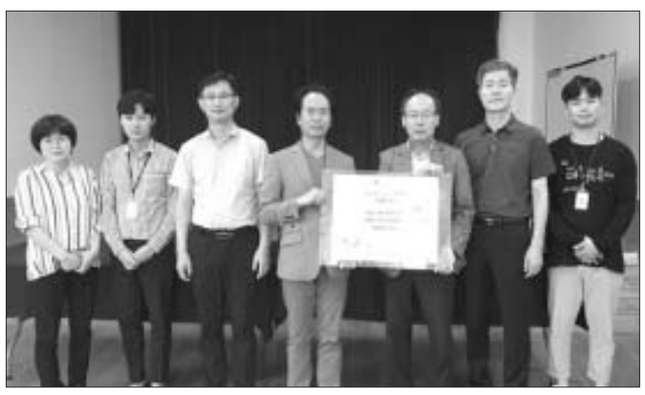
이 결과에 따라 대전광역시가 5개 구의 실적을 집계하여 자치구 기여도를 평가, 서구가 사회적 가치실현 지표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고른 성적을 거둬 5개구 중 가장 높은 점수를 획득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종태 청장은 이번 성과를 "구민의 구정에 대한 적극적 참여와, 서구 공직자의 노력이 함께 만들어낸 값진 결과"라고 평가하고, "앞으로도 구민과 함께하는 다양한 시책으로 각종 외부평가의 탁월한 성과를 통해 구민의 자긍심을 높일 수 있도록 전 직원과 함께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박봉관 기자

대전솔로몬로파크, 추석명절 맞이 복지시설 위문 법무부 대

전솔로몬로파크(소장 유병택)는 추석명절을 맞아 지난 6일 대전남자단기청소년쉼터를 방문해 후원금 및 위문품을 전달했다. 이번 방문은 쉼터에서 생활하는 청소년들이 이웃과 사회의 따뜻한 정을 느낄 수 있는 추석명절을 보내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직원들이 모금한 후원금 및 청소년들을 위한 생필품 등 다양한 위문품을 전달해 이웃사랑 나눔을 실천했다.



대전우체국, 한가위맞이 사랑의 음식나누기 활동 대전우체

국은 풍성한 한가위를 맞이해 대동종합사회복지관과 함께 지역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사랑의 음식나누기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대동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대동지역에 거주하는 독거노인을 중심으로 10가구를 추천하고, 우체국에서는 추석명절을 풍성하게 정성껏 마련한 명절음식과 선물세트등을 나눴다.

●동 정●●●

간부회의

김석환 홍성군수= 9일 오전 8시 40분 군청 회의실에서 열리는 간부회의에 참석.

삼성전기 추석 위문품 기탁

삼성전기가 농산물을 구입해 사회복지기관에 추석 위문품으로 기탁했다.

삼성전기 세종사업장은 지난 5일 오후 세종사회복지공동모금회 회의실에서 1사1촌 마을에서 구입한 400만원 상당 특산품을 기탁했다.

이날 전달한 물품은 추석을 앞두고 직거래장터를 개설하고 1사1촌마을에서 구입한 특산품으로 전국 8개 마을에서 구입한 특산품이다.

특히 삼성전기는 직원들을 위해 직거래장터를 개설해 유기농 품질 좋은 물품을 구입할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으며 마을별 매상을 높이기 위해 사회공헌 기금을 통해 마을별 물품을 구입해 세종시 사회복지 기관 6개소에 전달했다.

유영진 한울림협의회 위원장은 "1년 동안 땀과 노력으로 농산물을 재배해 주신 농부님들이 도움으로 질 좋은 특산품을 우리 직원들이 구매할 수 있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1사1촌 마을을 돕기 위해 사회공헌 기금으로 농산물을 구입해 세종시 사회복지 기관에 추석 위문품으로 기탁하게 되어 더욱 감사하다"고 말했다.

송병배기자

SK트리켐 풍성한 추석명절 응원

위문품 전달 및 봉사활동 전개

SK트리켐이 지역의 어르신들의 풍성한 추석 명절을 응원했다.

SK트리켐은 지난 6일 오후 2시 세종시 연동면 6개소 경로당에서 임직원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SK트리켐과 함께 하는 추석 명절 위문봉사' 활동을 전개했다.

이날 SK트리켐 임직원들은 노송1리, 내판3리, 명학1리, 응암1리, 예양1리, 송용1리, 내판3리, 송용1리 6개소 경로당을 방문해 건어물, 과일, 라면 등을 전달하고 환경미화 활동을 전개했다.

특히 이날 SK트리켐에서는 6개 마을 경로당에 100여만원 상당의 혈압기계를 설치해 어르신들 건강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도 했다.

또한 SK트리켐은 명학산업단지내 위치해 지역사회 주민들과 더불어 기업이 성장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봉사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지난 6월에는 실버카 40대를 지역의 어르신들을 위해 전달하기도 했다.

고오곤 세종공장장은 "기업의 사회공헌 차원에서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과 복지사각 지대 해소를 위해 앞으로도 관심 있게 지역을 지켜보겠다"며 "이렇게 추석을 맞아 고향을 찾는 기분으로 경로당으로 봉사를 임직원끼리 참여 해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송병배기자

대전투데이 Daejeon Today
1회 가격으로 최대한 많이 게재해 드리며, 저렴한 가격으로 최고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대전투데이만의 노하우'
광고문의
(042)538-3030
대전시 유성구 계룡로 129(봉명동) 우경빌딩 7층
www.daejeontoday.com

황선봉 군수 직무지지도 충청권서 압도적 1위

11개월 누적 만족도 76.6%로 나타나

황선봉 예산군수의 직무수행 만족도가 80.7%로 나타나 대전·세종·충남 광역 및 기초단체장 중 압도적인 1위를 달성했다.

시민미디어마당사회적협동조합(이사장 김영호)과 ㈜세종리서치(대표 권주한)가 지난달 28일부터 30일까지 대전과 세종, 충남 광역 및 기초단체장을 대상으로 직무수행 평가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황 군수의 만족도는 지난달보다 1.16% 상승한 80.7%로 나타났다.

황 군수의 직무수행 만족도는 10개월 누적 평균 76.6%로 높은 추세를 유지했으며, 부정 평가는 전월 대비 1.3% 하락한 12.6%로 집계됐다.

이는 황 군수가 군민과의 약속인 현장행정과 섬김행정을 잘 실현하고 있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군은 군민 주거복지의 실현을 위해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가 마음 놓고 거주할 수 있는 공동주택 보급 사업을 적극 추진 중으로,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예산과 어르신이 살기 좋은 예산 만들기 등에 앞장서고 있다.

현재 옛 군청사부지에 행복주택 건립사업, 도시재생뉴딜사업, 고령자 복지주택사업, 옛 보건소를 활용한 신활력창작소 조성사업, 옛 군청별관의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 등 모두 15개 사업에 840억원을 투자해 도시재생사업을 통한 쾌적한 도시환경을 구축하고 있다.

더불어 지난 2일에는 국토교통부가 공모하는 공사중단 건축물 선도사업에 군이 응모해 신례원지역의 공사중단 건축물인 이고센아파트가 선정됨에 따라 방치건축물의 구조, 안전 및 주변 개발여건 등을 종합 검토해 최적의 정비모델을 반영한 선도사업계획을 수립하고 본격적인 서민형 공동주택으로의 탈바꿈에 나선다.

또한 군은 명품 관광도시 조성을 위해 지난 4월 6일 개통해 139일만에 200만명을 돌파한 예당호 출렁다리를 중심으로 하는 예당호 권역과 덕산온천 권역을 2개 축으로 하는 관광 인프라 구축을 적극 추진 중이다.

특히 관광객의 지속적인 증가와 산업형 관광도시 조성을 위해 예당호 주변 자원을 연계하는 느린 호수길을 조성하고 숙박, 레저, 휴양 기능이 어우러진 복합시설을 조성 중으로, 예당호 물넘이 주변에 2만5000㎡규모의 생태 수변공원을 조성하고 예당호 관광권 개발계획의 연계로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내수면 마리나 항만계획을 추진하며 출렁다리와 연계한 사계절 음악조경분수대와 주차장 신규 설치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밖에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3개 산업단지와 8개 농공단지를 조성해 민선6기를 시작으로 지난 5년 간 157개 기업을 유치하며 3400여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성과를 거뒀고 올해는 예산제2일반산업단지 계획승인과 착공을 준비 중이다.

군은 이처럼 군민의 생활과 밀접하고 호응하는 정책 시행에 나서 높은 만족도를 평가받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황선봉 군수는 "변함없이 군정에 높은 만족도를 표해 주신 모든 군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며 "앞으로도 모든 군민이 더 행복하고 살기 좋은 예산 만들기에 앞장서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는 유선 전화번호 무작위 생성 표집틀(RDD) 100% 방식으로 충청남도에 거주하는 성인 2951명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통계분석은 각 변수별 교차분석을 실시했다.

표본오차는 95%신뢰수준에 ±1.80%p이며 응답률은 2.0%이다. 자세한 사항은 ㈜세종리서치(http://www.sejongr.kr) 또는 시민미디어마당사회적협동조합(http://www.citizenmedia.or.kr/)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김성구 기자

사과 신품종 보급 확대 품평회

충남도 농업기술원은 6일 기술원 내 과수 시험포에서 '미니사과 루비에스 보급 확대를 위한 품평회'를 개최했다.

신품종 보급 관련 시·군 관계자 및 연구원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연 이번 행사는 시식회, 설문조사, 종합토론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이날 품평회에서는 루비에스 품종에 대한 외관 및 식미평가를 진행했으며, △적정숙기 판단 △특성홍보 △향후 과제 등 다양한 주제로 토론하고 의견을 교환했다.

농촌진흥청에서 육성한 신품종 사과 루비에스는 한입에 쏙 들어가는 작은 크기로 평균 과중이 86g 정도여서 초등학교 급식용으로 알맞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루비에스는 탄저병에 강하고 10월 말까지 낙과가 거의 없어 체험농장이나 관광농원에도 적합한 품종이다.

또 일본에서 도입한 기존 미니사과 '알프스오토메'보다 크고, 맛과 식미가 뛰어나다.

도 농업기술원 강경진 연구사는 "국내 사과 재배 면적의 63% 이상을 일본 품종 '후지'가 차지하고 있다"며 "앞으로 국내 육성 신품종을 보급하고, 각 지역마다 특색 있는 주산지를 형성해 농가소득을 향상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 농업기술원은 도내 농가를 위해 국내 육성 사과 신품종 전시포를 조성하고, 재배 방법 및 품종 선택에 대한 보다 폭넓은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세종시 추계석전대제 봉행

세종시(시장 이춘희)가 공자를 비롯한 유교의 주요 인물을 기리는 추계석전대제(秋季釋奠大祭)를 7일 전의향교(전교 류재두)에서 관내유림, 지역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봉행했다.

석전대제는 공자를 모신 사당인 문묘에서 지내는 제사로 매년 봄·가을 첫 정일에 공자를 비롯한 5성 4현과 유학자 최치원을 비롯한 18현에게 제사를 지내는 의식이다.

이날 행사에서는 맨 처음 술을 올리는 제관인 초헌관으로 전교 류재두, 아헌관에 전의향교 김상현, 종헌관에 송재준 세종경찰서장이 선정돼 차례대로 제례를 올렸다.

석전대제가 열린 전의향교는 시 기념물 제7호로, 조선 태종 16년(1416년)에 창건되어 1866년에 명륜당을 중수하고 1972년에 대성전을 증축했으며 대성전은 15칸, 명륜당은 10칸, 전사청은 7칸으로 돼 있다.

이은일 전의면장은 "이번 추계석전대제로 옛 선현들의 가치를 더욱 확산해 가정과 마을에 사랑과 예의, 인격의 완성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태선 기자

정부세종청사 옥상정원 새 관광명소 전망

행정안전부, 관람구간과 시간·대상 확대운영안 발표

'세계최대 규모의 옥상정원'으로 유명한 정부세종청사 옥상정원이 관람구간과 시간, 대상을 확대해 새로운 관광명소가 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9일 6동~2동까지로 제한돼 있던 옥상정원 관람 구간을 6동에서 1동까지, 관람시간 역시 2회(10시, 14시)에서 5회(10시, 11시, 14시, 15시, 16시), 출입인원은 100명(2회)에서 500명(5회)으로 늘리는 내용의 확대 운영안을 발표하고 12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개방시간은 평일·주말 관계없이 10시부터 17시(16시까지 입장)다.

특히, 인터넷 사전예약을 통해 제한적으로 관람 할 수 있었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현장접수(신분증 소지)도 허용해 관람객의 편의를 확대했다.

사전예약을 통한 단체 관람(20인이상)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출입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행정안전부는 또, 지난 5월 시범개방 시 제기된 관람객의 의견 등을 반영해 편의·휴게시설과 안전시설을 확충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5월 4일부터 6일까지 3일간, 18일과 19일 양일 간 두 번에 나눠 실시한 시범개방 기간 동안에는 1만577명(1차 7,113명. 2차 3,464명)이 관람했다.

정부세종청사 옥상정원은 15개의 청사건물을 하나로 이어주는 세계 최대 규모(79,194㎡, '165.25. 기네스북 등재)의 옥상정원(3.6㎞)이다. 2014년 첫 개방이후 올해 8월말까지 총 7만3,751명이 관람했다.

이재관 정부청사관리본부장은 "정부청사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보안과 안전을 위해 노력했다"라며, "이번 개방은 사실상 상시개방으로 옥상정원이 세종시의 핵심 관광명소로 거듭나는 것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선 기자

양승조 지사 태풍 피해 현장 점검

과수농가3곳 찾아위로… "철저·신속 조사후 복구·지원 등 모색"

제13호 태풍 '링링'으로 충남도내 곳곳에서 피해가 속출한 가운데, 양승조 지사가 8일 피해 상황 점검과 지원 방안 모색 등을 위해 과수농가를 찾았다.

양 지사는 이날 오전 예산군 오가면 사과 농가와 오후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배 농가 2곳을 잇따라 방문했다.

예산 사과 농가의 경우 10% 정도 낙과 피해가 발생하고, 배 농가들은 30% 이상 낙과 피해가 발생했다.

각 농가에서 양 지사는 예산군과 천안시 과수 낙과 피해 현황을 각 시·군 관계자들로부터 듣고, 피해 농업인들에게 위로의 뜻을 전했다.

양 지사는 "태풍으로 도내 곳곳에서 낙과와 도복 등의 피해가 발생했다"며 "우선 철저하고 신속하게 조사를 진행 한 뒤, 각 시·군과 함께 피해 복구 및 지원 방안을 모색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오전 11시 현재 도내 농작물 피해는 ▲벼 등 도복 1138.3ha ▲낙과 1564.2ha ▲시설물 파손 106.3ha ▲기타 9.1ha 등으로 집계됐다.

김정환 기자

'우리동네 빨래방' 사업 본격 추진

도담동, 독거노인·장애인 400가구 방문 세탁 서비스

세종시 도담동(동장 홍연숙)이 오는 9일부터 저소득 독거노인, 장애인들의 무거운 대형이불 세탁 지원을 위한 '우리동네 빨래방'을 운영한다.

이 사업은 도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회장 이채원) 특화사업으로, 고령과 장애로 무거운 대형이불 세탁이 어려워 그대로 방치해 위생 및건강문제로 이어지는 사례를 막고 생활환경을 개선하고자 추진된다.

도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이번 사업 추진을 위해 지난 4일 세종시 관내 세탁업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오는 9일부터는 도담동 영구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저소득층 독거노인, 장애인 400가구에 전문 세탁업체가 직접 방문해 이불을 수거, 세탁, 배달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한다.

홍연숙 공공위원장은 "취약계층의 방치된 이불빨래를 세탁해줌으로써 대상자들의 건강지수를 높이고, 쾌적한 주건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선 기자

김석환 군수·김헌수 의장 '필승코리아' 펀드 가입

애국심 '앞장'…전국적으로 가입 열기 확산

김석환 홍성군수와 김헌수 홍성군의회 의장이 지난 5일 NH-아문디 필승코리아 국내 주식형 펀드 상품에 나란히 가입했다.

'필승코리아' 펀드는 일본의 수출규제에 맞서 경쟁력 강화가 시급한 국내 소재·부품·장비 등 제조분야 기업에 투자하는 주식형 펀드로, 지난달 26일 문재인 대통령이 상품에 가입하면서 전국적으로 가입 열기가 확산되고 있다.

이미 홍성군에서는 지난 8월 200여 명의 공무원들이 모여 일본 경제보복 조치를 규탄하는 퍼포먼스를 벌였으며 군의회에서는 일본 수출규제 규탄 성명문을 발표하고, 지역 마트와 세차장 등에서도 일본 불매운동에 동참해 퍼포먼스를 벌이는 등 관·민이 함께 일본의 경제보복에 맞서며 충절의 도시로서의 면모를 보이고 있다.

또한 홍성군은 만해 한용운 선사, 백야 김좌진 장군을 비롯해 수많은 홍주의병과 독립운동가를 배출한 충절의 고장이자 대한민국의병도시협의회 회장도시를 맡고 있어 이번 김 군수와 김 의장의 펀드 가입으로 속칭 '애국펀드'로 불리는 필승코리아 펀드에 대한 군민들의 관심도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김석환 홍성군수와 김헌수 홍성군의회 의장은 상품 가입 후 "일본의 수출규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제조업을 지원하는 의미 있는 상품에 가입하게 돼 매우 기쁘다."며 "군민 여러분께서도 우리나라의 내실 있는 기업들이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정환 기자

출산 여성 운동비 지원 사업 큰 호응에 대상자 추가 모집

예산군, 월 최대 10만원씩 3개월 간 30만원 지원

예산군은 9일부터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출산 여성의 건강 회복을 돕기 위한 운동비 지원 사업 대상자를 추가 모집한다.

출산 여성에 대한 운동비 지원은 도내에서 예산군이 최초로 시행하는 것으로, 상반기 30명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한 결과 만족도가 매우 높은데 따라 대상인원을 확대 시행해 2018년 이후 출산여성 중 출산 6개월 전부터 군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면 누구든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최초 사업개시일인 올해 4월 1일 이후 체육시설을 이용한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되며, 자격요건을 확인해 적합할 경우 월 최대 10만원씩 3개월 간 3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상반기에는 운동기간 경과 후 사후지원을 해 왔으나, 운동비를 납부한 내역만 확인되면 시작 시점에서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했다.

군 관계자는 "출산여성의 산후우울증 예방 및 보육 스트레스 해소로 행복한 양육 환경이 보장되면 자연스레 출산이 장려되는 분위기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출산 및 양육으로 지친 여성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총무과 인구정책팀(041-339-7237) 또는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김성구 기자

우/리/동/네

충남장애인부모회 천안지회

1박 2일 칠곡 나눔의 숲캠프 진행

충남장애인부모회 천안지회(지회장 양은희)는 지난 2일부터 3일까지 국립칠곡숲체원으로 발달장애인, 장애인 가족과 1박 2일 캠프를 다녀왔다고 6일 밝혔다.

한국타이어 나눔재단과 한국산림복지진흥원 국립칠곡숲체원이 지원한 이번 행사는 발달장애를 가진 이용자들이 매일 반복되는 일상에서 벗어나 숲에서 자연을 체험하며 새로운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도왔다.

가을캠프에는 성인과 청소년 발달장애인, 인솔자, 지도교사 등 33명이 참여했으며, 이들은 국립칠곡숲체원에서 카브라 블록놀이, 짚라인 타기, 숲속길 걷기 등 다양한 체험활동으로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양은희 지회장은 "지역사회와 기업이 관심을 갖고 지원을 하는 것이 우리 사회를 따뜻하고 건강하게 만들며, 이번 캠프가 이러한 관심과 지원들이 더욱 커지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전했다.

충남장애인부모회 천안지회는 앞으로도 이용자뿐만 아니라 장애인가족을 대상으로 정서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할 계획이다. 천안=이정복기자

천안시 풍세면주민자치회

1기 주민자치회 위원 위촉식 개최

충남 천안시 풍세면(면장 서재민)은 6일 오후 행정복지센터 회의실에서 100여명의 지역주민이 참석한 가운데 풀뿌리 자치 실현을 위한 제1기 주민자치회 위촉식 및 설명회를 개최했다.

풍세면은 지난 4월 백석동, 성환읍과 함께 충남형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에 공모, 선정된바 있으며, 그동안 위원 공개모집, 선정심사 등의 준비과정을 거쳐 총 36명의 제1기 주민자치회 위원을 위촉했다.

이날 행사는 광풍중학교 학생들의 오카리나 연주를 시작으로 주민자치회 36명의 위원을 대상 위촉장을 수여하고 앞으로 주민자치회의 활발한 활동을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다.

풍세면 주민자치회 위원들은 앞으로 2년 동안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마을사업 발굴 및 계획수립 등 본격적인 풀뿌리 자치활동을 펼치는 한편, 주민화합과 지역발전을 이끌 수 있는 마을공동체발전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구본영 시장은 "오늘 새롭게 출범하는 풍세면 주민자치회가 앞으로 적극적인 활동과 민관협치를 통해 풀뿌리 주민자치가 활짝 꽃을 피울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목천읍 행복키움지원단, 제7차 간담회

충남 천안시 목천읍(읍장 정관희) 행복키움지원단(단장 백순필)은 6일 추석명절을 맞아 목천읍 행정복지센터 2층에서 2019년 제7차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추석 명절 및 목천 이웃애(愛) 김장나눔 행사 등 구체적인 내용을 논의했고, 간담회 이후 금호건설의 후원으로 마련한 추석 송편과 계절과일을 단원들이 저소득가정 100세대에 방문전달하고 추석명절 담소를 나누며 따뜻한 시간을 가졌다. 이날 단원들은 추석명절에 찾아오는 사람 없이 쓸쓸하게 지내실 어르신들과 사각지대가정이 조금이라도 행복하고 넉넉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마음을 담아 후원품을 전달했다.

식량산업 5개년 종합발전계획 수립 '속도'

천안시, 식량산업 분야의 체계적 분석과 지원 · 투자 위해 제2차 실무협의회

충남 천안시가 식량산업 분야의 체계적 분석과 지원, 투자를 위한 식량산업 5개년 종합발전계획 수립을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

시는 6일 오후 시청 중회의실에서 식량산업 5개년 종합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실무협의회 회원인 농업 관련 기관 · 단체 실무자 17명이 참석한 가운데 '천안시 식량산업 5개년 종합발전계획' 초안 완성에 따른 최종 업무 협의를 위한 제2차 실무협의회를 개최했다.

지난 5월 30일 제 1차 실무협의회에서는 식량산업 5개년 종합발전계획 수립이 본격 착수됐으며, 이번 제2차 실무협의회에서는 그동안 수시 협의한 내용과 의견수렴으로 식량산업 5개년 종합발전계획 초안에 대해 수정 · 보완했다.

식량산업 5개년 종합발전계획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식량산업 분야의 발전방안과 투자, 연차별 사업계획 등 종합적인 지원책과 방안을 제시한다.

생산과 가공, 유통시설 설치 · 운영 등에 대한 중장기 계획을 마련하며, 기존 식량산업에 대한 투자 소요와 적정 자급률, 유통시설 가동률 등을 검토하고 분석한 내용이 담겼다.

시는 식량산업 분야의 발전 방향과 다각화 방안, 중장기 비전 · 전략 제시를 위한 식량산업 5개년 종합발전계획으로 농림축산식품부의 공모사업에 참여할 계획이다.

홍승주 농업정책과장은 "천안시 식량산업 5개년 종합발전계획을 올 10월 완료해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할 예정으로, 이후 농림축산식품부가 승인하면 관련 국비사업 신청자격을 부여받아 우선사업 대상자로 선정될 것"이라며 "이번 종합발전계획으로 미래 천안 식량산업 발전에 큰 기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천안=이정복기자

천안시,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21억여원 부과

4만8098대 오는 30일까지 부담금 납부해야…대기환경 개선 등에 사용

천안시는 올해 하반기 경유차량 4만8098대 소유자에게 21억9616만원의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했다고 6일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 원인 대상자에게 환경개선에 필요한 복구비용을 부담토록 하는 제도로,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따라 1992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납부된 금액은 대기 · 수질환경 개선, 저공해 기술 개발연구비 지원, 자연환경 보전사업 등에 사용된다.

이번 환경개선부담금은 올해 상반기(1~6월) 동안 경유차를 보유한 자에게 차량 배기량을 기준으로 차령별, 지역별로 차등 부과된다. 차량 이전, 말소 등 변경이 있으면 일할 계산되며 저공해자동차나 유로 5 · 6등급 경유차는 면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납제 방식으로, 연 2회(3월, 9월) 부과된다.

납부 기한은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이며, 가까운 금융기관이나 가상계좌,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등으로 납부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기간 내 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부과금액에 3% 가산금이 추가되고, 계속 미납되면 재산압류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니 기간 내에 납부해 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관련 문의는 천안시청 환경정책과(☎041-521-5404,5418)로 하면 된다.

천안=이정복기자

천안중학교, 추계 한국중등(U-15) 축구연맹전 준우승 차지

매년 진행… 축구 꿈나무들의 기량 펼치도록 하는 꽤 규모가 큰 경기

천안중학교(오창호 교장)는 제55회 추계 한국중등(U-15) 축구연맹전 및 저학년 축구대회에서 준우승을 차지하였다.

한국중등(U-15) 축구연맹전 및 저학년 축구대회는 매년 진행되어 축구 꿈나무들의 기량을 펼치도록 하는 꽤 규모가 큰 경기이다.

금년 경기는 지난 8월 12일부터 8월 27일까지 울진과 영덕 일대에서 열띤 응원과 함께 실시되었다. 전국에서 약 180개의 팀이 참가하는 대회에서 천안중학교는 28개의 팀과 경기에 참여하였다.

8월 12일부터 예선을 통과하여 결승전까지 올라갔으며 준결승전에서는 우승후보인 후평중학교를 상대로 2대0의 승리를 하며 결승에 진출하였다.

결승전에서 만난 최강 서울 동원중학교를 만나 열심히 선전하였으나, 2대0으로 분패하여 준우승이라는 성적을 거두었다.

천안중학교 오창호 교장은 준우승과 관련하여 "천안중학교의 자랑과 긍지로서 무더운 날씨 속에 수많은 훈련을 통해 이루어진 학생들의 땀과 노력으로 이와 같은 훌륭한 결과를 보여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자부심을 가지며 실력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인성을 겸비하는 세계적 또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선수로 성장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내년 대회에서는 반드시 우승을 하겠다는 선수들의 다짐과 함께 학생들은 오늘도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천안시, 자기혈관 숫자 알기 '레드서클 캠페인'

서북구 · 동남구보건소,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주간 맞이

충남 천안시 서북구 · 동남구보건소는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주간(9월 1일~7일)을 맞아 대대적인 '자기혈관 숫자알기, 레드서클' 캠페인을 진행했다.

'자기혈관 숫자알기, 레드서클' 캠페인은 매년 질병관리본부가 지정한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주간(매년 9월 첫째 주)에 맞춰 심뇌혈관질환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과 경각심을 높이고, 생활실천을 위한 행동변화 유도를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동남구보건소는 지난 5일 아라리오 광장에서 레드서클 캠페인을 진행하고,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를 위한 방법으로 균형 잡힌 영양, 운동, 절주, 금연, 정기적 혈압 · 혈당 · 콜레스테롤 측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렸다. 또 무료로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을 측정해 볼 수 있도록 레드서클존(zone)을 운영하고, 운동, 영양, 금연상담을 펼쳤다.

캠페인 외에도 보건소 내 통합상담실을 운영하는 것과 동시에 천안중앙시장, 천안삼거리휴게소, 천안휴게소에서 레드서클존 건강부스를 운영하며 이동건강상담을 펼치고 있다.

서북구보건소는 지난 4일 천안시청 1층 로비에서 레드서클존(zone) 운영했으며, 5일에는 제3산업단지 사업장에서 사내 직원을 대상으로 캠페인을 진행해 3040세대에게 혈압 · 혈당 · 콜레스테롤 관리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기 위해 온 힘을 다했다.

이와 함께 지난 8월 26일부터 9월 8일까지 '자기혈관 숫자알기' 내용의 홍보 현수막을 서북구 10여개의 행정게시대와 종근당 사업장과 패커드코리아 사업장에 게시했으며, 쌍용동 일봉사거리 대형 전광판에 홍보 동영상을 송출, 충남 농협 현금지급기(ATM)에는 홍보문구가 송출되도록 조치했다.

심뇌혈관질환과 당뇨병, 고혈압성 질환으로 인한 사망은 전체 사망의 24%를 차지하고 2017년 기준 사망원인 10위 안에 모두 포함돼 있다. 고혈압, 당뇨병 등 선행질환 유병률과 진료비는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소 관계자는 "캠페인을 통해 자기혈관숫자인 혈압(120/80mmHg미만), 혈당(100mg/dL미만), 콜레스테롤(200mg/dL미만)의 정상수치를 인지하길 바란다"며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를 위한 9대 생활수칙 실천을 유도해 앞으로 시민 건강향상을 위해 노력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천안=이정복기자

천안시, 추석맞이 로컬푸드 직거래 행사 추진

하늘그린 천안배, 거봉포도, 천안흥타령쌀 등 지역 농특산물 우수성 홍보

천안시가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을 맞아 오는 10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천안시청 민원실 앞에서 '추석맞이 농특산물 직거래 행사'를 실시한다.

천안지역 농특산물의 우수성을 널리 홍보하고 안정적인 판로를 구축하기 위해 열리는 이번 행사는 천안시 농특산물 공동브랜드인 '하늘그린' 천안배와 거봉포도를 비롯해 잡곡, 오미자, 표고버섯, 전통장류, 천안흥타령쌀, 제수용으로 사용 가능한 연미주 등을 판매한다.

관내 농협, 농업인 등 17개 생산자 단체에서 행사에 참가해 지역에서 직접 생산한 농특산물 50여 품목을 시중보다 최대 20%까지 저렴하게 판매할 계획이다.

시는 대도시의 소비자 입맛을 사로잡기 위해 지난 8월 30일 세종에서 열린 '추석맞이 싱싱세종 팔도 농특산물 판매전'을 시작으로 다른 지역에서 열리는 행사에 참가해 '하늘그린'과 '천안흥타령쌀'을 집중적으로 홍보하며 브랜드 인지도를 높일 예정이다.

이달 6일부터 9일까지는 서울광장에서 열리는 '추석 농수특산물 서울장터'에 참가하며, 오는 20일부터 22일까지는 대전 노은농산물도매시장에서 열리는 '아줌마대축제'에, 28일부터 29일까지는 세종 싱싱장터 도담동 일원에서 개최되는 '제8회 충청 명품 · 특산품 대축전'에 참가해 천안 농특산물을 알리고 판매한다.

홍승주 농업정책과장은 "앞으로도 다양한 직거래 판촉 행사를 지속해서 개최해 지역 농산물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농가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동 정

노사발전 간담회

구본영 천안시장= 9일 오전 11시 시청 상황실에서 열리는 2019 노사발전 간담회에 참석.

천안홍대용과학관, 한가위 보름달 무료관측행사 운영

천안홍대용과학관(관장 권오현)은 2019년 한가위를 맞아 14일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가위보름달 무료관측행사'를 진행한다.

이번 한가위보름달 공개관측행사는 저녁 7시부터 10시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별도의 사전예약이 필요 없으므로 행사 참여를 희망하면 시간에 맞춰 홍대용과학관을 방문하면 된다.

행사는 천체망원경을 통한 보름달 관측 및 스마트폰 달 사진촬영, 달의 기원과 운행에 관한 내용을 담은 특별 강연, 달과 관련된 내용의 천체투영관 영상 관람 등으로 꾸며진다.

권오현 관장은 "한가위 보름달은 우리 민족에게 풍요와 성취를 의미하는 상징적인 천체였다"며 "올해 추석에는 가족 친구, 연인들과 홍대용과학관에서 보름달을 보며 소원을 빌어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홍대용과학관은 이번 추석연휴기간 중 12일~13일 이틀간 휴관하며, 행사 당일인 14일은 정상 개관한다.

행사 당일 저녁 비가 오거나 날씨가 매우 흐리면 계획된 관측프로그램 진행이 불가능할 수 있으나 실내프로그램은 기상상태에 관계없이 계획대로 진행될 예정이며, 관측행사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홍대용과학관(☎ 041-521-0113)으로 문의하면 된다.

천안시,추석맞이 일제 대청소 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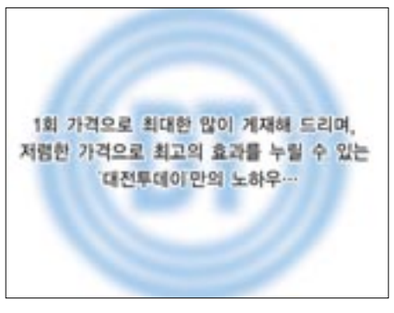
천안시는 오는 10일 훈훈한 추석명절 분위기 조성과 더불어 고향을 찾는 귀성객에게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 이미지를 제공하기 위해 일제 대청소를 한다고 밝혔다.

시는 주요 도로변과 도심하천, 공원 등 여름철에 불법으로 투기된 생활폐기물을 말끔히 수거하고, 현수막 등 불법광고물을 정비하는 등 일제 대청소를 대대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이날 대청소는 구본영 시장을 비롯한 각급 기관 · 단체, 기업체, 시민, 공무원 등 3,500여명이 참여해 30개 읍면동별로 지정된 청소 구간에서 생활폐기물을 수거하는 등 환경정비 활동을 펼친다.

앞서 시는 추석 연휴 기간에도 생활폐기물 안정적 수거처리 및 민원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추석연휴 청소대책 추진계획을 수립했다.

관련 부서는 물론 수집운반 대행업체 등으로 구성된 상황반과 기동청소반(10개반, 419명/일)을 편성 · 운영해 시민 불편이 없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또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등을 대상으로 추석명절 제품 과대포장 일제 점검에 나서 음식물 폐기물 감량화 유도는 물론 신속한 폐기물 처리를 위해 수거체계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비상 수거함도 비치할 계획이다.



공주경찰서, 추석 명절 맞이 전통시장 방문 공주경찰서(서장 전창훈)는 6일 추석 명절을 앞두고 평온한 명절 분위기 조성과 지역 재래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공주시 산성동에 위치한 전통시장을 방문했다. 전 서장은 민생안정 특별치안활동의 일환으로 전통시장 주변 교통관리상황을 점검하고 날치기 등 생활범죄를 대비한 범죄예방 홍보 및 소상공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주민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논산소방서, 논산시 기관장 심폐소생술 체험 행사 논산소방서(서장 이동우)는 지난 5일 구재서 육군훈련소장 등 관내 주요 기관·단체장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심정지 환자를 대비한 심폐소생술 체험 행사를 가졌다.

박삼득 국가보훈처장, 대전보훈청 현장방문]박삼득 국가보훈처장은 지난 6일 대전지방보훈청 대강당에서 적극행정 현장방문을 실시 후 이헌영(88세, 유성구) 참전유공자 댁을 찾아 위문했다. 박삼득 장관(왼쪽)이 각 부서를 찾아 직원들에게 꽃을 나눠주며 격려하고 있다.

최교진 세종시교육감, 추석맞이 사회복지시설·군부대 방문 지난 4일과 6일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을 맞아 최교진 교육감과 세종시교육청 직원들이 사회복지시설과 군부대를 방문해 명절이 더 외로운 이웃들과 국토방위에 여념이 없는 국군장병들을 위로하고 격려했다고 밝혔다.

공주준법지원센터, 추석 맞아 어려운 이웃에 나눔 실천 법무부 공주준법지원센터(소장 이광열)는 추석을 맞아 관내 어려운 이웃을 찾아 나눔을 실천했다 공주준법지원센터는 추석을 앞둔 지난 6일, 지적 장애우들이 함께 생활하고 있는 장애인 공동생활가정에 방문해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십시일반 모은 위문금(20여만원)을 전달했다.

염치읍 금곡정미소, 저소득 독거노인에 백미 후원 아산시 염치읍 행복키움추진단(단장 임동희)은 지난 5일, 풍요로운 추석명절을 앞두고 금곡정미소(대표 김동춘) 백미 25포를 후원받아 관내 저소득 및 독거어르신들께 전달했다.

경찰, 데이트폭력 하루 평균 30건

두달간 집중신고기간 4185건 접수 2052명 입건… 가해자는 20대, 무직 가장 많아

지난 7월부터 8월까지 2개월간 하루 평균 30건이 넘는 데이트폭력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해자 통계를 유형별로 분류하면 20대 무직자가 상대방을 폭행해 입건된 경우가 가장 많았다.

경찰청은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2개월간 '데이트폭력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해, 총 4,185건의 신고를 접수 2,052명(구속 82명)을 형사 입건했다고 밝혔다.

범죄 유형별로는 폭행·상해(64.1%)가 대다수를 차지했고, 체포·감금·협박(9.6%), 주거침입(5.5%) 순을 보였다.

가해자의 경우 나이별로는 20대가 35.7%로 가장 많았고 30대·40대 순으로 점차 낮아졌으며, 직업별로는 무직자 25.7%, 회사원 146%, 자영업자 9.2% 순으로 확인되었다.

집중신고기간 운영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피해자 보호 및 홍보 활동을 펼쳤는데 데이트폭력 TF팀을 중심으로 피해자가 안심하고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맞춤형 신변보호' 활동을 강화하여, 피해자와 경찰관 연락체계 구축, 스마트 워치 제공 등 총 1,926건의 피해자 보호 활동을 펼쳤다.

또한, 집중신고기간 운영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대형마트·백화점 주변에 플래카드 게시 ▲온라인 카페에 안내문 게시 ▲웹툰 제작·홍보 등 온·오프라인 상 다각적 홍보를 펼쳤다.

시민들은 "생활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집중신고기간 운영 홍보물'을 통해 데이트폭력에 대한 경각심이 제고되어 범죄가 줄어들 것으로 생각되며, 피해자에게 맞춤형 신변보호 활동 및 지원을 해줘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반응을 보였다.

경찰청 관계자는 "데이트폭력이 '가해자와 피해자가 연인'이라는 특수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범죄인 만큼, 피해자와 주변인이 적극적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홍보활동을 지속할 것이며, 피해자를 대상으로 사후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등 국민이 경찰을 믿고 적극 신고·상담할 수 있도록 피해자 보호활동을 더욱 강화하고, 심리상담·치료비 등 피해자 지원을 위해 여성가족부 및 유관단체와 긴밀히 협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스토킹 처벌법'도 조속히 입법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할 계획이다.

이정복기자

부산광역시, 전국 6대 광역시 최초 中企협동조합 활성화 '지방조례' 제정

중소기업중앙회 부산울산지역본부가 지난 6일 부산광역시의회제280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부산광역시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조례'가 통과됐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지방조례 제정은 6대 광역시 중 부산광역시가 최초이며, 전국에서는 충청북도, 경상북도 다음으로 세 번째이다.

송병배기자

광고문의
(042)538-3030

대전도시철도 '추석연휴 수송대책 마련' 고객맞이

24시간 종합상황실 운용, 시설물 특별점검, 연휴 마지막날 정상운행

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김민기)는 오는 12일부터 15일까지 이어지는 추석 연휴에 대비한 수송대책을 마련하고 고객맞이에 나섰다.

연휴 마지막날 대전도시철도는 연장 운행은 하지 않는다. 서울은 명절 연휴 마지막 날 귀경객이 많고 귀가편의를 위해 연장운행을 하지만 대전은 평일보다 이용객이 적기 때문이다.

대신 공사는 연휴 기간중 이례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비상대기열차를 운용한다. 서울을 제외한 다른 지방에서도 연장운행은 하지 않고 있다. 공사는 현충원 성묘객의 이용편의를 위해 현충원으로 가는 교통편을 열차·역사 안내방송, 승강장 행선지 게시기, 홈페이지를 통해 집중 안내한다.

도시철도를 이용하여 현충원을 찾는 성묘객은 102번, 107번 버스를 현충원역 3번 출구에서 이용하면 되고 현충원 2번 출구에서 현충원 모시미 셔틀버스를 승차할 수 있다.

현충원 모시미 셔틀버스는 아침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매시 05분, 35분에 출발하며 몸이 불편하신 분은 엘리베이터 1호기를 이용하면 된다. 또한 공사는 연휴 중 발생할 수 있는 위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역세권 주변 병원, 약국 등을 알 수 있는 '역세권 안심리스트(병원, 약국, 식당)'를 안내한다.

'역세권 안심리스트'는 도시철도 22개 역사 게시판과 홈페이지에 게시되며 각 역에 문의하면 필요한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다.

추석연휴 안전수송을 위해 공사는 연휴 기간 열차통제와 비상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24시간 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지난 달 30일부터 이달 8일까지 토목, 전기, 전동차 등 분야별 시설물 특별점검을 진행했다.

연휴 중 도시철도에 대한 이용문의는 공사 종합상황실(☎042-539-3210)로 연락하면 된다.

김태선기자

태풍 '링링' 신속한 대응 빛났다

공주소방서, 긴급구조통제단 전면 가동과 전 직원 비상소집

공주소방서(서장 박찬형)는 제13호 태풍 '링링' 북상에 따른 자연재난 대응을 위해 지난 7일 새벽 4시부터 긴급구조통제단 전면 가동과 전 직원을 비상소집해 구조공작차 등 차량 76대를 투입해 지역 곳곳에서 위험요인을 제거했다.

강풍을 몰고 온 태풍 '링링'이 공주 지역을 강타하면서 하루 동안 공주생명과학고 앞 교차로 대형조형물이 부러지는 등 총 68건의 각종 안전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공주소방서 관내 119구조대원들이 신속히 출동해 간판 고정 및 제거 19건, 건축물 안전조치 22건, 나무해체 작업 27건의 각종 사고에 대응해 안전조치 활동에 최선을 다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신관동이 1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우성면 10건, 유구읍 9건, 옥룡동과 의당면이 4건으로 그 뒤를 이었으며 이 외에도 계룡면 등 20여개 읍·면에서도 1건 이상의 피해가 나타났다.

공주=정상범기자

대전동부교육지원청, 매월 급식 없는 날 운영

대전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유덕희)은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6일을 시작으로 매월 하루씩 급식 없는 날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는 경기침체와 공동화된 환경 등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주변 지역 상인들에게 도움을 주고, 급식 없는 날을 이용해 직원 상호 간 소통하는 시간을 통해 밝은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올해는 동부교육지원청을 이용하는 꿈나래교육원 학생들의 급식 운영에 차질이 없게 학사일정을 고려하여 급식 없는 날을 운영할 예정이며, 내년부터는 매월 정해진 시기에 체계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김정환기자

서산소방서, 소방시설로 추석선물 홍보

안전문화 정착 위해 '고향집, 주택용 소방시설 선물하기'

서산소방서(서장 권주태)는 추석 연휴를 맞아 주택용 소방시설 확산을 통한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고향집, 주택용 소방시설 선물하기' 운동을 적극 홍보에 나섰다.

전체화재 중 주택화재가 50% 이상 차지하는 만큼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는 매우 중요하다. 주택용 소방시설인 단독경보형감지기와 소화기는 화재 발생 시 빠른 시간 내에 화재를 인지하고 즉각적인 안전조치나 신속한 대피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때문이다. 이에 추석 명절 전광판과 언론사, SNS 등 각종 생활 접점 매체를 활용해 고향집 주택용 소방시설 선물하기 운동을 홍보할 예정이다.

또한 오는 11일 오후 2시 시외버스터미널과 동부시장 등에서 '추석에는 고향집에 안전을 선물하고 안심을 담아오세요'라는 슬로건으로 일제 홍보 캠페인을 펼칠 계획이다.

서산=김정한기자

대전충남병무청, 2000년생 대상 '19년 현역병입영 접수

10일 오후 2시부터 접수

대전·충남지방병무청은 10일 오후 2시부터 올해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현역병입영대상자(2000년생) 중 '19년 입영을 희망하는 사람에 대해 '현역병입영 본인선택원'을 병무청 홈페이지 및 스마트폰 병무청앱을 통해 선착순으로 접수한다. '현역병입영 본인선택원'은 병역의무자가 본인의 학업, 취업등 일정에 맞추어 미리 입영 희망일자를 신청하는 제도로, 이번 본인선택은 '오는 10월 ~ 12월 입영일자에 대해 신청 가능하다.

올해 병역판정검사를 받아 현역병입영대상자로 판정된 2000년생 중 '19년에 현역병 입영을 희망하는 사람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나, 2000년생 중·고등학교 재학사유로 연기중인 사람과 '20년 현역병입영 본인선택원을 이미 신청한 사람은 신청할 수 없다.

신청절차는 병무청 홈페이지 [현역병입영 본인선택원(당해연도 입영일자 선택)] 이나 스마트폰 병무청앱 [당해연도 현역병입영 본인선택(입영일자 신청)]을 통해 원하는 입영일자를 선택하면, 입영부대는 전산으로 무작위 결정된다. 본인선택을 위해서는 공인인증서 또는 휴대폰 인증이 필요하다.

송병배기자

신속·안전 구급으로 임산부 순산

아산소방서 119구급대원

아산소방서(서장 김성찬)는 119구급대원 도움으로 출산이 임박한 임산부를 안전하게 병원으로 이송해 건강한 아이를 출산하는 기쁨을 나눴다.

지난 4일, 22시 27분경 '애기가 나오려고 한다.'는 지령 접수를 받고 구조구급센터 구급대원들은 신속히 해당 장소로 출동했다. 현장 도착 당시 카자흐스탄 국적 만삭의 임산부는 양수가 터진 채 극심한 진통을 호소하고 있었으며, 거동도 불가능한 상태였다.

구급대원은 침착하고 적극적으로 호흡유도와 안위도모를 수행하며 협력병원인 청아미즈산부인과로 산모를 안전하게 이송했고, 5일 17시 30분경, 청아미즈산부인과에서는 산모가 건강한 여자 아이를 출산했다고 전했다.

이욱호 구급팀장은 "구급대원 업무범위 확대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과 임산부 이송예약제 119구급서비스를 통해 저출산 고령화 정책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고, 전문인력 배치 및 임산부 응급처치 역량강화 교육을 통해 임산부 구급서비스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아산=리량주기자

대전시, 24시간 '응급진료 상황실' 가동

대전시는 추석 연휴를 맞아 오는 12일 부터 15일까지 4일 동안 시민들과 귀성객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추석 연휴 응급진료 상황실'을 가동하고 24시간 응급진료체계를 유지한다.

응급진료체계는 권역응급의료센터인 충남대병원, 건양대병원을 비롯한 응급의료기관 10곳을 중심으로 24시간 응급실 운영을 강화하며, 문 여는 병·의원(125곳)과 약국(175곳), 공공심야약국(2곳) 운영으로 진료 및 의약품 구입에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연휴 기간 동안 문을 연 가까운 당직 의료기관 및 약국 정보는 119(구급상황관리센터), 응급의료포털(www.e-gen.or.kr), 시 및 자치구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사용자 위치를 기반으로 가까운 병의원, 약국 위치를 지도에서 보여주는 '응급의료정보제공(앱)'을 이용하면 주변 이용 가능한 병·의원과 약국 외에도 자동심장충격기 위치 및 사용법, 심폐소생술 방법도 조회할 수 있다.

김태선기자

학교폭력 예방 위해 세종시 교사들이 모였다

세종시교육청, 학교폭력 및 학업중단 예방 역량강화 연수 개최

"학교폭력은 법률적 해결보다는 학생들의 갈등을 중재하여 관계를 회복시키는 교육적 접근이 필요하다. 중요한 것은 학교폭력 예방이다. 학교폭력 예방에 보다 더 노력해주기 바란다."

최교진 교육감이 세종시의 학생생활 및 학업중단 예방 업무 담당 교원들을 대상으로 이같이 주문했다.

최 교육감의 이번 주문은 지난 8월 발표한 2019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세종시 학교폭력 피해 응답률이 지난해보다 소폭 증가에 따른 요구사항이다.

세종시교육청은 최근 학교폭력 예방과 인식 제고 교육으로 인해 학교폭력 민감도가 높아져 학생들이 사소한 것도 학교폭력으로 인식하고 있는 점, 전국단위 유입 학생 증가로 갈등 소지가 있을 수 있는 점 등을 피해응답률 증가의 원인으로 분석한 바 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감 최교진, 이하 세종시교육청)은 6일부터 7일까지 1박 2일로 공주한국문화연수원에서 관내 교원들 100여 명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및 학업중단 예방 역량강화' 직무연수를 개최했다.

이번 직무연수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안에 따른 학교자체해결제 시행 방안의 이해를 돕고, 학업중단 학생 예방을 위한 교원 역량 강화를 위해 추진했다.

정부는 개정 학교폭력예방법의 개정 취지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학폭위)의 증가로 담당 교원과 학교의 업무 부담이 늘고, 학폭위 전체위원의 과반수를 학부모대표로 위촉하도록 하고 있어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점을 보완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각급 학교는 2020년 3월 1일부터 경미한 학교폭력의 경우 학교의 장이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학교자체해결제'를 운영한다.

이번 연수의 주요 내용은 ▲학교폭력 예방법 개정 취지 이해 ▲학생과의 원활한 소통을 위한 감정 배려 비폭력 대화법 ▲학업중단 숙려제와 대안교육 이해 ▲학교밖 청소년 지원 방안 모색 등 학교 부적응 학생들에 대한 예방 교육과,

학교폭력 예방 담당 교사들의 업무에 대한 피로를 해소하기 위해 '힐링과 치유를 위한 차 테라피(茶 therapy)' 과정도 운영했다.

정선화(연동중) 교사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과 학교 자체 해결제에 대해 현장 교사들이 업무에 대한 부담감을 많이 느꼈는데 시의적절한 연수였다"고 말했다.

김동호 민주시민교육과장은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교원의 온·오프라인 연수뿐만 아니라 학생들을 대상으로 언어폭력과 집단따돌림 예방을 위한 언어순화 교육, 관계회복 대화방법, 타인이해 및 존중·배려 교육 등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김태선기자

충남교육청, 청렴문화 확산 위한 캠페인

홍성읍에서 추석 명절 시민들과 함께 소통의 장 가져

충남교육청(교육감 김지철)은 6일 홍성읍 일원에서 '청렴한 세상, 충남교육청이 앞장서겠습니다'라는 주제로 청렴 캠페인과 청렴클러스터 청렴문화 간담회를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과 간담회는 충남교육청 교직원, 홍성지역 학부모 청렴지킴이, 충남도청, 청렴사회민간협의회 등 40여 명이 민족 대명절 추석을 앞두고 청렴에 대해 소통·공감하며 청렴의식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가자들은 청렴 실천을 다짐하는 문구가 새겨진 어깨띠를 하고 공무원행동강령, 공익신고 리플릿과 청렴홍보물을 전달하며, 갑질 근절, 공익신고자 보호 등 청렴정책을 홍보하고, 특히 학부모 청렴지킴이가 청렴 관련 홍보물을 시민들에게 전달해 청렴에 대한 공감의 폭을 넓혀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충남교육청은 청렴에 대한 시민들의 높은 눈높이에 부응하기 위해 '청렴교육주간' 운영 등 다양한 청렴 실천행사를 하고 있으며 시민들과 호흡하는 청렴·공익신고 등을 적극적으로 홍보했다.

김지철 교육감은 "청렴캠페인 행사를 계기로 시민과 함께 깨끗하고 투명한 청렴 문화가 확산하기를 바라며, 앞으로 청렴 정책을 실행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김정환기자

서천교육지원청, 추석맞이 국군장병 위문 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정태모)은 지난 5일 우리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육군 제8361부대를 방문해 장병들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전하고 위문금을 전달했다. 이번 군부대 위문은 학생과 교육가족, 나아가 온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고 있는 국군장병들의 헌신적인 노력에 교육가족 모두의 마음을 담아 소중함과 고마움을 전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전교육청, 내년 교원행정업무 부담 줄여

폐지사업 182건, 사업축소 121건, 사업통합 111건 등 추진

대전광역시교육청(교육감 설동호)은 9월, 교원의 업무를 경감하고 교육전념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교육정책사업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했다고 밝혔다.

교육정책사업 정비는 교육청이 예산이나 인력을 투입해 학교교육과정 운영을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는 학교의 업무경감 및 자율성 확대를 위해 학교와 관련된 교육정책 사업을 평가하고 정비하는 사업이다.

2019년 본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에서 추진하는 교육정책사업 1,198건 중 ▲폐지 182건(15.2%), ▲축소 121건(10.1%), ▲통합 11건(9.3%), ▲학교이관 11건(0.9%), ▲기관이관 25건(2.1)%으로 정비율 37.6%, 실질적인 감축률은 31.3%라는 실적을 거두었다.

폐지 사업은 182건으로 시범학교, 연구학교, 중점학교, 선도학교, 모델학교 총 6건 등이고, 통합 사업은 111건으로 박람회 통합으로 대전미래교육박람회, 연구학교 박람회, 노벨과학페스티벌 등 대형 행사를 하나로 통합하고 각종 중복성 연수를 통합하는 등 비슷한 유형의 사업을 통합하고 정비하였다.

이번 교육정책사업 정비 결과는 기관별 협조체제 구축 운영으로 2019년 목표인 「매년 10%이상 폐지로 2022년까지 30%이상 폐지 추진」을 달성하여 학교 현장의 교원행정업무 부담을 줄이고 업무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2019년 교육정책사업 정비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대전교육정책연구소」에서 지난 7~8월 교원, 교육전문직, 교육행정직 총 2,578명에 대한 설문조사와 FGI(표적집단면접법) 33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학교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했다.

김정환기자

홍성교육지원청, 청렴나눔 봉사활동 운영

지속적인 선행에 웃음꽃 활짝

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주도연) 직원으로 구성된 청렴나눔 봉사단은 5일 관내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하여 의미 있는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지난 수 년간 이어져 온 청렴나눔 봉사활동의 일환으로서 이뤄진 이번 행사는, 광천 소재의 한 청소년 사회복지시설에서 생필품 전달과 함께 내·외부 환경 정화를 실시하는 순서로 이루어졌다.

주도연 교육장은 "바쁜 일정 속에서 우리직원들이 지속적으로 봉사활동 하는 모습에서 홍성교육의 미래를 본다."고 전하며 봉사활동에 참여한 직원을 격려하였고, 이에 시설 측에서는 지속적인 사회 공헌에 깊은 감사를 표시했다. 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봉사활동으로 나눔을 실천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서산 부춘중, 학교폭력 예방 영상제 전국 3위

제2회 학교폭력 예방 스마트폰 영상제… 쾌거 올려

서산 부춘중(교장 유춘환) 3학년 김○○ 학생 외 5명의 학생(지도교사 김○○)들이 제2회 학교폭력 예방 스마트폰 영상제 '어서와, 칭찬사워는 처음이지?'에서 전국 3위를 차지하는 쾌거를 올렸다.

이 대회는 초록우산어린이재단, 부산일보사, 부산광역시교육청, 부산지방경찰청의 공동 주최로 긍정적인 말의 힘, 칭찬의 중요성을 일깨울 수 있는 영상의 내용을 담아 학생들에게 긍정적 언어의 효과를 전달하려는 취지로 계획됐다.

유춘환 교장은 "말은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무한한 에너지를 주기도하고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기도 한다며. 학생들이 긍정언어의 힘을 깨닫고 학교폭력 중 가장 높은 빈도를 차지하는 언어폭력을 줄이고 행복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서산=김정한기자

금산교육지원청, 모범효행학생 발굴·시상

제19회 성경상(誠敬賞)시상식 실시

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이태연)은 어려운 가정환경에서도 굳센 의지로 역경을 이겨내며 학업에 정진하고, 어른을 공경하는 마음과 부모님께 효성이 지극하여 남의 모범이 되는 학생을 발굴하여 장학금을 수여하는 제19회 '성경상(誠敬賞)'시상식을 5일 금산교육지원청 3층 회의실에서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제13대 박세춘 전(前)금산교육지원청 교육장을 비롯한 금장회 및 교육계 원로 선배님 그리고 학부모, 교장 선생님들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다.

이 성경상은 평소 금산지역 및 교육에 대한 남다른 애정과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독지가(전 금산교육지원청 교육장 박세춘)로부터 9,000만원의 장학기금을 위탁받아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지급되는 이자로 매년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

2017년 성경상(誠敬賞) 시상식부터 관내 28교 대상으로 추천받아 초·중·고 각 2명씩 총 6명에게 각 1백만원씩의 장학금과 상장, 격려품을 수여했다.

추석맞이 행사로 화합의 자리 마련

대전시립손소리복지관, 송편 빚기 콘테스트로 소통과 나눔의 장

대전시립손소리복지관(관장 유형걸)은 지난 6일, 추석 명절을 맞아 지역 내 청각·언어장애인이 함께하는 송편 빚기 콘테스트를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사전 참가자 50명과 함께 복지관 직원 및 자원봉사자를 포함해 총 7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행사에 주)유천야채의 4㎏ 상당의 쌀 10포 후원으로 콘테스트를 통한 입상자에게 푸짐한 상품이 주어졌으며, 손소리복지관 내 손소리농아인봉사단의 풍선아트 재능기부로 행사가 더욱 다채롭게 진행됐다.

송병배기자

천안신부초, PDC 전문학습공동체 연수

매달 1·3주 수요일에 PDC 전문학습공동체 연수 운영

천안신부초등학교(교장 이은옥)에서는 지난 4일 도서실에서 첫 모임을 시작으로 지난 1일 ~ 2020년 2월 28일까지 매달 1, 3주 수요일에 PDC 전문학습공동체 연수를 운영한다.

교권이 무너지고 교육현장의 다양한 문제점들이 뉴스에 나오는 일이 흔한 일상이 되어버린 요즘, 학급규칙이 무너지고 아이들은 서로 갈등하며 학생들과의 관계 개선도 어려운 사례들을 겪는 교사들이 생겨나고 있다.

무너지고 아픈 요즘의 교육 현장에서 아이들과 존중의 마음을 나누고, 함께 만들어낸 학급문화와 규칙들로 안정적인 학급운영을 하는 천안신부초로 거듭나도록 교사들 스스로 PDC(학급긍정훈육방법)를 주제로 삼아 전문학습공동체를 운영하고자 뜻을 모았다.

전문학습공동체에서는 PDC(학급긍정훈육방법) 도서를 읽고 독서내용에 대한 토론과 실제 학급에서 적용하는 사례 및 실천의 어려움 점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이 교장은 "천안신부초는 PDC(학급긍정훈육방법) 전문학습공동체를 통해 행복한 교사와 학생들이 만들어가는 학생중심의 교육이 실현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천안=이정복기자

공주대 유아교육과, 총 39명 합격자 배출

2019년도 국공립 유치원교사 임용시험

공주대학교(총장 원성수) 유아교육과(학과장 권이정)가 2019년도 국공립 유치원교사 임용시험에서 총 39명이 합격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우리나라 최초의 국립 유치원을 개원해 운영하고 있는 공주대학교 유아교육과는 1981년도에 개설된 이후로 많은 유아교사를 배출해오고 있다.

특히 2017년도 국공립 유치원교사 임용시험에서 24명, 2018년도에는 44명의 합격자를 배출했고, 금년 2019년도의 합격자는 총 39명으로 2019학년도 임용시험에서 30명과 2019년도 8월 5일에 발표된 추가임용시험에서 9명의 합격자를 배출하는 등 국공립 유치원 교사를 선발하는 임용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는 성과를 보이고 있다.

공주대학교 유아교육과가 이와 같이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었던 이유는 오랜 역사를 지닌 공주대학교 사범대학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과 함께 학과 차원의 임용특강 운영과 내실 있는 교육과정 운영, 그리고 부설유치원과의 지속적인 연계를 통한 교육에 기인한 것으로 파악된다.

공주=정상범기자

보령정심학교, "연극뮤지컬 지역발표회 참가 및 관람" 보령정심학교(교장 정수영)는 5일, 본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서천 문예의 전당에서 보령·서천 지역 학생 연극 발표회 참가 및 관람을 실시하였다. 이번 프로그램은 6개 학교에서 학생들의 노력과 결실을 보여주는 장이 되었으며 본교에서는 '아빠의 직업은 히어로?!'라는 제목으로 1학기 동안 준비해 온 작품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사회적 공동체 특화단지 사업비 190억원 확보

청양군, 충남도 공모사업 정조준 성과…치유관광 · 고추문화마을 활성화 전기

청양군(군수 김돈곤)이 충청남도 공모사업을 정조준 한 결과 '사회적 공동체 특화단지' 사업비 190억원을 확보, 치유관광 거점 조성과 고추문화마을 활성화를 위한 일대 전환점을 마련했다.

6일 청양군에 따르면, 청양군은 지난 7월 31일 사회적 공동체 특화단지 조성사업 등 6개 사업을 충청남도에 공모 신청했고, 5일 제2회 충청남도 균형발전위원회 심사를 최종 통과함으로써 관련 예산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

사회적 공동체 특화단지에는 공동체 집적시설로 체험학습장, 커뮤니티공방, 로컬푸드센터를 조성하고 농촌 융복합 활력거점으로 체험 · 판매장을 갖출 예정이다.

또 치유시설로 원예치유 및 건강체험센터와 향기정원, 허브정원, 야생화단지, 숲길, 숲속 쉼터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현 고추문화마을 부지를 중심으로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 동안 추진되며, 군은 이번 선정을 위해 2018년 10월부터 고추문화마을 활성화 사업 기본구상을 시작으로 지난 7월까지 사업발굴에 매달려 왔다.

지난해 12월 2단계 균형발전사업 발굴계획을 수립한 군은 곧바로 고운식물원 연계 고추문화마을 콘텐츠 강화계획 수립용역을 발주하면서 고추문화마을을 관광종합개발계획 리뉴얼 대상지로 선정했다.

지난 5월에는 고추문화마을 포함 공공시설 경영개선 및 활성화 연구용역을 발주했으며, 6월에는 우수사례 벤치마킹, 주민 의견 수렴, 전문가 자문을 거쳤다.

사회적 공동체 특화단지는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충남도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조성과 맞물려 거대한 시너지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청양군은 기대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70억원을 지원하는 청양군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은 이미 선정이 확정됐고, 사회적경제 혁신타운(280억원)은 기획재정부를 거쳐 현재 산업통상자원부 최종 심사를 기다리는 상황이다.

김돈곤 군수는 "사회적 공동체 특화단지 조성사업이 충남도 균형발전사업으로 선정됨에 따라 지역 일자리 창출뿐만 아니라 농가소득 증대, 치유관광 활성화, 창업 증가 등 다양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주민과 분야별 전문가,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면서 군민이 만들고 군민 모두가 행복한 공간이 되도록 지혜를 모으겠다."고 밝혔다.

한편, 청양군은 1단계 균형발전사업(2008~2020년)을 통해 부자농촌지원센터 건립, 운곡2농공단지 조성, 청양복지타운 건립, 귀농프론티어, 장애인복지회관 건립 등 33개 사업에 1546억원을 투자했다.

또 2단계 균형발전사업(2021~2030년)에서도 사업비를 최대한 확보, 획기적인 지역 성장동력 창출을 위해 고심하고 있다.

청양=정상범기자

아산시 축산농장관리 웹프로그램 시스템 교육

아산시농업기술센터(소장 박승우)는 지난 5일, 정보화교육장에서 농장단계 ACCP 보급을 통해 축산물안전성 및 소비자 신뢰 확보를 위한 축산농장관리 웹프로그램 시스템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HACCP관리, 개체관리, 도체등급관리, 번식관리, 계획교배관리, 도체등급관리, 경영관리 등 실습 위주로 교육했다.

HACCP 기록관리를 통해 HACCP 인증 희망가는 인증에 요구되는 기록을 시스템을에 기록한 뒤 방명록만 별도로 갖춰 인증심사를 신청하면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심사를 받을 수 있다. 또 개체관리 · 등급관리는 축산물품질평가원과 시스템이 연계돼 쇠고기 이력 정보와 축산물등급판정정보를 자동으로 가져올 수 있어 농가가 관련정보를 손쉽게 관리할 수 있다.

이외에도 번식관리 · 교배계획관리는 한우농장의 주요 정보인 암수 보유현황, 번식간격, 육질등급, 도체중 등을 그래프와 표로 볼 수 있으며, 경영관리는 농가 수입과 지출 정보를 관리할 수 있어 농장경영이 편리해 진다.

센터 관계자는 "이번 축산농장관리 웹프로그램 활용 교육으로 축산농가의 경영능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ICT 기술을 활용한 서비스 창출, 공공데이터의 민간활용 활성화 및 정보개방 · 공유 · 협력을 통한 축산농가 맞춤형 One-Stop 서비스가 제공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산=리량주기자

소공인 복합지원센터 공모사업 선정

공주시, 섬유산업 재도약 청신호

공주시(시장 김정섭)가 중소벤처기업부와 소공인시장진흥공단이 실시한 '2019 소공인 복합지원센터 구축'운영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됐다.

6일 시에 따르면, 이번 소공인 복합지원센터 구축'운영사업은 정부가 올해 처음 실시한 공모사업으로 공주 유구읍과 함께 서울 중랑 면목동 등 2곳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복합지원센터에는 신소재 개발이나 샘플제작에 필요한 특수설비와 첨단설비가 설치돼 제품개발 지원과 판로 확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발굴 등이 이뤄진다.

유구읍의 경우 같은 업종의 소공인(섬유제조업) 밀집도가 높고, 복합지원센터 설치 시 고부가가치 창출과 사업 효과가 큰 집적지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이에 따라 시는 이번에 확보한 국비 25억 원과 도비 5억 3700만 원, 시비 25억 7300만 원 등 총 56억 1000만 원을 투입해 공동개발실과 스마트 가공시설, 온라인 쇼룸, 공동판매장 등을 구축하고, 생산자원 공유 및 협력 네트워크 강화에 나선다. 소공인 복합지원센터는 내년 말 준공될 예정으로, (재)한국자카드섬유연구소(소장 전성기)가 3년 동안 운영 관리해 나갈 예정이다.

김정섭 시장은 "이번 공모사업 선정으로 침체됐던 유구섬유산업이 다시 활기를 되찾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소공인 복합지원센터 구축을 계기로 유구섬유산업을 공주를 대표하는 지역 뿌리산업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주=정상범 기자

홍성농기센터-한국농어촌공사 홍성지사 업무 협약 체결

지역 농업인 소득향상 · 농업 · 농촌 발전 위해

홍성군농기센터는 지난 5일 회의실에서 한국농어촌공사 충남지역본부 홍성지사와 업무 협약(MOU)을 체결하였다.

이번 MOU를 통해 홍성군농업기술센터와 한국농어촌공사 홍성지사는 양 기관 간 상호협력과 교류를 통한 유기적인 업무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지역 농업인의 소득향상과 농업 · 농촌 발전을 위하여 양 기관이 적극 협력하기로 하였다.

업무 협약의 주요 내용으로는 기관 홈페이지를 통한 농업관련 정보 교환, 농업분야 활성화를 위한 공동교육 지원, 농어촌 자살예방운동 등 지역사회공헌을 위한 공동 캠페인 전개, 농지정보 공유, 지역농산물 홍보, 곡물자급률 및 경지이용률 향상을 위한 협력 등이 있다.

김정환기자

공주시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주간 캠페인

공주시(시장 김정섭)는 지난 5일 보건소 일원에서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주간을 맞아 '자기혈관 숫자알기, 레드서클캠페인'을 실시했다.

시 보건소는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등 5개 단체와 합동으로 심뇌혈관질환 예방 주요 대상군인 40~50대를 대상으로 '혈관건강의 시작은 혈압'혈당'콜레스테롤 수치알기부터'라는 슬로건 하에 캠페인을 벌였다.

특히 혈압과 혈당, 콜레스테롤을 측정하고 상담하는 레드서클 존과 체성분 측정 및 운동 처방을 진행하는 홍보관을 운영해 큰 호응을 얻었다.

또한 레드서클캠페인 로고 및 슬로건을 활용해 제작한 티셔츠를 착용하고 치매예방관리 등 기타 보건사업을 병행 홍보하는 시간도 가졌다.

시향숙 건강과장은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를 통해 시민들이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의 필요성과 방법을 올바로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주=정상범기자

아산시 '2020년도 시책구상보고회' 열려

아산시(시장 오세현)가 50만 자족도시를 향한 2020년도 시책구상보고회를 개최하고 내년도 업무 준비에 나섰다.

시는 4, 5일 양 일간 시청 상황실에서 국 · 소장 및 부서장, 더 큰 시정위원회 위원, 각계각층의 전문가와 시민 등이 한 자리에 모인 가운데 토론 형식으로 진행했다.

이번 보고회는 부서에서 발굴한 내년도 시책 347건 중 역점시책 108건을 중심으로 문제점을 점검하고 효과적인 추진방안과 체계적인 이행방안을 함께 모색했다.

4일, 보고회 첫 날, 경제 분야 전문가들은 아산시는 제조업의 비율이 높고, 자동차 부품 및 디스플레이 관련 산업이 주를 이루고 있어 경기 침체에 따른 기업의 어려움 해소를 위한 자금 지원과 규제 완화 등의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또 미래전략사업 발굴 및 로드맵 구축과 관련해 4차 산업혁명 등 산업구조 다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선택과 집중을 통한 혁신성장산업 육성 방안에 대해 토론하기도 했다.

특히, 국가사업 반영으로 큰 기대를 모았던 KTX 역세권 R&D 집적지구 조성의 빠른 사업진행을 위해 중앙정부와의 정책 연계, 구체적인 콘텐츠 개발 등에 박차를 가할 것과 KTX 역사에 대한 활용방안을 강조했다.

이어진 주요 정책과제 토론은 5대 시정전략 중 하나인 '머무르는 관광, 향유하는 문화' 실현을 위해 중점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권곡문화공원~은행나무길~현충사를 잇는 문화관광벨트 조성 방안'에 대해 토론했다.

34만 아산시민의 오랜 숙원인 문예회관 건립사업의 예정지이자 온양민속박물관이 위치해 있는 권곡문화공원과 현충사, 은행나무길, 곡교천을 잇는 관광 연계성 강화에 방안을 모색했다.

시는 곡교천 복합체육여가공간 조성 마스터 플랜과 은행나무길 활성화 마스터 플랜을 충무교 확장 및 곡교천 친수공간 조성 등의 국가사업과 연계 추진해 시민이 즐겨 찾을 수 있는 공간으로 탈바꿈 할 계획이다.

5일에는 시민과의 접점에서 추진되고 있는 도시개발, 환경, 농업 분야의 토론이 진행됐다.

도시계획 분야는 아산형 성장관리정책과 미래수요에 대비하기 위한 도시계획 관리방안 등을 중점적으로 다뤘으며, 민간 도시개발사업 추진 시 주민의견 수렴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가 적극적으로 해결에 나설 것을 제안했다.

또 올 한해 발로 뛰는 정부예산 확보에 긍정적 평가와 함께 최근 중앙부처 공모사업의 유형 및 흐름, 전략적 접근방법에 대해 공유하고 중복되거나 무분별한 투자가 되지 않도록 계획 단계에서부터 부서 간 적극 협업할 것을 요구했다.

이외에도 7월 국외 선진도시 벤치마킹 결과 등을 토대로 마련된 '대한민국을 선도하는 환경친화도시 조성 방안'과 2030년까지 100% 친환경버스 보급 확대계획에 대한 토론이 이어졌으며, 저상버스가 자유롭게 도로를 운행할 수 있도록 각 도로의 과속방지턱의 높이 조정을 제안했다.

이번 보고회를 주재한 유병훈 부시장은 "아산시는 1조 4천여억 원의 재정규모와 전국 최고 수준의 GRDP를 보유한 도시로 양적인 면에서는 크게 성장을 해왔으나 성장하는 속도와 비례해 여러 가지 성장통 또한 발생하고 있다"며 "제한된 재정여건 내 특화된 시책을 추진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 있으나 부서에서 항상 업무에 대한 애정과 열정, 고민으로 50만 자족도시를 향한 성장동력을 최대한 끌어 올려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산=리량주기자

사회적 경제 육성 위한 교육 추진

당진시, 오는 17일부터 27일까지 경제공동체 교육

당진시가 사회적 경제의 창업과 전환에 관심 있는 단체와 개인들을 대상으로 오는 17일부터 27일까지 당진 전통시장 어시장 2층 교육실에서 4회에 걸쳐 사회적 경제 발굴과 육성을 위한 경제공동체 교육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2017년 불과 7개에 불과했던 당진지역 사회적 기업 수가 올해 충남도내 3번째 수준인 15곳으로 두 배 넘게 증가하는 등 당진에서 사회적 경제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마련됐다.

교육에 앞서 당진시는 지난 8월 사회적 경제 운영을 희망하는 단체와 개인들을 대상으로 단계별 사회적 경제 지원사업을 공모해 컨설팅 및 교육 참여자를 모집했다.

이번 교육은 사회적 경제에 대한 방법론과 제도 진입, 성공사례, 비즈니스 모델 수립 등 사회적 경제 진입에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진행된다.

특히 당진시는 교육 수료 후 사회적 경제 창업에 뜻을 둔 단체와 개인을 대상으로 실제 창업까지 연계할 수 있도록 집중 관리할 계획이며, 창업 이후에는 해당 기업이 사회적 기업으로 지정받을 수 있을 때까지 다울 사회적 협동조합과 함께 다양한 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이다.

당진시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평소 사회적 경제에 관심 있는 단체와 개인들이 스스로의 역량을 돌아보고 미래의 사회적 경제 창업 계획을 세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2020년에는 실속 있고 자생력 있는 사회적 경제의 확산을 위해 창업교육을 확대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당진=최근수기자

아산시 제13호 태풍 '링링' 사전 대비에 '총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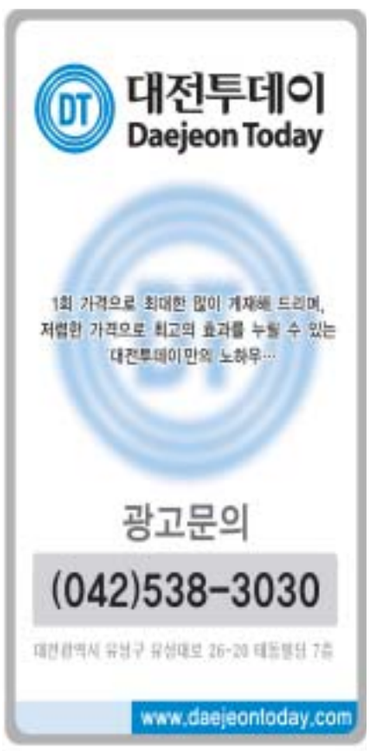
아산시는 지난 5일, 아산시청 상황실에서 태풍 링링에 대비하고자 유병훈 부시장 주재로 국소장 9명, 해당 과장 22명, 읍면동장 17명, 시설관리공단 관계자 등이 참여하여 부서별 대처상황보고회를 개최했다.

유병훈 부시장은 지난 4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태풍피해대책 영사회의에 참석 후 6일부터 안전총괄과를 비롯해 정예실무반을 편성해 '아산시 자연재난 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해 태풍에 대비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

유 부시장은 회의에서 "태풍 대비태세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했다.

현재까지 아산시 추진상황으로는 자연재난대응TF팀 운영, 재해취약지 CCTV 상태 점검, 배수펌프장(6개소) 시설물 및 저류지(11개소) 점검, CCTV(12개소) 및 하천변 예 · 경보시스템(16개소)을 점검 완료했다.

아산=리량주기자



동정

사회복지시설 위문 방문

오세현 아산시장=9일 오후 2시 추석을 맞아 온천동 소재 정애원 사회복지시설을 위문 방문.

환경부 장관 면담

김홍장 당진시장=9일 오전 10시 당진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리는 제65회 당진시의회 제2차 본회의에 참석, 오후 3시 세종 정부청사를 방문해 조명래 환경부 장관을 면담.

본회의

김기재 당진시의장=9일 오전 10시 당진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리는 제65회 당진시의회 제2차 본회의에 참석

어려운 이웃 찾아 위문

가세로 태안군수=9일 오후 1시 30분 관내 사회복지시설 및 어려운 이웃을 찾아 위문.

주간업무계획 보고회

김돈곤 청양군수=9일 오전 8시 30분 군청 2층 상황실에서 열리는 주간업무계획 보고회를 주재.

온양3동 소쿠리 담장갤러리 전시

아산시 온양3동 행정복지센터(동장 김형관)는 지난 5일, 담장갤러리에 전시됐던 작품 10점을 교체 전시했다.

소쿠리 담장갤러리는 온양3동행정복지센터 맞은편 담장에 작품전시를 위한 공간을 조성한 것으로 온양3동 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이현상)가 주민자치프로그램 서양화교실(강사 이광훈)과 함께 매 분기별 작품을 교체하며 주민들의 다채로운 문화생활에 기여하고 있다.

김형관 동장은 "매번 소쿠리 담장갤러리를 위하여 노력해주시는 주민자치위원장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거리를 지나는 주민들께서 그림을 통해 잠시나마 마음의 휴식 시간을 갖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 전시된 작품은 천하윤 지역작가의 그림으로 작품 감상에 도움을 줄 리플릿도 함께 비치되어 있다.

아산=리량주기자

"당진에서 일자리 잡(Job)으세요"

일자리 박람회 열려… 취업 기회 제공 · 지역경제 활력 불어넣기 위해 마련

당진시는 오는 25일 오후 2시 신성대학교 태촌 아카데미홀에서 2019 당진시 일자리 박람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직접 참여 50여 곳, 간접 참여 20여 곳 등 당진지역 70여 개 기업이 참여하는 이번 박람회는 청년과 경력단절 여성, 신중년 등 구직자와 구인 기업의 만남의 장을 마련해 구직자에게는 취업 기회를 제공하고 기업의 구인난을 해소함으로써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 박람회장에는 기업들의 인재 채용을 위한 1:1 현장면접 부스와 구직 및 진로상담을 위한 컨설팅관, 당진지역 우량기업의 채용설명회를 비롯한 다양한 부대행사 부스가 들어선다.

특히 이번 박람회는 ▲경력단절 여성들을 위한 전문 채용관 ▲중장년 창업지원 상담관 ▲산업인력양성교육 재능기부관을 기획해 일자리 미스매치를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구직을 희망하는 사람은 박람회 당일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지참하고 현장을 방문해 본인의 희망 조건에 맞는 업체의 면접에 참여할 수 있다.

당진시는 구직자가 박람회장에서 채용의 기회를 얻지 못하더라도 6개월 간 취업정보 제공 등 사후관리를 통해 원하는 기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기타 이번 일자리 박람회와 관련한 궁금한 사항은 당진시 통합일자리지원센터(041-354-1919)로 문의하면 된다.

당진=최근수기자

태안군 '행복꾸러미' 전달

자원봉사센터, 한부모자녀 · 독거노인 등 100여 가구

태안군 자원봉사센터가 추석을 앞두고 어려운 이웃을 위한 '행복꾸러미'를 전달해 지역사회를 훈훈하게 하고 있다.

군 자원봉사센터는 지난 6일부터 9일까지 읍 · 면 거점센터 상담가와 행복코디를 통해 관내 한부모자녀 · 독거노인 · 장애인 가구 등 100여 가구에 송편, 부침전, 한과세트로 구성된 '행복꾸러미'를 전달했다.

관계자는 "어려운 이웃들이 '행복꾸러미'로 조금이나마 행복한 추석이 되시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어려운 이웃을 위해 꾸준히 봉사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태안=김정한기자

청양군 치매안심마을 인지재활프로그램 운영

청양군(군수 김돈곤) 치매안심센터가 이달부터 치매안심마을로 지정된 대치면 주정1리 치매환자 가정을 대상으로 재활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지난 5일 시작된 프로그램은 11월 7일까지 8회 운영되며, 작업치료사와 사회복지사가 지필활동, 수공예활동, 회상활동 등 다양한 인지재활프로그램을 제공한다.

거동이 불편하거나 배회증상 때문에 외출 자제가 요구되는 환자들인 만큼 이들에 대한 집단 프로그램은 사회적 고립감과 외로움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번 프로그램에는 지난 6월 11일 업무협약을 맺은 충남도립대 작업치료학과 학생들이 함께하면서 지역사회의 관심과 이해도를 높이고 있다.

보건의료원 관계자는 "각 가정을 직접 방문해 인지재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만큼 환자와 가족들의 삶의 질이 높아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청양군 치매안심센터는 이밖에 ▲무료치매 조기검진 ▲인지재활강화 프로그램 운영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치매환자 조호물품 지원 ▲맞춤형 사례관리 ▲치매가족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지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청양군치매안심센터(940-4555~61)로 문의하면 된다.

청양=정상범기자

벼 병해충 방제 무인헬기로

태안군, 올해 총 사업비 27억 원 · 6,824ha 항공방제 실시

태안군은 지난 5일 군 농업기술센터 세미나실에서 군 관계자, 읍 · 면 이장단협의회장, 농협중앙회태안군지부 및 각 지역농협 담당자 등이 모인 가운데 '2019년 벼 병해충 항공방제 지원사업 종합평가회'를 개최했다.

이날 평가회에서는 올해 실시한 벼 병해충 항공방제에 대한 평가와 개선대책 등을 토론했으며, 이번 평가를 바탕으로 내년 항공방제 지원사업에 관한 계획에 대해 협의했다.

한편 태안군과 농협중앙회태안군지부, 각 지역농협의 협업아래 진행된 '벼 병해충 항공방제'는 고령화에 따른 벼 병해충 방제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실시됐으며, 지난해보다 145% 증가한 6,824ha의 면적에 항공방제가 실시됐다.

특히 올해 '벼 병해충 항공방제 지원사업'은 총사업비 27억 원(군보조 50%, 농협 25%, 농업인 자부담 25%)을 들여 무인헬기 15대 · 멀티콥터(드론) 49대를 동원해, 사람이 직접 방제했을 때보다 10배 이상의 노동력 절감 효과를 보여 농가 소득을 높이는데 기여했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이번 평가회를 통해 도출된 문제점 등을 적극 보완해 효율적인 항공방제의 기반을 조성해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벼 돌발 병해충 예찰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정보를 농가에 신속히 제공해 철저한 방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태안=김정한기자

아산시 관용차량 외관디자인 완성 시범 적용

아산시(시장 오세현)는 6일, 우리시 정체성을 담은 관용차량 외관디자인을 완성하고 시범적으로 17대에 적용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시범 적용된 관용차량 외관개선은 선문대학교와 디자인 개발 협약 후 공동 디자인 개발하고, 선문대학교 링크플러스사업단(단장 윤기용)에서 사업비를 지원 추진됐다.

디자인은 아산시를 대표할 수 있는 다양한 문화적 자산(자연, 첨단, 사람, 예술, 역사, 전통 등)을 상징적으로 그래픽 처리했으며, 정체성을 확립하고 쾌적하고 세련된 도시 이미지를 구축함으로써 도시경쟁력을 한층 강화하고자 했다.

특히 문화와 예술을 홍보하는 차량의 외관 개선으로 문화와 예술의 중심도시 아산을 전국적으로 홍보할 수 있게 됐다.

문병록 미래전략과장은 "내년부터 관용차량 외관개선을 통한 우리시 정체성을 확립하고 그래픽 모티브를 공공디자인 전반에 적용하여 디자인 도시 아산으로 자리매김하고자 하며 향후 공공시설물 등에도 통합적인 공공디자인을 적용하여 젊은 아산, 살고 싶은 도시로 만들어 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아산=리량주기자

우/리/동/네

김돈곤 군수 '필승코리아 펀드' 가입

청양군, 일본 수출규제 대응 소재 · 부품기업에 힘 보태

김돈곤 청양군수가 일본의 수출규제로 촉발된 국내 경제의 어려움을 타개할 수 있도록 '필승코리아 펀드'에 가입, 소재 및 부품기업에 힘을 보탰다.

청양군에 따르면, 지난 6일 김돈곤 군수는 NH농협은행 청양군 청출장소를 찾아 펀드 가입에 동참했다.

필승코리아 펀드는 일본의 수출규제에 맞서 경쟁력 강화가 시급한 국내 소재'부품'장비 등 제조분야 중소기업에 투자하는 주식형 펀드로 운용보수의 50%를 공익기금으로 적립해 향후 관련 산업분야 발전을 위한 장학금으로 기부하는 공익적 상품이다.

지난달 26일 문재인 대통령이 상품에 가입하면서 공공기관 주요 단체장을 비롯해 일반 국민들까지 가입 열기가 확산되고 있다.

김돈곤 군수는 "우리 국민은 단합과 끈기로 국가의 어려움을 타개하는 저력이 어느 나라보다도 강하다"며 "더 많은 군민과 공직자가 동참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청양=정상범기자

추석 연휴 의료공백 최소화한다

당진시, 응급진료 상황실 가동, 응급진료체계 구축

당진시 보건소는 추석 연휴를 맞아 시민과 귀성객의 진료기관 이용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추석 연휴기간인 12일부터 15일까지를 비상진료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응급진료 상황실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보건소는 지역 내 의료기관, 약국과 연계된 비상진료체계를 갖추고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는 한편 환자들이 신속하게 진료를 볼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다.

이에 따라 추석 연휴기간 동안 지역응급의료센터인 당진종합병원이 24시간 응급진료에 나서며, 다른 병의원 15곳과 약국 33곳도 휴일지킴이 약국 운영에 동참한다.

또한 보건소도 자체적으로 추석 연휴기간 내내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일반진료를 실시하며, 읍 · 면 보건지소 10곳과 보건진료소 17곳도 지역별 당번제로 비상진료에 참여한다.

추석 연휴기간 동안 운영하는 의료기관과 약국 명단, 주소, 연락처 등 자세한 사항은 당진시와 보건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며, 응급의료정보제공 서비스 안내 시스템과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면 빠르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보건소 관계자는 "가정에 응급환자가 발생할 경우 국번 없이 119 또는 129로 연락하면 해당 지역의 의료기관 등 운영 상황을 안내받을 수 있다"며 "그래도 예기치 못한 응급상황을 대비해 각 가정에서는 집과 가까운 의료기관이나 약국을 사전에 숙지해 두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당진=최근수기자

아산시 건축과 'NEW 장보기' 행사

아산시 건축과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온양온천전통시장을 방문하여 'NEW장보기' 행사를 가졌다고 6일 밝혔다.

이날 행사는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시장 상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김종호 건축과장을 비롯한 직원 15명은 전통시장 내에 있는 식당을 이용하고 직접 물건을 구매하는 등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직접 들으면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장보기 행사에 적극 참여했다.

김종호 건축과장은 "앞으로도 질 좋은 지역농산물을 아산사랑 상품권으로 구매하고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보탬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신=리량주기자

우/리/동/네

자원순환 활동 공로 인정받았다

논산시, 자원순환의 날 기념식에서 대상 수상

논산시(시장 황명선)가 6일 인천광역시 송도 컨벤시아에서 개최된 제11회 자원순환의 날 기념식에서 대상(국무총리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시는 환경부와 국토교통부가 주최한 제10회 순환골재 · 재활용제품 우수활용사례 공모전 심사 결과 '순환골재 우수활용' 부문 대상으로 선정됐다.

심사 결과에 따르면,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에 필요한 관부설용 천연골재로 폐콘크리트를 재활용한 순환(재생)골재를 총 69249㎥ 사용하며, 3억80000여만 원의 예산을 절약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올해 실시된 자원순환의 날 행사에서는 자원순환 활동에 공로가 큰 기업과 지자체 등을 선정해 ▲순환골재 우수활용기관 ▲자원순환 선도 및 성과우수 사업장 ▲생활 및 음식폐기물 감량 우수활용 등 세 개 부문의 상을 시상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도로, 상하수도 공사 등 다양한 공정에 순환골재 활용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며 "자원순환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시 차원에서도 다양한 시책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환경부는 폐기물도 소중한 자원이라는 인식을 높이고, 생활 속 자원순환 실천의 중요성과 의미를 알리기 위해 지난 2009년 자원순환의 날을 지정했으며, 매년 9월 6일에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박정현 부여군수, 필승코리아 펀드 가입

박정현 부여군수가 6일 오전 NH농협은행 부여군지부를 찾아 소재,부품, 장비 분야 국내 기업에 투자하는 주식형 펀드인 NH-Amundi 필승 코리아 증권투자신탁 상품에 가입했다. '필승코리아 펀드'는 글로벌 무역여건 변화로 경쟁력 강화가 시급한 소재, 부품, 장비 관련 기업이나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국내 기업에 주로 투자하는 주식형 펀드이다. 이 펀드는 운용보수와 판매보수를 낮춰 그 수익이 기업에 돌아갈 수 있도록 설계됐다. 운용수수료의 50%는 공익기금으로 적립해 기초과학 분야의 발전을 위한 연구기관 등에 장학금과 사회공헌활동 기금으로 사용할 계획이다.

논산시 농촌교육농장 인증 교육 실시

자체 프로그램 개발 운영능력 향상 통한 활성화 도모

논산시농업기술센터(소장 장익희)는 지난 6월부터 9월까지 총 18회에 걸쳐 실시한 논산시 농촌교육농장(NS-에듀팜)인증 교육과정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이번 교육은 2016년 논산시 농촌교육농장(NS-에듀팜)인증 농가 중 재인증을 희망하는 농가와 신규인증 희망농가 11농가를 대상으로 농업기술센터 강의실 및 농촌교육농장 현장 등에서 이론과 실습을 함께 병행해 이뤄졌다.

학교 교과과정과 연계된 교육활동 프로그램을 통해 농업 · 농촌이 가지고 있는 교육적 가치를 활용, 교육농장을 내실화하는데 중점을 둔 교육으로 대상농가들의 역량강화는 물론 현장 감각을 키울 수 있는 시간이었다.

특히, ▲마인드맵 및 교육 매뉴얼 작성 ▲체험지도계획서와 시나리오 작성 ▲활동지 기획 및 운영실습을 통한 평가 등 현장 중심의 교육이 교육생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장익희 논산시농업기술센터소장은 "지속적인 정예화 교육을 통해 관내 교육농장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이를 발판으로 농촌교육농장 방문이 활발하게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농촌교육농장 운영을 희망하는 농장주는 농촌교육농장 인증 교육이수 및 교육환경 조성 등 학교 교육의 눈높이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조성과 역량 등의 조건을 갖춰야 하며, 자세한 사항은 기술지원과 농촌자원팀(041-746-8333)으로 문의하면 된다.

백제문화제 백제의 의식주를 즐긴다

9월 28일부터 10월 6일까지 9일간 부여군 구드래 일원에서 열려

대한민국 대표 역사문화 축제인 제65회 백제문화제가 오는 28일 성대한 막을 올린다. 이번 백제문화제는 '한류원조! 백제를 즐기다'라는 주제와 '백제의 의식주'란 부주제를 내세우며 9월 28일 부터 10월 6일까지 9일간 부여 구드래 백마강 일원에서 다채롭게 펼쳐진다.

올해 백제문화제는 특히 공간구성과 콘텐츠에 새로운 변화를 도모한다. 고대왕국의 완벽한 도성 체계와 국제도시의 면모를 지녔던 백제왕도 사비의 역사적 위상을 재조명하기 위해 공간구성에 심혈을 기울였으며, 부여 백제문화제만의 특성을 살린 대표 콘텐츠 발굴과 주요 프로그램 강화로 축제 정체성 확립에 중점을 두었다.

또한, 백제각희(씨름)대회, 백제농악대회, 백제물레경연대회, 민속연날리기, 그네타기 등 옛 프로그램의 부활로 축제 분위기 조성과 모든 연령층이 함께하는 참여형 콘텐츠 개발로 관람형에서 참여형 축제로 새롭게 변모하는 모습을 보여줄 예정이다.

개막 첫날인 28일은 백제성왕 사비천도! 사비대연회, 개막 축하공연 · 불꽃놀이 등 대백제의 부활을 알리는 개막식이 성대하게 열린다. 그리고 백제문화제의 시원인 수륙재의 역사와 의미를 보다 쉽게 전달할 수 있는 공연 · 참여형 행사로 '다시보는 1955 부여 수륙재' 수상 프로그램이 백마강 일원에서 진행된다.

백제의 역사와 문화를 재조명하고 사람과 함께 즐기는 축제를 기본방향으로 정하여 진취적 역사, 창조적 문화, 흥미와 재미를 구현할 해상왕국 구드래 국제교역항 코너에는 전통음식과 체험장을 운영하고 관람객과 소통할 수 있는 각종공연과 퍼포먼스가 펼쳐지며, 백제시대의 의식주 재현을 통하여 화려했던 사비 도성의 진면목을 체험할 수 체험프로그램도 준비되어 있다.

한편, 시내상권 활성화 차원에서 부여시내인 사비로부터 대형행사가 진행되는 구드래 주행사장까지 백제의 의식주를 보고 즐길 수 있는 야간경관조명 나들이 구간을 조성하고, 백제 사비도성의 숨은 자원을 찾는 과정을 RPG 게임으로 구현하여 관광객들이 게임을 진행하면서 각각의 공간마다 주제성을 담은 콘텐츠를 배치해 오감으로 즐기는 백제문화제를 실현하는데 집중했다.

더불어 백제시대 왕의 행차를 재현한 사비 백제왕 나들이!, 부모 자녀가 함께하는 수능 대박 백제힐링투어! 프로그램은 백제의 흥과 멋을 즐기며 과거와 현재, 미래를 만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특히 백제사비천도! 사비대연회는 흥과 멋을 즐기는 제65회 백제문화제의 첫 포문을 여는 행사로, 기존에 정적이며 일부 군민이 참여하는 제례형식을 탈피하여 사비천도 1481주년을 맞아 전체 관람객들이 함께 참여하는 흥겨운 한마당 잔치로 꾸며진다. 백제 성왕의 사비천도 행렬 퍼포먼스와 만복을 상징하는 사비떡 나눔행사는 관광객과 함께 호흡하는 가장 기억에 남을 축제의 장으로 펼쳐질 예정이다.

박정현 부여군수는 "백제문화제는 백제의 역사와 문화를 왜곡하지 않고 고증된 자료를 바탕으로 바르게 전달해야할 책무가 있다"라고 강조하며 "백제문화제 하면 생각나는 대표 프로그램 발굴과 선택과 집중을 통한 정체성 확립에 주력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부여=김성구기자

계룡시 구글 김태원 상무 초청 '자유학년제 진로특강'

'미래 사회의 변화와 창의적인 인재' 주제 강연

계룡시는 지난 5일 계룡문화예술의전당에서 관내 중학교 1학년 학생 650여명을 대상으로 '2019년 자유학년제 진로특강'을 운영했다.

자유학년제란 한 학년 동안 교과목 시험 없이 다양한 분야의 진로탐색 · 학습 기회를 제공해 학생들의 적성과 꿈을 찾고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을 길러주는 교육과정이다.

시는 4차 산업 시대와 미래 직업의 이해를 돕고자 구글 코리아 김태원 상무를 강사로 초청해 「미래사회의 변화와 창의적인 인재, 무엇이 차이를 만드는가?」를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최연소 구글 입사로 화제가 된 김태원 상무는 현재 고려대학교 미디어학부 겸임교수로 재직 중이며, 주요 저서로는 '젊은 구글러가 세상에 던지는 열정력' '생각을 선물하는 남자' 등이 있다.

tvN 스타특강쇼' MBC 희망특강 파랑새' 등 다수의 방송과 강연활동을 통해 창의적인 인재육성에 대한 중요성을 전하고 있다.

김 상무는 이날 강연에서 열린 마음으로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창의적 사고와 태도를 가져야 한다고 강조하며 자신의 다양한 경험과 생각을 전해 학생들의 공감과 호응을 얻었다.

시 관계자는 "이번 특강을 통해 아이들이 자신의 진로와 재능, 꿈에 대해 한번쯤 고민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하며 "앞으로도 계룡시 학생들이 미래 시대에 걸맞은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진로교육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계룡시는 관내 진로교육을 위해 명사 진로특강을 비롯한 진로체험관 탐방, 문화예술, 제빵 등 다양한 분야의 직업 체험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서천군 제4회 해랑들랑어울제 추진보고회 열려

람사르습지 도시 후보지 선정 앞두고 생태도시 서천 이미지 확립

서천군(군수 노박래)은 지난 6일 서천군청 대회의실에서 '제4회 해랑들랑어울제 추진보고회'를 개최했다.

서천군, 국립생태원, 국립해양생물자원관 3개 기관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해랑들랑어울제는 '서천으로 떠나는 도심 속 생태나들이'라는 슬로건을 걸고 오는 10월 4일부터 6일까지 장항읍 장항전통시장 일원에서 서천 지역민은 물론 서천을 찾는 관광객에게 생태환경의 신비와 자연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메시지를 전달할 계획이다.

주요 프로그램으로 현미경을 통해 자연의 신비를 직접 보고 학습할 수 있는 '해랑들랑 생태연구소'가 새롭게 신설되어 관광객에게 신선한 즐거움을 선사할 예정이며 화관 만들기, 생태꽃병 만들기, 지구 살리기 컬러링북 등 생태체험 프로그램도 운영할 계획이다.

이 밖에 쓰레기를 재활용한 '업사이클링 전시', 탐험가와 동식물이 함께하는 '동물음악대 퍼레이드', 작은 정글을 표현한 '생태터널', '주제 포토존', 생활 속 작은 생태 '시장 미션게임' 등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풍성한 콘텐츠를 준비하고 있다.

노박래 서천군수는 "4회를 맞이한 해랑들랑어울제가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서천갯벌 세계자연유산 등재 준비, 람사르습지도시 후보지 선정 등의 생태 관련 이슈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 해랑들랑어울제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서천을 많이 찾아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어르신들에게 듣는 생생한 논산의 문화와 역사

논산문화원(원장 권선옥)이 지역문화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근 · 현대 구술채록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충청남도(도지사 양승조)와 논산시(시장 황명선)가 지원하고, 충청남도문화원연합회가 총괄운영하는 '2019 근 · 현대 구술채록사업'은 문헌으로 기록되지 않고 구술로 전해지는 근 · 현대 역사와 문화를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통해 체계적으로 기록하고자 마련됐다.

현재, 강경 지역 어르신들의 근 · 현대 생활상에 얽힌 이야기를 통해 잊혀가는 강경의 번영했던 시기는 물론 관련된 문화와 역사에 관한 기록을 모으고 있다.

구술자는 70세 이상 된 어르신들로 강경에서 태어나거나 오래 사신 분 중 15명을 선정했으며, 영상과 사진 촬영 및 녹취를 통해 채록한 후 스토리텔링 기법을 통해 생생한 논산의 역사를 전달한다.

본 사업을 통해 논산 지역의 근 · 현대 역사문화의 발전상과 변천과정을 오롯이 파악하는 것은 물론, 지역문화의 정체성 확립과 시민의 자긍심을 고취하는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관계자는 ""지역민이 구술자로 참여할 수 있는 만큼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스토리텔링 원고는 향후 자료집으로 만들어질 계획이다.

동 정

본회의

최홍묵 계룡시장= 9일 오전 10시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리는 제137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참석.

사회복지시설 위문

노박래 서천군수= 9일 오전 10시 청소년수련관에서 열리는 서천군주민자치역량강화 워크숍에 참석, 오후 2시 추석 명절 사회복지시설(금매복지원 등 4곳)에 위문 방문.

간부회의

박정현 부여군수= 9일 오전 8시 30분 부여군청 서동브리핑실에서 열리는 간부회의에 참석.

서천군 2020년 시책구상 보고회 열려

서천군(군수 노박래)은 6일 군민평가단, 정책자문단, 관계 공무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0년 시책구상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시책구상은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대응하고, 국 · 도정 과제와 연계해 혁신성장 확산과 군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미래 시책 발굴 등에 중점을 두고 이뤄졌다.

이날 군은 단기사업 124건, 중장기사업 72건으로 구성된 196건의 시책을 발표했다.

특히 ▲인구, 일자리 · 안전, 복지 등 지역사회 여건에 맞는 수요 맞춤형 정책추진 ▲장항국가생태산업단지, 해양바이오, 브라운필드 등 새로운 미래 먹거리 산업 발굴 및 미래성장 동력 확보 ▲ 정부의 균형 발전, 지방분권 기조에 맞춘 선제적 대응을 통한 지역의 성장 방안 논의 등 효율적이고 짜임새 있는 방식으로 보고회를 진행했다.

주요 시책으로는 ▲ 서천군 미래 신성장 동력사업 역점 추진 및 자체 균형 발전 사업 추진 ▲한눈에 쏙쏙! 서천 노인복지 로드맵 구축 ▲유부도 닥터헬기 착륙장 설치 ▲서천 최초 국가 시험인증센터 유치 추진 ▲4차 산업(리모트센싱)을 활용한 맞춤형 첨단 정밀농업 육성 ▲ 장항 송림산림욕장 맥문동 축제 ▲ 서천사랑상품권 모바일 플랫폼 구축 ▲ 청년문화기획 활동가 공간 조성사업 ▲ 세대를 초월하는 한산모시 고급화 전략 ▲ 서천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상생 1번지 구현 등이 보고됐다.

군은 이날 보고된 시책들에 대해 정책자문단과 군민평가단의 다양한 제언과 의견을 수렴해 내용을 수정하고 보완한 후 타당성 높은 시책은 내년 예산에 반영한다는 복안이다.

노박래 군수는 "내년도 시책구상은 서천군정을 선도할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군민이 공감하고 체감할 수 있는 시책 발굴에 중점을 두고 있다"며 "2020년도에는 군의 발전된 모습과 주요 성과를 군민들에 보여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계룡시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 의견 접수

계룡시는 이달 23일까지 2019년 7월 1일 기준 조사, 산정한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별공시지가는 2019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 지목변경, 합병 등 토지 이동된 233필지를 표준 공시지가로 산정한 것으로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지번별 가격을 열람할 수 있다.

열람 및 의견 제출은 시청 민원봉사과 및 각 면 · 동사무소에서 확인, 접수하면 된다.

시는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이 제출한 의견에 대해 해당필지의 비교 표준지 가격, 인근 토지 지가의 균형 유지 여부 등 토지 특성을 재조사하고 평가사의 검증, 계룡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달 31일 최종 결정 · 고시할 계획이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시청 민원봉사과 토지정책팀(042-840-2373)으로 문의하면 된다.

동 정

충청남도지사 현장방문

김정섭 공주시장= 9일 오후 2시 고마일원에서 진행되는 민선7기 2년차 충청남도지사 현장 방문에 참석한다.

주간 현안 보고

김동일 보령시장 =9일 오전 8시 20분 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리는 주간 현안 보고참석, 오후 1시 충남정심원외 6개소에서 열리는 추석명절 사회복지시설 위문.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

맹정호 서산시장= 9일 오전 11시 서산문화회관에서 열리는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 및 한마음 축제에 참석, 오후 2시 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리는 대산석유화학단지 화학사고 대응전략 설명회에 참석.

금산전통시장 장보기 행사

문정우 금산군수= 9일 오후 12시 추석명절을 맞아 금산전통시장 장보기 행사에 참석.

만남의 행사

백옥희 공주교육지원청 교육장= 9일 오후 3시 30분 고마 컨벤션홀에서 열리는 공주시 발전과 공감대 형성을 위한 만남의 행사에 참석한다.

이장단 설명회

이진호 보령교육지원청 교육장= 9일 오전 10시 30분에 청소면사무소에서 열리는 2019 보령행복교육지구 청소면 이장단설명회에 참석.

신생아 살리기 모자뜨기 캠페인

서산시립 대산도서관(관장 이경식)은 국제아동권리기관 세이브더칠드런에서 진행하는 '신생아 살리기 모자뜨기' 캠페인에 참여해 직원들과 도서관 이용자들이 손수 만든 13개의 신생아 털모자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신생아 살리기 모자뜨기'는 제3세계 저개발국의 신생아를 위해 후원자들이 직접 모자뜨기 키트를 구입해 후원하는 참여형 기부 캠페인이다.

이번 캠페인을 통해 전달된 신생아 털모자는 대산도서관에서 지난 4월 도서관주간 행사 중 제작된 것으로, 초등학생 3학년부터 중·고등학생, 도서관 직원 등이 뜨개질을 직접 배워 만들었다.

대산도서관 관계자는 "도서관 직원들 뿐만 아니라 도서관 이용자들이 함께 참여해 더욱 의미가 있었다"며 "향후에도 건전한 기부문화를 확산할 수 있는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발굴 및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산=김정한기자

금산군, 지역식품산업표준화 시스템 구축사업 선정

제2단계 균형발전 공모사업 259억 원 확보

금산군이 제2단계 균형발전 경쟁공모사업으로 응모한 '지역식품산업표준화 시스템 구축사업'이 확정돼 총 259억 원(국비 129억 원, 도비 65억 원, 군비 65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

균형발전사업은 평가지표에 따라 선정된 충남도내 저발전 시군을 대상으로 추진된다. 제1단계 사업은 2008년 시작됐으며 2020년 마무리에 들어간다.

제2단계 균형발전사업은 2021년부터 2030년까지 10년간 추진될 계획으로 금년 5월 금산을 포함한 도내 9개 시군이 사업대상지로 선정됐다.

금산군은 2단계 제1기(2021년~2025년) 경쟁공모사업으로 금산의 인삼약초 등 식품산업을 책임질 지역특화 사업 '지역식품산업 표준화시스템 구축사업'을 지난 8월 신청한 바 있다.

충남도내 9개 시군과 경쟁을 거쳐 지난 9월 5일 최종 낙점 받았다.

이 사업은 제조가공업체의 제품생산에 필요한 기술(표준공정, 테스트베드, 품질개선)지원과 안전원료삼 확보 제고를 위한 플랫폼 구축 등 경영체의 지속발전 경쟁력 제고를 위해 마련됐다.

특히 지역 특화 작물인 인삼약초뿐만 아니라 지역식품산업의 헤드쿼터 기능이 구축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금산지역 식품산업의 신성장동력으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문정우 금산군수는 "이번 경쟁공모 사업 선정으로 제조가공업체의 지속가능한 발전구조를 형성하고 소상공인들의 역량강화를 통한 경쟁력 확보로 소득을 창출하는 경제선순환 구조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전략적인 발전방안을 모색해 사업의 완성도를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금산=주연기기자

공주시 태풍 '링링' 대비 대처상황점검회의

부서별 태풍 대처상황 점검… "안전사고 예방 만전" 당부

공주시(시장 김정섭)는 6일 오전 시청 중회의실에서 관련 부서장 및 읍면동장이 모인 가운데 제13호 태풍 '링링' 북상에 따른 대처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시는 이날 회의에서 태풍이 공주지역에 미칠 영향을 파악하는 한편, 태풍 대비와 관련해 관련 부서장과 읍면동장으로부터 태풍 대비 태세와 현재 상황, 분야별 조치계획 등을 논의했다.

이와 함께 △지하차도 침수지역 △인명피해 우려지역 및 산사태 취약지역 사전점검 △주요 농작물 및 시설물 피해예방 △각종 재난 예경보시설 점검 등 부서별 대처상황을 점검했다. 공주=정상범기자

보령시 추석 연휴 비상진료체계 가동

보건기관 · 병원 · 약국 등 54개소 운영

보령시는 추석 연휴기간 주민과 귀성객, 관광객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고향과 관광지를 다녀갈 수 있도록 오는 15일까지 비상 진료체계를 가동한다.

이는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고 감염병 등 응급환자 발생 시 신속한 대처를 위한 것으로, 보건소와 보건지소 등 9개 공공의료기관과 보령아산병원 등 응급의료기관, 병·의원 등 당직 의료기관 20개소, 약국 24개가 참여한다.

신제일병원, 중앙유병원, 삼육오연합의원, 대천한의원은 4일 무휴로 운영하고, 보령아산병원과 참산부인과의원은 기간 중 매일 24시간 응급의료 및 응급분만을 지원한다.

약국은 동대감초당 약국과 대영약국(동대동), 일등약국(웅천읍), 어항약국 및 광장약국(신흑동), 현대약국 및 실로암약국(대천동), 팜플러스약국(죽정동) 등이 무휴로 운영한다.

시 보건소(남포)는 무휴, 12일에는 성주면보건지소와 원산도보건진료소, 13일에는 웅천 및 교성보건진료소, 14일에는 주교보건지소 및 효자도보건진료소, 15일에는 청라면보건지소 및 외연도 보건진료소가 각각 운영된다.

또 벌초 및 성묘에 따른 야외활동 증가로 쯔쯔가무시병 발병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이른 명절 시기로 음식 공동섭취 및 장기간 상온 방치에 따른 식중독 발병 위험 또한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박승필 보건소장은 "시민과 귀성객들의 응급상황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비상진료 체계를 가동하게 됐다"며, "개인위생의 철저한 관리를 기울여 주시고, 위급상황 발생 시에는 가까운 의료기관을 꼭 방문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의료기관 운영 현황 및 진료일자 시간은 보령시 보건소 홈페이지 및 응급의료정보센터(http://www.e-gen.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보령=김정미기자

공주시 농업인 세무교육 호응

경영 · 실생활에 필요한 교육 다양하게 실시

공주시(시장 김정섭)는 지난 5일 농업기술센터에서 관내 농업인과 청년 창업농, 귀농인 등 80여명을 대상으로 농업인 세무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세무교육은 세무법인 제이앤 소지훈 세무사가 강사로 나서 농업 관련 세법과 특별한 세제 혜택 그리고 절세 전략 등에 대해 쉽고 재미있게 교육을 진행해 큰 호응을 얻었다.

교육생들은 세무관련 법령이나 처리 절차, 상속에 따른 세금 감면과 절세방법에 대해 많은 관심을 보였으며, 교육 후에도 질의응답을 통한 열띤 상담시간을 가졌다.

류승용 농촌진흥과장은 "우리 농업인에게 경영이나 실생활에 필요한 교육을 다양하게 실시해 급변하는 시대에 생존역량을 강화하고 시장변화에도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공주=정상범기자

우/리/동/네

찾아가는 주민지원서비스센터

공주시 '이동복지관' 출발

공주시(시장 김정섭)는 지난 5일 신풍면 입동리 마을회관을 시작으로 하반기 '찾아가는 주민지원서비스센터 이동복지관' 운영에 본격 돌입했다.

공주기독교종합사회복지관에서 주관하는 '찾아가는 주민지원서비스센터 이동복지관'은 읍'면'동 지역 24개 마을회관을 찾아가 보건의료와 복지문화, 일상생활지원 등의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특히 올해는 공주의료원과 공주시자원봉사센터, 충남전기안전기술단 등 민관 단체가 참여해 양방진료와 물리치료, 영양상담, 이'미용, 세무상담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올 상반기 동안 이동복지관 서비스를 이용한 주민은 모두 4014명으로 집계됐다.

시는 이동복지관을 운영하며 주민 의견을 상시 수렴해 주민들의 삶속에서 필요한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할 계획이다.

주병학 복지정책과장은 "앞으로도 지역민들의 건강과 행복한 삶을 위해 다양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민'관 단체에서 자원봉사자 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셔서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공주=정상범기자

금산군 추석 연휴기간 비상진료 대책 만전

금산군보건소는 추석연휴기간인 9월12일~15일까지 나흘간 응급환자 발생에 대비하고 군민과 귀성객의 진료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상진료대책 상황실을 설치 운영하고 비상진료를 실시한다.

또 응급의료시설 1개소와 민간의료기관 5개소, 공공보건의료기관 11개소, 약국 16개소를 연휴기간 중 비상진료 의료기관과 휴일지킴이 당번약국으로 지정 · 운영해 연휴기간 진료공백 방지 등 군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할 예정이다.

특히 당직의료기관인 새금산병원을 중심으로 응급환자 및 대량환자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24시간 응급진료체계 유지와 대응태세를 강화키로 했다.

의료기관과 약국을 방문하기 어려운 심야시간대에는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소로 신고 된 24개소(24시간 운영되는 편의점)에서 해열진통제, 소화제, 감기약 등 안전상비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추석 연휴 기간 중 운영하는 비상진료의료기관과 휴일지킴이약국 명단은 군청, 보건소, 중앙응급의료센터(www.nemc.or.kr)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볼 수 있으며 보건소에 문의 시(041-750-4323) 상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맹정호 시장, 추석 명절 맞아 어려운 이웃 위문

따뜻한 사회분위기 조성

서산시(시장 맹정호)가 추석 명절을 맞아 주위에 어려운 이웃을 배려하는 따뜻한 사회분위기 조성에 노력하고 있다.

서산시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저소득층 453가구(수급자 중증장애인 366가구, 통합사례관리 대상 87가구)와 복지시설 22곳을 방문해 식료품과 생필품 등 위문품을 전달했으며, 충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 어려운 이웃 1,128세대에 위문금도 전달했다고 밝혔다.

특히, 6일에는 맹정호 서산시장이 저소득 중증장애인 가정과 샤론노인요양원 시설수급자 어르신들을 직접 찾아 위문품을 전달하고 어르신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으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봉사하는 복지시설 관계자와 종사자들을 격려하고, 복지시설 현장 목소리를 듣는 소통의 시간도 가졌다.

맹 시장은 "명절이 되면 저소득층이나 시설입소자들은 더 큰 소외감을 느끼기 쉽다"며 "주변의 어려운 이웃 돕기에 시민들이 적극 동참해 따뜻하고 정이 넘치는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사랑과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서산 =김정한기자

금산 진산면 의혼 향토방위전사자 추모제

"숭고한 호국정신 본받아 나라사랑 정신으로 계승 발전"

금산군 진산면은 지난 4일 읍내리에 위치한 의혼탑에서 제63주년 의혼 향토방위전사자 추모제(이하 '의혼 추모제')를 가졌다.

향토방위전사자 추모 추진위원회(회장 정재근) 주관으로 실시된 이번 추모행사는 6.25 참전동지회 회원들과 유족, 기관단체장. 학생, 마을주민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서명하 진산면장의 초헌례를 시작으로 최명운 진산농협장의 아헌례, 진성학 이장의 종헌례 순으로 진행되었다.

의혼 추모제는 6.25전쟁 당시 향토방위를 위해 무명용사로 참전하여 산화한 호국영령 34인의 희생정신을 기리기 위한 것으로 매년 9월 15일 의혼탑에서 개최된다.

서명하 진산면장은 "의혼 추모제를 통해 34인의 넋을 기리고 숭고한 호국정신을 본받아 나라사랑 정신으로 계승.발전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금산=김정환기자

당진화력본부 '최고품질 발전소 입증하다'

전국 품질분임조 경진대회 금상 3팀 · 은상 1팀 수상

한국동서발전(주)당진화력본부(본부장 박윤옥)는 지난 8월 26일부터 30일까지 경남 거제시 대명리조트에서 진행된 제45회 전국 품질분임조 경진대회에 4개 팀이 출전해 대통령상인 금상 3개와 은상 1개를 수상했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가 후원하고 한국표준협회가 주관하는 전국 품질분임조 경진대회는 산업현장의 품질 혁신과 개선을 위해 13개 부문별로 공공기관 및 대 · 중 · 소기업이 경연을 펼치는 산업계의 전국체전이다.

당진화력본부는 '지속혁신'이라는 기치 아래 품질분임조 및 6시그마 활동 등 사내 혁신 활동을 통해 설비운영 능력 향상 및 발전 원가 절감을 이루어나가고 있으며, 이러한 성과를 국내에 알리고자 품질분임조 대회에 꾸준히 참가하고 있다.

당진화력본부는 지난 6월 충남지역 품질분임조 경진대회에 8개 팀이 참가해 4개 팀이 전국대회 출전권을 얻었으며, ▲사택 보수 프로세스 개선(사무간접 부문) ▲보일러 및 터빈 제어밸브 개선(안전품질 부문) ▲석탄 이송공정 컨베이어 설비 개선(현장개선 부문) ▲터빈 베어링 지지대 가공(제안사례 부문) 등 총 4개 주제로 전국대회에 출사표를 던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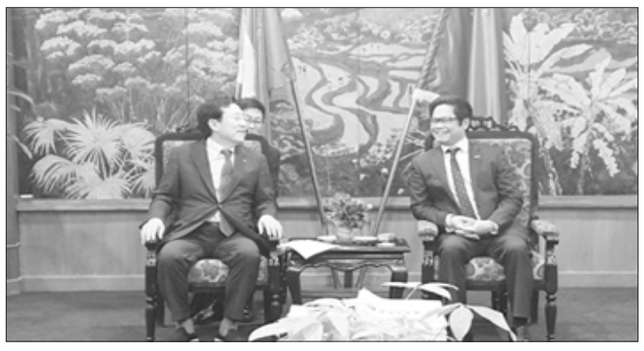
전국에서 총 298개 8000여 명의 분임조가 참여한 가운데, 당진화력 참가팀들은 3개의 금상과 1개의 은상을 수상하며 역대 최고 성적을 올리게 됐다.

특히 현장개선 부문에서 대통령상 은상을 받은 「품생품사」 분임조의 석탄 이송공정 설비개선의 경우 벨트 롤러의 회전체 재질을 변경해 발열과 부식을 억제해 고장 발생빈도를 줄였으며, 벨트에 묻어 있는 석탄 분진을 제거하는 과정을 자동화해 주변 비산먼지 및 낙탄 등을 획기적으로 줄여 친환경적인 설비개선 사례로 평가받았다.

당진=최근수기자

서산시, 보육정책위원회 위원 위촉 서산시(시장 맹정호)는 오는 14일로 서산시 보육정책위원회 위원들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지난 5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서산시보육정책위원회를 열고 보육정책위원을 위촉했다. 위원회는 보육전문가, 어린이집 보육교사, 학부모대표, 관계공무원 등 14명으로 구성됐다.

한남대대학일자리센터-여성가족부, 2019 청년여성멘토링 멘토링의날 TALK CONCERT 한남대학교(총장 이덕훈)는 '2019년 청년여성멘토링 멘토링의날 TALK CONCERT'를 5일 한남대학교 무어아트홀에서 개최했다. 여성가족부가 주관하고 한남대 대학일자리센터가 후원한 이번 청년여성 멘토링 행사는 대학(원) 여학생, 사회초년 여성, 취업 준비 여성 등 청년 여성 약 50여명이 참석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베트남 상공회의소 회장 간담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6일 9시 45분(베트남 하노이 현지시간) 김기문 회장을 비롯한 서병문 수석부회장 등 중소기업대표단 20명과 함께 베트남 하노이에 있는 베트남 상의(VCCI)를 방문, 브티엔록(Vu Tien Loc) 베트남 상공회의소 회장과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8일 밝혔다.

이숙희씨,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수상 충청남도 주관으로 지난 5일, 예산군 스플라스리솜에서 제20회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이 열린 가운데 나눔실천에 앞장선 아산시 이숙희씨가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홍성군 홍보대사 9인, 전국에 '명품 홍성' 알린다 충남 홍성군은 지난 6일 국제단편영화제, 홍성한우, 내포천애 등 홍성군의 대표 축제 및 브랜드를 홍보하기 위한 무보수 명예직 홍성군 홍보대사 9인을 위촉했다.

대전동구재향군인회, 추석맞이 이웃돕기 대전동구재향군인회(회장 송재열)는 지난 6일 오후, 동구 신인동 행정복지센터를 찾아 추석명절을 맞이해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해 달라며 포도 25상자를 전달했다.

아산폴리텍대, 반도체디스플레이과에 10억원 예산 투입

'2019년도 미래성장동력 학과' 선정

한국폴리텍대학 아산캠퍼스(학장 장우영. 이하 아산캠퍼스) 반도체디스플레이과(학과장 정지학)는 학교법인 한국폴리텍대학(이사장 이석행)이 선정한 '2019년도 미래성장동력 학과로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이는 폴리텍대학 반도체특화 사업의 일환으로 아산폴리텍 반도체디스플레이과는 반도체 후공정 특화(패키징, 측정)에 적합한 인재를 양성하고, 반도체 후공정에 대한 간접경험과 폴리텍대학에서 추진하는 러닝 팩토리(Learning Factory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하기 위해 전공분야의 융합교육에 앞장서고자 제품 생산의 전체 공정이 한 곳에서 연결되도록 다양한 교과의 실습 장비를 한 곳에 갖춘 통합 실습장)의 방향과 일치한 세미 클린룸(Semi-Clean Room) 수준의 실험실을 올해 안에 만들 예정이다.

이를 위해 정부로부터 10억 원의 예산을 지원받아 반도체 후공정 관련 특화 실습실과 비디오 현미경 시스템, 다이 본더(Die Bonder), 와이어 본더(Wire Bonder), 프로브 스테이션(Probe Station) 등과 같은 반도체 후공정 관련 실습 장비를 구축할 계획이다.

아산캠퍼스 반도체디스플레이과는 인근에 위치한 삼성전자가 평택 고덕 산업단지에 최첨단 반도체패키징(Packaging) 생산기지를 건설 중에 있고, 반도체 핵심 후공정 분야 중에서 반도체 테스트 · 패키징 전문 외국계기업(엠코 테크놀러지 코리아, 스태츠 칩팩 코리아, ASE 코리아) 및 중견기업(하나마이크론, 네패스, 시그네틱스)들의 인력수요가 증대되고 있다. 또한 반도체의 고사양화로 반도체 테스트(Package test)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반도체 미세공정 한계의 대안으로 패키징(반도체 후공정) 기술과 반도체 장비 국산화를 위한 공정 장비의 제어 설계 기술이 요구되고 있다.

학교관계자는 "현재 반도체디스플레이과는 반도체 후공정 기술과 공정 장비 제어 설계의 비중이 점차 높아지는 산업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추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아산캠퍼스 반도체디스플레이과는 4차 산업혁명에 맞추어 반도체 산업에서 요구하는 지역수요자 중심의 혁신주도형 기술인재양성이 가능할 전망이다.

전공에 대한 입시상담과 학과에 대해 자세한 사항은 학과 041) 539-9411 또는 교학처 539-9424로 문의 바라며, 현재 2020학년도 신입생을 모집하고 있다.

아산=리량주기자

공주시, 충남도 모유수유아 선발대회 4명 수상

공주시(시장 김정섭)는 지난 5일 온양그랜드호텔에서 개최된 제18회 충청남도 건강한 모유수유아 선발대회에서 공주시 대표로 출전한 아기 4명 모두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날 대회에서 신관동 송아란(5개월, 여) 아기가 3등인 건강한 아기상을 수상했고, FND넷상에 주이현(5개월, 여), 퀸즈 산부인과상에 신연우(4개월, 여), 윤도윤(6개월,남) 아기가 선정됐다.

이번 선발대회는 (사)대한간호협회 충남간호사회 주최로 도내 15개 시`군에서 1차 선발된 49명의 아기들이 참가했으며, 아기의 신체계측과 발달상태, 모아 상호작용, 모유수유 실천 정도 등을 심사해 건강한 모유수유아를 선발했다.

한편, 시는 임산부를 위한 모유수유클리닉 운영과 출산 친화프로그램을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12까지 보건소에서 국제모유수유 전문강사를 초빙해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소 건강과 모자보건팀(☎041-840-8836)으로 문의하면 된다.

공주=정상범기자

대전대, 제16회 전문간호사 자격시험 7명 전원 합격

대전대학교(총장 이종서) 일반대학원 가정전문간호사 과정 학생들이 최근 '제 16회 전문간호사 자격시험' 에 전원 합격이라는 쾌거를 안았다.

한국간호교육평가원(보건복지부)에서 주최 및 주관한 '전문간호사 자격시험'은 의료기관이나 지역사회 내 간호대상자(개인, 가족, 지역사회)들의, 전문가적 간호 제공을 위한 목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시험이다.

현재 인정되고 있는 전문간호사 분야는 가정을 비롯한, 감염관리와 노인 및 응급, 임상 등 총 13개 분야로, 대전대는 '가정' 분야 시험에 응시했다.

전은영 교수의 지도하에 시험공부에 몰두한 이들은 지난 7월 1차 시험에 당당히 합격했으며, 이어 지난달 25일에 치뤄진 2차 최종시험에도 7명 전원이 합격하며, 대학의 위상을 높이 알렸다.

현재 대전대가 운영 중인 '가정전문간호사' 과정은 충청경상권 내 유일한 개설대학이며, 전국에서는 5개 대학교만이 개설됐다.

특히 충남대학교와 건양대학교, 을지대학교 병원은 물론 수도권의 국립 암센터와 경희대학교 및 아주대학교, 인하대학교 병원 등 다양한 경험을 쌓을 수 있는 실습지를 확보한 상태이기도 하다.

대전대에 따르면, 합격한 학생들은 향후 병원이나 시설 및 센터 등에서 가정전문간호사로서 활약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김정환기자

2019 새마을문고지도자 교육 실시

지난 5~6일 1박2일간 60여명 참여

새마을문고충청남도지부는 지난 5일부터 6일까지 1박2일간 새마을문고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2019 새마을문고지도자 교육」을 임동규 충청남도새마을회장을 비롯한 도단체장, 시 · 군 문고회장단, 문고관계자와 회원 등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태안군 꾸지나무골펜션에서 개최했다.

이번 문고지도자 교육에서는 ▲독서새마을운동에 헌신해 온 8명의 문고지도자들에 대한 시상과 ▲ 독서치료전문가인 김선순 강사의 "독서치료의 이해와 독서의 이유"에 대한 특강이 ▲라동수 새마을문고당진시지부 회장의 "당진독서동아리 활동"에 대한 사례발표 ▲문고운동 및 조직활성화방안 토론 등으로 진행됐다.

시군새마을문고 조직활성화방안 토론에서는 문고운영의 변화를 모색하기 위한 △피서지 문고 활성화를 위한 독서 · 문화공간 운영방안 △길위의 인문학 가족과 함께하는 독서문학기행 △문고회원 전문성과 활동력 강화를 위한 문고지도자 교육 △찾아가는 인문학 가족퀴즈대회 △독서생활화를 위한 대통령기 독서경진대회등 문고조직과 독서문화활성화를 위한 역점사업을 설정하고 주민이 계획하고 참여해 함께 이루어 가는 문화운동을 추진하기로 했다.

유기복 도문고 회장은 인사말에서 "전기기기와 미디어의 발달로 요즘 책을 통한 독서인구가 줄고있어 안타까운 때에 문고지도자가 앞장서서 책을 통한 소통, 행복한 나눔과 어울림, 건강한 문화운동에 앞장서 줄 것"을 당부했다.

송병배기자

"심훈 상록수 희망과 사랑을 품다"

제43회 심훈 상록문화제 개최

제43회 심훈 상록문화제가 오는 20일부터 22일까지 당진시청 일원에서 개최된다.

사단법인 심훈 상록문화제 집행위원회(위원장 이철수)는 올해 심훈 상록문화제는 "심훈 상록수 희망과 사랑을 품다"는 타이틀로 시민화합을 위한 공연과 기획행사 및 체험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올해는 심훈 선생이 경성 고등 보통학교에 3학년으로 수학하시다 3 · 1운동에 참여해 서대문형무소에 투옥된 지 100년이 되는 해이자 임시정부 수립의 100주기가 되는 뜻깊은 해이기도 하다.

이에 심훈 상록문화제에서는 당진시 문화재팀과 공동 주관하는 <심훈 시 전시>와 더불어 독립기념관의 <어린이를 위한 이야기 독립운동사> 전시, 집행부의 <심훈, 다시 알기> 등 심훈 선생님과 독립의 역사를 보고 알릴 수 있는 볼거리를 준비할 예정이다.

그 외에도 <심훈 전국 시낭송대회>, <심훈 야구대회>, <심훈 청소년 풋살대회> 등 시민이 주도하고 참여하는 각종 대회의 준비를 비롯 <심훈 버스킹>이 9월 19일 시작으로 당진 관내 일대를 순회하며 심훈 상록문화제의 개최를 당진시 전역에 알릴 예정이다.

당진=최근수기자

KT&G '2019 KT&G 상상마당 창작 캐릭터 공모전' 실시

9월 29일 모집 마감…선정 작가에 상금 및 지속적인 지원 제공

KT&G(사장 백복인)가 복합문화예술공간인 'KT&G 상상마당'을 대표하는 캐릭터를 선정하기 위해 '2019 KT&G 상상마당 창작 캐릭터 공모전'을 오는 9월 29일까지 모집한다. 이번 공모전은 KT&G 상상마당을 상징하는 대중적이고 친밀한 캐릭터를 선정해 음악, 영화, 전시 등 다양한 문화예술지원사업에 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획됐다.

대한민국 국민 중 만 14세 이상이면 누구나 공모전 참여가 가능하다. 개인 또는 단체로 참여가 가능하며, 출품작 수 제한 없이 접수할 수 있다. 다만 출품작은 저작권법 등 관련 법률을 준수해야 하고, 다른 공모전에 출품 이력이 없는 순수 창작물이어야 한다. 자세한 공모 요강은 KT&G 상상마당 홈페이지(https://www.sangsangmadang.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레저용품 전문점
MSL 명성레포츠
스키 · 스노보드 · 사이클 · MTB · 수상스키
웨이크보드 · 보디보드 전문점 · 골프용품
대표이사 최 재 종
대전광역시 서구 탄방동 1478-6 TEL : (042)488-3030 · 486-7676
FAX : (042)472-5885 H · P : 011-408-6600 Website : www.mslsports.co.kr

대전도시공사 임직원, 추석 앞두고 법동 한마음 아파트서 봉사활동 대전도시공사는 노사공동으로 6일 오후 대전시 대덕구 법동 한마음 아파트 복지관에서 유영균 사장과 조성민 노조위원장등이 참석한 가운데 영구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노인들을 초청해 송편 빚기 봉사활동을 펼치고 참여한 어르신들께 추석선물을 증정했다.

한국폴리텍 대전캠퍼스 세종교통사관학교 입교식 개최 한국폴리텍IV대학 대전캠퍼스는 4일 오후 2시 세종분원에서 '2019년도 세종교통사관학교 2회차 입교식' 을 거행했다.이날 개최된 세종교통사관학교 2회차 입교식에는 한국폴리텍대학 대전캠퍼스 박찬술 교무기획처장, 세종특별자치시 이강진 정무부시장, 세종도시교통공사 고칠진 사장 등이 참석하였다.

대한적십자사 충남지사, 태안군 취약계층 163세대에 식료품세트 전달 대한적십자사 충남지사(회장 유창기)는 지난 5일 태안군청(군수 가세로)에서 태안군취약계층을 위해 식료품 163세트를 전달했다.

농협중앙회 충남지역본부 당진에서 나눔 동참 농협중앙회 충남지역본부 조소행 본부장은 지난5일 당진시청을 방문해 추석 명절어려운이웃을 위해 써 달라며 1000만원 상당의 목우촌 햄 세트를김홍장당진시장에게 전달했다.

천안시어린이집연합회, 천안시민 1만명 행복천사 동참 천안시복지재단은 천안시어린이집연합회 소속 어린이집 20곳이 지난 4일 천안시민 1만명 행복천사에 단체로 가입했다고6일 밝혔다.

대전 · 충남재향군인회, 사업예산 및 회무지침 교육 대전 · 충남재향군인회(회장박재운)는 지난6일 오전, 향군회관 4층 강당에서 대전 · 충남 21개 시 · 군 · 구회 회장과 사무국장을 대상으로 본회 조직국장(이양구 예. 육군소장)으로부터 2020년 사업예산 편성 순회교육 및 회무능력 향상을 위한 회무지침 교육도 함께 실시했다.

건양대 대학혁신지원사업단 · 휴머니티칼리지

'양승조 충남도지사 초청 특강'

건양대학교(총장 이원묵) 대학혁신지원사업단과 휴머니티칼리지가 5일논산 창의융합캠퍼스 명곡정보관 무궁화장홀에서 양승조 충청남도지사를 초청해 '청년의위기극복을 위한 소통간담회-청년과통(通)하다' 라는주제로 특강을 진행했다.

현대사회에 놓인 청년의 위기상황을 이해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비책을 강구하고자 진행된 이번 특강은 이원묵 건양대총장을 비롯한 이규환 기획처장 등 대학 관계자와 재학생 120여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양승조 도지사는 "대한민국은 현재 사회양극화, 고령화, 저출산이라는 3대위기에 직면하고 있다"며 "이를극복하기 위해 정부의 노력은 물론 사회 각계각층, 특히 청년층의 위기의식과 해결을 위한 노력이 요구되고있다"고 말했다. 이어 양 도지사는 "충청남도는 '더불어잘사는충남', '어르신들이행복한 충남 ', '아이키우기 좋은 충남' 을도정의 기본 목표로 삼고있다"며 "3대위기를 극복해 더 행복한 충남을 만들도록 노력할 것"이라고덧붙였다.

이밖에도 양 도지사는 즉석에서 특강 참석자를 대상으로 질문을 받으며 소통하기도 해 눈길을 끌었다. 특히 이번 특강은 건양대 대학혁신지원사업단에서 3대혁신과제로 선정한 '교육혁신', '대학혁신', '지역혁신' 사업 중 '지역혁신사업' 과제 수행에 있어 관 · 학의협력과 상생 방안을 찾는데 일조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더했다.

특강을 진행한 건양대 관계자는 "지역대학으로서 현대사회의 위기를 직감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하는 지 알 수 있는 시간이었다"며 "양질의교육을 통해 우수한 인재를 사회에 진출시켜 현대사회의 위기를 극복할 인재양성의 요람이 될 수있도록 노력 할 것"이라고밝혔다.

이번 특강에 참석한 군사학과 김명철 씨(2학년)는 "대한민국의 위기 극복을 위한 충청남도의 노력을 알 수 있었다"며 "미래사회를이끌어갈 청년으로서 대한민국이 위기를 극복하는데 일조할 수있도록 노력하겠다"고말했다.

이정복기자

아산시교통장애인협회, 추석 맞아

교통 장애인 50여명에 추석 선물

아산시교통장애인협회(회장 이준열)에서는 6일, 추석을 맞아 교통장애인 50여명에게 추석선물을 전달했다. 이날 참석하지 못한 교통장애인들은 직접 가정을 방문해 추석선물을 전달했다.

이준열 회장은 "작은 선물이지만 교통장애인들이 행복한 추석명절이 되기를 바란다"며, "보이지 않는 곳에서 지원해 주시고 수고를 아끼지 않는 후원자와 감시단원 · 협회 직원분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아산=리량주기자

서산시 대산읍 새마을지도자, 예초작업

서산시. 대산읍. 새마을남여지도자협의회에서는지난 4일과 5일 5. 추석맞이 주요도로변 예초작업을 실시 했다.

회원들은 이틀 동안 비가 오는 와중에도 벌말과 삼길포 일원 주요도로변 예초작업을 진행해 추석을 맞아 고향을 방문하는 귀성객들에게 청결한 고향의 이미지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최은환 대산읍장은 추석 전까지 무연고 묘지 벌초 및 마을안길 예초작업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산=김정한기자

장애인고용공단 대전본부,장애인재활시설에 추석 맞이 위문금 전달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대전지역본부는 추석 명절을 맞이해 사회공헌의 일환으로 지난5일 정신장애인재활시설 햇살한줌에 위문금을 전달했다. 이번 위문에 대전지역본부전 직원이 모금에 한마음으로 참여해 온누리 상품권을 전달했다.

군문화엑스포조직위 – 충남도교육청

엑스포 성공 개최 위한 업무협약

충남도교육청이 2020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 성공 개최를 위해 힘을 보태기로 했다.

군문화엑스포조직위원회 공동위원장인 양승조 지사는 6일 도청 상황실에서 김지철 교육감과 엑스포 성공 개최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르면, 조직위는 도교육청 산하 각급 학교 학생들이 군문화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창의적인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도교육청은 군문화엑스포가 학생들에게 군문화를 관람하고 체험하는 뜻깊은 학습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키로 했다.

양승조 지사는 "군문화엑스포는 6.25전쟁 발발 70년이 되는 해에 세계 유일 분단국가에서 펼치는 평화의 한마당으로, 세계 평화와 인류의 행복을 지키는 중심에 우리 군이 있음을 알리는 중요한 행사"라며 "이번 도교육청과의 협약은 군문화엑스포 성공 개최를 위한 의미 있는 발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철 교육감은 "군문화엑스포는 현장 체험학습과 평화안보 교육에 더 없이 좋은 행사"라며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정환기자

현대제철, 민 · 관과 상생하며 호안공사

선착장 공사에 필요한 테트라포트 900개 지원 등

현대제철이 지역 어촌계와 상생협력을 바탕으로 투기장 호안 조성공사를 진행키로 했다. 협력 차원에서 석문 선착장 부두 공사에 사용되는 테트라포트를 지원한다.

당진시, 현대제철, 가곡 어촌계, 실어민회는 지난 6일 현대제철에서 '상호 지원 협력' 에 관한 약정식을 가졌다.

현대제철은 당진시가 주관하는 석문 선착장 부두 보강공사에 필요한 테트라 포트(T.TP) 900개와 자재 운반 · 거치 비 등 약 5억 원 상당을 지원한다.

또한 호안 조성공사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현대제철 소유 성구미 방파제 내 어선의 임시 정박을 최대한 허용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어민들은 공사기간 동안 대체 정박지를 확보할 수 있게 됐으며, 석문 선착장 보강 공사가 완료되면 안정적인 정박시설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번 약정은 제철소 인근 지역 어민 의견을 적극 반영해 이루어졌으며 상호 상생 협력의 의미를 담고있다.

당진=최근수기자

Daejeon Today 광고문의 042)538-3030

공주시, 제12회 치매 극복의 날 기념식 개최

공주시(시장 김정섭)는 지난 5일 시 보건소에서 제12회 치매극복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치매, 안심하세요! 함께 극복해요' 라는 슬로건으로 열린 이날 기념식은 공주 자원봉사단체 소속 적십자봉사회와 중동성당봉사회원, 일반시민 등 1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시 보건소는 치매 조기검진의 중요성과 치매 예방을 위한 체험활동을 실시하고, 치매 검진'상담'홍보 부스와 건강체험 홍보관을 운영하는 등 건강에 대한 정보와 중요성을 알리는 시간을 가졌다.

김대식 보건소장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치매 인식개선 활동을 확대하고, 치매 조기검사를 통한 관리로 치매 환자와 그 가족들의 삶의 질 제고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공주=정상범기자

한밭대, 4차 산업혁명 선도 인력 양성 사업 연속 선정

국립한밭대학교(총장 최병욱)는 지난 2일 고용노동부의 2019년 하반기 '4차 산업혁명 선도인력 양성 사업' 훈련기관 공모에서 대전에서는 유일하게 연속 선정되었다.

이로써 2019년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사업을 지속하게 되었으며, 약 2억 5천만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아 2020년 6월까지 스마트팩토리 인재 20명을 추가로 육성하게 된다.

한밭대는 이번 사업을 통해 스마트제조공정시스템 전문가(Expert)과정을 운영하며, 총 134일 900시간동안 기계기구, IoT, SW, 네트워크 융 · 복합 교육훈련을 실시하여 4차 산업혁명 신산업분야의 전문적인 실무인재를 양성할 계획이다.

김정환기자

농심 아산공장, 추석맞이 후원물품 지원

㈜농심 아산공장(공장장 김상훈)은 지난 5일, 아산시(시장 오세현)에 관내 사회복지시설과 저소득 취약계층 대상자를 위해 라면 200박스를 전달했다.

이날 전달된 후원물품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지역 이웃들과 정을 나누고자 농심 아산공장에서 준비한 것으로 인근 사회복지시설과 읍면동으로 배분하여 도움이 필요한 가정에 지원 될 예정이다.

김상훈 공장장은 "명절을 앞두고 조금이나마 이웃분에게 명절 분위기를 만들어 드리고 싶었다. 건강하고 즐거운 명절들 보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아산=리량주기자

대투 논단

양치기 소년이 던지는 메시지

김헌태 논설고문

이솝 우화에 양치기소년의 이야기는 어린 시절부터 접하는 재미있는 이야기로 누구나 동화책을 통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이다. 양을 치던 양치기 소년이 심심해서 늑대가 나타났다고 두 번이나 거짓말을 해 마을 사람들을 속여먹었으나 세 번째로 진짜 늑대가 나타났다고 말했지만 이번에도 거짓말로 알고 아무도 오지 않아 모두가 늑대에게 잡혀 먹혔다는 내용이다. 어린이 동화의 재미와 재치를 더하고 있는 우화는 그야말로 인격화한 동식물이나 기타 사물을 주인공으로 하여 그들의 행동 속에 많은 풍자와 교훈의 뜻을 의미있게 담아내고 있다. 고대 그리스의 아피소포스(이솝)가 지은 우화를 말하는데 그 오랜 세월이 지났음에도 어쩌면 그토록 오늘날에도 잘 맞아 떨어지는지 놀라움을 금치 못한다.

양치기 소년 우화는 "거짓말은 나쁜 것이다"라는 것을 어린아이들에게 알리는 교육 자료로 더 많이 활용되어 왔지만 어른 사회에서도 역시 거짓은 불행은 자초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교훈적인 사례로 쓰여지고 있는 대목이기도 하다. 한마디로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거짓말을 하지 말라는 것이다. 거짓말을 해서 한번은 속여 먹을 수 있지만 거짓말도 자주하면 이는 불신으로 이어져 아무리 옳은 말을 하더라도 결코 신뢰를 얻지 못한다는 사실을 시사하고 있는 것이다. 성경에도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고 하고 있다. 거짓은 위선이요 참이 아니요 진리가 아니기 때문이다. 거짓을 올바른 행위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래서 자고로 거짓말하는 사람은 나쁜 사람, 사악한 사람으로 치부되는 것이리라.

그러면 거짓말을 누가 왜 하는지 살펴보면 그 답은 아주 간단하다. 자신의 행위를 합리화하고 진실을 왜곡하기 위해서이다. 잘못된 행위를 호도하기 위해서 저지르는 비도덕적인 행위이자 법적으로는 위증이자 사기이다. 그리고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행위를 지칭하기도 한다. 거짓말을 통하여 양치기소년은 재미를 느꼈을 수도 있지만 결국 양과 마을사람들, 그리고 자신의 목숨까지 잃어야 하는 비극을 자초하고 마는 것이다. 권선징악(勸善懲惡)과 사필귀정(事必歸正), 인과응보(因果應報), 자승자박(自繩自縛), 어불성설(語不成說), 이율배반(二律背反) 등의 용어로도 적용이 된다. 거짓을 진실이라고 말하는 '지록지마'(指鹿之馬)와 '양두구육(羊頭狗肉)'의 포장기법과 억지가 등장한다. 교언영색(巧言令色)으로 포장하고 변명과 궤변을 늘어놓게 된다. 최근 이재명 경기지사가 2심에서 정신병원에 자신의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공표라는 죄명으로 1심을 뒤집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는 다시 말해 진실을 왜곡하고 거짓말을 했다는 것이다. 대법원의 최종심에 따라 지사직의 상실 위기에 처한 것이다. 경우에 따라 거짓말로 패가망신을 당하는 사례가 될 수도 있다.

요즘 딸의 동양대학교 총장 표창장과 관련 검찰은 조국부인 정경심을 사문서 위조로 기소했다. 즉 거짓으로 꾸몄다는 것이다. 위조라는 것은 그야말로 허위로 꾸민 것을 말한다. 총장은 상을 준 적이 없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위임을 했다고 해달라는 등 갖은 이유를 갖다 붙이고자 목불인견(目不忍見) 사태를 자초하고 말았다는 비난이 거세다. 한마디로 거짓을 말해달라는 것인데 임기응변으로 순간을 모면하고자 하는 비겁함과 위선이 자리하고 있다. 장관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상식을 벗어나는 거짓을 꾸며 눈과 귀를 속이려고 하는 것일까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없다. 이를 둘러싸고 보이는 치졸한 행태가 너무나 수준 이하이고 과연 교육자가 맞는가 싶다. 동양대학교 총장은 이를 단호히 거부하고 진실을 말하고 있지만 이를 받아들이기는커녕 마치 거짓을 감싸주지 않았다며 비난하고 당사자는 아니라는데도 위조가 아니라는 억지 강변을 늘어놓고 이를 포장하는 사람들까지 등장하고 있다. 참으로 교언영색이 아닐 수 없다. 진실은 하나밖에 없다. 거짓인 위조냐 아니냐이다. 당사자 총장이 아니라는데 왜 총장보고 거짓을 말하라고 강권하는지 모를 일이다. 1차 거짓에서 2차 거짓을 낳고 있다. 그 거짓에 동참하라는 사람들의 행태를 보면 이들이 삶을 어떻게 살아왔는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눈속임하자는 것인데 이는 자가당착(自家撞着)이 아닐 수 없다. 남을 속여 불법으로 이익을 얻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불법으로 이익을 얻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는 사기죄에 다름이 아니다.

우리는 어린 시절부터 거짓말은 나쁜 것이라는 교육을 받고 살았다. 바로 이솝우화인 양치기 소년의 교훈처럼 말이다. 그리고 나쁜 사람과 좋은 사람의 개념도 이를 통하여 배웠다.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당연히 나쁜 사람이다. 이런 교육을 선생님으로부터 부모님으로부터 배우고 살아온 사람들이 바로 이 땅의 국민들이다. 그러나 교육자나 사회지도층이 거짓을 말하고 이를 위장하고 국민의 눈과 귀를 속이고자 한다면 이는 이른바 위선이자 사기이다. 양치기 소년과 같다. 많은 피해를 불러올 수 있는 위인에 다름 아니다.

거짓과 위선이 판을 치는 사회는 건강한 사회가 될 수 없다. 이는 도덕과 양심을 속이는 일이다. 남을 잘 속이고 일말의 가책조차 느끼지 못한다면 그것은 정신적인 문제로 넘어간다는 지적이다. 이른바 '사이코패스'나 '소시오패스'를 의심해야 한다는 것이다. 반사회적인 인격장애가 있는 사람은 이미 중증인 심각한 정신병적 증세를 의심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사기전과자들을 보면 똑같은 수법으로 지속적으로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는 것을 늘 접하게 된다. 거짓을 말하는 자들은 거짓말이 양치기 소년처럼 습성화되어 있는 특징이 있다. 거짓과 진실게임에서 승자는 분명 진실에 있다는 사실을 바로 보아야 한다. 거짓말은 패가망신의 지름길이며 척결대상이다. 거짓을 진실로 포장하려는 뜬 구름 잡는 헛된 행태는 추악한 죄악이자 범죄이다. 이를 용인하는 사회는 병든 사회에 다름 아니다.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삶의 자세는 바로 거짓말을 하지 않는데서 비롯된다. 그 강렬한 메시지를 고대 그리스 양치기소년이 오늘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 등장해 교훈적으로 던져주고 있다.

사 설

대입제도 개편 관건은 '공정성'

최근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딸 관련 의혹에서 촉발된 대입제도의 모순과 문제점이 우리 사회를 크게 흔들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일 '대학입시제도 재검토' 발언을 한 뒤 교육부가 대입제도 개편에 대한 간략한 입장을 내놓았다. 2022년 대입 개편안에 대한 큰 틀의 변화는 없다는 것이다. 문제가 많은 학생부종합전형을 개선하되 수시와 정시 비율은 기존대로 진행될 것임을 밝혔고, 이에 대한 각종 추측은 확대해석이란 점을 분명히 했다. 하지만 수험생과 학부모들의 불안감과 혼란은 여전하다.

대입제도 개편 가능성이 커지면서 대입제도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 방안과 제안들도 쏟아지고 있다. 무엇보다 학종에 자기소개서, 수상 경력 기재 등을 폐지하자는 요구가 가장 주목을 받고 있다. 학생 자신의 실력이 아닌 부모나 외부의 영향이 미치는 평가 항목은 더욱 최소화해야 하는 것이 옳다. 많은 학생들이 자기소개서에 기재할 한 줄의 이력을 위해 사교육 컨설팅까지 받으면서 시간과 노력, 비용을 들이는 경우가 적지 않다. 더욱이 일부 계층 학생들은 부모의 인맥, 재력을 무기로 출발선부터 다른 길을 가고 있어서 공정한 경쟁이 무색할 지경이다.

누구에게나 출발선이 동일해야 하지만 현행 입시제도는 특정 계층을 위한 지름길이 곳곳에 산재해 있음이 드러나면서 위화감과 분노가 심각하다. 그동안 학생부종합전형에 대한 불신과 문제점은 계속 거론되어 왔고, 깜깜이 학종을 고쳐야 한다는 목소리가 최고조에 이르고 있다. 대한민국 대부분의 수험생들은 전혀 경험할 수 없는 수준의 인턴, 연구논문, 봉사활동, 표창장 등이 최상위층 자녀들에게는 너무나 쉬운 열린 문이 되어 명문 대학에 입학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 부모의 인맥과 재력, 능력을 서로 교환하는 등 TV 드라마 속에서나 볼 수 있을 법한 현실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입시제도는 마치 변화를 위한 변화인 듯 갈수록 수험생들 간의 차별적 요소를 더욱 심화시키는 부분이 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대학입시제도의 개편은 국민적 최대 관심사가 됐다. 그렇다고 갑작스러운 졸속 개편은 수험생들에게 혼란만 가중시킬 수 있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무엇보다 부모의 실력이 아닌 수험생 자신의 실력으로 경쟁하는 대입제도로 개편되어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의 수험생 누구나 동일한 출발선에서 공정하게 실력을 겨루는 대학입시제도가 아니라면 지금과 같은 사태는 계속 반복될 것이다.

교권 확립 위한 특별법 시행 된다

학교 내에서 교사에 대한 교권 침해가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다. 매년 교권 침해 사례가 늘어나고 있으며 지난해만 해도 2천 명이 넘는다고 한다. 교권 침해를 당해도 드러내지 않고 감추는 경우도 많아 실제로는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학생들의 인권도 중요하지만 교사들의 교권 확립도 매우 중요한 시점에 이른 것이다. 교사가 되기 위해 어려운 과정을 통과했지만 학생 · 학부모로부터 교권 침해를 당할 경우 자괴감을 이겨내지 못하고 스스로 학교를 그만두는 교사들도 늘어나고 있다.

이에 교육부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을 입법 예고했다. 10월부터 교사를 상대로 폭행이나 성폭력 등 범죄를 저지른 학생을 강제로 전학시키거나 퇴학시킬 수 있다. 초 · 중학생은 의무교육이므로 퇴학 대신 강제 전학만 시킬 수 있다. 또한 학생에게 맞아 다칠 경우 그 치료비를 학생의 보호자가 부담해야 하고, 가해 학생에게는 정도에 따라 교내 · 사회봉사, 특별교육 · 심리치료 이수, 출석 정지, 학급 교체, 전학, 퇴학 등의 순서로 처분하도록 규정했다. 학생이 학교 밖의 특별교육과 심리치료 요구를 이행하지 않으면 보호자가 과태료를 최대 300만 원 내야 하고, 심리치료나 특별교육은 학부모도 함께 받아야 하는 등 처벌을 구체화했다.

아무리 학생이라고 하더라도 사회적으로 용인되기 어려운 범죄는 방치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전통적인 스승과 제자상이 무너진 지 오래지만 최소한의 예의조차 사라진 교실은 위기 그 자체다. 교사 한 사람에 대한 교권 침해 사례로 치부할 일이 아니다. 이런 일들이 일상적으로 교실에서 벌어진다면 우리 교육은 방향을 잃어버리게 된다. 최근 학교를 배경으로 한 드라마에서는 다소 과장이 섞였겠지만 담임교사는 무시된 채 특정 학생이 교실을 주도하는 모습이 나올 정도다. 아이들도 교사보다 특정 학생의 지시대로 움직이는 것이다.

학교 내에서 비정상적인 모습이 만연하고 있다. 그야말로 교사의 권위가 땅에 떨어진 상태다. 선생님에 대한 존경은 사라지고 정규직인지 기간제인지를 따지기도 하고, 가정에서는 어느 대학을 나왔는지, 어느 출신인지를 따지는 경우도 있다. 선생님을 무시하는 부모의 모습을 보고 자란 아이가 학교에서 선생님을 존경하기는 어렵다. 게다가 교사의 훈육에 부모가 매우 적극적으로 관여하여 교권을 침해하는 사태까지 이르는 경우도 있다. 위기의 교실이란 말이 과언이 아닌 안타까운 현실이다.

기 고

청양군, 전문가 자문과 군민토론 문화 정착

황선만 논설위원

청양군이 전문가의견과 군민의견을 열린 자세로 듣고 토론문화를 활성화하여 군정에 적극반영하고 있어 군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다. 청양군은 정책특별보좌관 제도를 도입하여 각 분야 전문가들의 신선하고 현실성 있는 제안을 정책에 반영하고 있다.

청양군 김돈곤 군수는 지난 신임 정책특별보좌관 위촉에 이어 간담회를 수시로 열어 군정발전을 위한 전문가 그룹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현재 청양군 정책특별보좌관은 복지분야 김장묵 단국대 보건행정학과 교수를 비롯해 관광분야 정강환 배제대 관광축제호텔대학원장, 교육분야 김구원 전 청양교육지원청교육장, 기업유치분야 이덕규 디케이경영컨설팅 대표, 로컬푸드분야 안대성 전 완주로컬푸드협동조합 이사장, 농산물유통분야 윤세구 ㈜아침이슬 전무이사, 주민자치분야 복권승 충남생태문화연구소 대표 등 모두 7명이다.

정책특별보좌관은 학계에 국한시키지 않고 현장에서 직접 경험있는 인사와 교수 등 다양하게 구성하여 이론과 현실을 접목시킨 실현가능한 정책을 만들고 있다는 평가다.

지난번 정책보좌관 간담회의 시에 안대성 교수는 "푸드 플랜이 제대로 정착하려면 눈에 보이는 직판장(하드웨어)보다 행정조직과 지역사회네트워크를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며 "푸드 플랜은 어느 한 부서의 업무가 아니라 전체 청양군민의 정서적 변화가 먼저 필요한일"이라고 지적했다. 또 "먹거리가 수요자들에게 전달되는 중간과정에서 새로운 사회적 조직이 자생되도록 신활력플러스 사업을 설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윤세구 전무이사는 "청양군은 농산물 생산농가에 다른 시군보다 많은 지원을 했지만, 유통 마케팅에는 다소 소홀하다"면서 "농산물 홍보는 현장에 있는 생산자가 직접 담당하면서 부가가치를 올리는 형태가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이어 "청정지역의 강점을 살려 청양밤(임산물)을 브랜드화 하는 것에도 주목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정강환 교수는 관광분야를 언급하면서 "관광 상품으로서 제일 중요한 것은 주제의 명확성인데 고추문화마을은 여러 콘셉트가 혼합돼 있어 차별화 된 매력 포인트가 없다"고 지적했다.

또 "칠갑호 관광조성사업은 위치가 상당히 좋기 때문에 집중적인 개발이 필요하다"면서 "이 사업은 스카이워크가 핵심인 만큼 효율적인 동선 창출을 위한 정확한 구상이 요구된다"고 제안했다.

한편, 청양군 김돈곤 군수는 농업과 농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농업농촌활력화 포럼을 만들어 성과 창출 방안을 의논했다.

활력화 포럼은 ▲행복한 농업농촌 실현과 지속가능한 발전 토대를 마련하고 ▲지역의 농업인이 분야별 현안과제를 도출하는 등 주민참여형 농정계획을 수립할 목적으로 추진된다.

활력화 포럼은 4차에 걸쳐 실시할 예정으로 분과별 30명 단위로 농업정책분과, 농산물유통분과, 친환경농업분과, 원예특작분과, 산림자원분과, 청정축산분과 6개 분과로 운영된다.

또한, 김돈곤 청양군수는 청소년정책 합동 토론회 '청소년이 만드는 세상'을 열고, 지역 청소년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청취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제15기 청소년참여위원회, 군내 중 · 고등학교 학생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아동청소년문화분과위원 등 50여명이 참석해 원탁대화를 나눴다. 참석자들은 청소년들의 활동 방향성에 대한 다양한 시각을 공유하면서 계층의 욕구에 부응하는 청소년 정책과 활동프로그램의 질적 향상을 도모했다.

5개 조로 나누어 진행된 주제 토론에서는 각각 청소년 참여, 교육 및 진로, 문화, 시설 및 지원, 환경에 대해 3시간 동안 의견을 모았으며 그룹별 우선순위로 선정된 정책을 청양군에 전달했다.

전문가의견과 군민의견을 열린 자세로 듣고 토론문화를 활성화하여 군정에 반영하는 것이야 말로 민선자치정신이기 때문에 전문가 자문과 군민토론 문화를 만들어 가고 있는 청양군이 주목 받는 것이다.

대전대명로타리클럽 쌀 730kg 기부

대전지역 소규모 양육시설인 공동생활가정 아동들에게 전달

대전대명로타리클럽은 지난 7일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대전지역본부에 쌀 730kg를 전달했다.

행사에는 대전대명로타리클럽의 최건희 회장, 김영학 총무, 최용석 재무, 안정희 봉사위원장, 도성환 사찰위원장, 이승룡 회원, 남현 회원, 이용석 회원등 많은 회원들이 참석했다.

이번에 기증하는 쌀은 대전대명로타리클럽의 창립 후 초대회장으로 취임하는 최건희 회장 취임식 때 경제적으로 어려운 아이들을 위해 화환 대신 드리米 쌀 화환을 받은 것으로 대전지역 소규모 양육시설인 15개 공동생활가정과 3개 학대피해아동 쉼터의 아동들에게 전달됐다.

대전대명로타리클럽 최건희 회장은 "아직도 이렇게 어려운 아동들이 많이 있고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음에 놀랐다. 화환 대신에 받은 축하 쌀로 어려운 아동들을 도울 수 있어서 너무나 기쁘다."며 "대전대명로타리클럽에서는 물품 후원뿐 아니라 노력봉사등 저소득층 가정의 향상을 위해 더 많은 나눔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치겠다."고 밝혔다.

박미애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대전지역본부장은 "소규모시설인 아동공동생활가정은 넉넉지 않은 운영비로 시설을 운영하는게 쉽지 않은데 추석명절을 맞아 큰 선물을 주셔서 감사드리며, 대전지역의 아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쌀화환 전문기업인 드리米 대전지사와 초록우산어린이재단 대전지역본부는 업무협약을 맺어 지속적으로 나눔이 있는 경조문화 조성에 힘쓰고 있다.

송병배기자

☎ 독자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대로 26-20태동빌딩 7층
▷E-mail : d-mail@hanmail.net
▷이름, 나이, 주소, 전화번호를 기재 요망.

중구, 가구주택기초조사요원 모집

11월 중 20일 동안 현장확인 · 방문면접 조사 실시

대전 중구(구청장 박용갑)는 오는 10일부터 24일까지 2019 가구주택기초조사요원 38명을 모집한다.

신청일 현재 대전에 주민등록등재자로 만 18세 미취업자면 참여할 수 있다. 투철한 사명감과 책임감으로 조사에 전념할 수 있어야 하며, 중구민과 지난 2015년 인구총조사 등 통계조사 유경험자는 우대 채용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은 중구 홈페이지 모집공고를 확인 후 접수 기간 내 기획공보실을 방문해 접수하거나 홈페이지(www.census.go.kr)에서 인터넷 접수를 하면 된다. 30일 최종 합격자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으로, 문의는 기획공보실(☎042-606-6153)로 하면 된다.

2019 가구주택기초조사는 11월 6일부터 25일까지 전국에서 동시에 현장확인 또는 방문면접으로 실시된다. 중구는 약 10만 2천여가구가 조사 대상이다.

구 관계자는 "조사결과는 중요한 국가의 통계자료 사용되는 만큼, 성실한 조사요원이 모집되길 바라고, 방문 면접가구에서는 적극적으로 조사에 협조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태선 기자

大田투데이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대로 26-20 태동빌딩 7층 젊은생각 · 바른신문 2006년 5월 17일 창간

발행 · 편집인	김 현 정	회 장	김 성 구	논설위원	조 정 호
전화안내	042)538-3030	기사제보	042)538-1601	팩스번호	042)538-2211
구독배달안내	042)538-1602	광고신청안내	042)538-1603	구 독 료	월1만3000원 1부 700원

서울지사 : 서울특별시 중구 중림동 63-2 ☎ 02)6406-5921 팩스 02)392-5143
인쇄 처 : 동양일보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닥터케어 GOLD

숙취해소

말이

왜 필요합니까?

소비자 상담실 1899-1677

음주 전·후 각1포

me too 피투 술에

더 이상

당하지 맙시다!!

숙취해소전문기업 닥터케어

대표 조성덕